

탈-향의 길 위에서  
脫 向



성서일과표 다(C)해 복음말씀에 따른 설교집

# 탈-향의 길 위에서

脫 向

정원진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제일교회

## | 차례 |

머리말	6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눅 3:1-6	8
탈(脫)-향(向)   빌 3:12-14	16
예수의 '길', 예수의 '품'   눅 13:31-34	22
당신은 그 사랑을 아십니까?   눅 13:1-9	32
사람과 사회와 민족을 치유하는 목회	42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요 12:1-8	45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눅 19:28-38	55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갈 2:20	65
죽음에서 부활로, 의심에서 신앙으로!   요 20:24-29	74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21:1-19	84
아무도 빼앗지 못할 소명   요 10:22-30	95
낮고 싶으냐?   요 5:1-9	104
하나님의 자녀들   창 4:1.25	114
자녀의 도리   엡 3:1-3	121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행 2:1-4	127
하나님의 사랑법   롬 5:1-5	134
자연에서 배우라!   마 6:25-30	143
기장이여, 일어나라!   눅 7:11-17	153
평화와 공존의 길   눅 8:26-39	162
네 죄가 용서받았다!   눅 7:36-50	172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눅 10:25-37	182
참된 섬김의 길   눅 10:38-42	191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눅 11:1-13	200
어리석은 자여...   눅 12:13-21	209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눅 12:32-34	218
군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눅 8:26-39	226
달힌 종교, 열린 종교   눅 13:10-17	235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일 1:1-4	243
제자가 되는 길   눅 14:25-33	253
그의 나라 온 땅에!   눅 15:1-10	262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전 3:11-13	271
나눔의 잔치   요 6:51-58	280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마 6:24-33	289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눅 18:1-8	298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눅 18:9-14	307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요 17:14-19	316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16-18	326
산자여 따르라!   눅 20:27-38	335
십자가에 달리신 왕   눅 23:33-43	345
깨어 있어라!   마 24:36-44	355
듣고 본 것을 알려라!   마 11:2-11	365

## 머리말

이 설교집은 제가 서울제일교회에 부임한 첫 해에 했던 ‘증언’들을 날짜순으로 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의 본문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lectionary)가 제시한 복음서’였기에 “성서일과표 다(C)해 복음말씀에 따른 설교집”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교회의 전례달력은 한해가 ‘대림절’에서 시작되는데, 마침 청빙에 앞서 제가 서울제일교회에 초청되어 증언한 날이 2015년 11월 29일 대림절 첫째 주일이어서 그 증언부터 실었습니다. 한편 2016년 대림절 증언은 ‘다(C)해’에 한 것이 아니기에 빠져야 하지만, ‘촛불집회’ 관계로 2016년 대림절 직전 주일에 했던 증언 주제가 대림절까지 이어졌기에 부득이 몇 주 증언을 추가했습니다.

설교집 제목을 무엇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탈(脫)-향(向)의 길 위에서”라고 했습니다. 먼저 “탈(脫)-향(向)”이라는 말은 제가 2015년 송구영신예배에서 했던 증언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증언은 제가 서울제일교회의 청빙을 받고 처음으로 한 것이어서 제 목회 비전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탈(脫)-향(向)”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언에서 밝혔듯이 저는 “기성의 것에서 탈(脫)해서 새로운 것을 향(向)하는 목회, 세상적인 것에서 탈(脫)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向)하는 목회, 개인구원만을 또는 사회구원만을 추구하는 한 날갯짓에서 탈(脫)해서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양 날갯짓으로 참된 구원을 향(向)하는 목회, 예수를 믿기만 하는 신앙에서 탈(脫)해서 예수를 닮고 마침내는 살아내는 참된 신앙을 향(向)하는 목회”를 추구합니다. 또한 “길 위에서”라는 말은 박형규 목사님에게서 가져

왔습니다. 박 목사님의 트레이드마크(trademark)와 같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박 목사님의 삶과 신앙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부임 첫해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갓 부임한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교우들에게 자기 목회 비전을 밝히고, 이를 통해 교우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교회의 새 청사진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들이 흔히 겪는 것처럼 서로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신임 목사와 기존 성도간의 소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설교는 양 방향의 대화가 아니라 단 방향의 증언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소통이 어렵습니다. 이 설교집은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펴내는 것입니다. 자세히 읽어 새 담임목사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해 계속적으로 대화한다면 서로 간의 견해 차이는 좁혀지고 교회의 청사진은 점점 분명해지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설교집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새 길을 걷자는 초대입니다.

아무쪼록 “탈(脫)-향(向)의 길 위에서” 벗으로 만나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신앙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서울제일교회와 그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2017년 대림절을 앞두고

정원진 목사 올림

##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sup>1</sup>디베로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열다섯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sup>2</sup>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sup>3</sup>요한은 요단 강 주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sup>4</sup>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sup>5</sup>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sup>6</sup>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눅 3:1-6)

### 대림절,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기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전례달력에 따라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네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는 세 가지 차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때,’ 현재의 ‘오늘,’ 그리고 미래의 ‘그날’이 그 시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천 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여기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아가 종말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과거를 기념하고, 현재



를 축하하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대림절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첫 번째 성탄절은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의 영어 원문을 보면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has’ come”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구주 오시네”입니다. 즉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왜? 성탄절은 단순히 이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과거 오래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도 오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듯 대림절과 성탄절의 목적은 과거를 현재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용어로 ‘과거의 현재화’라고 합니다. 이 ‘과거의 현재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력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때 거기에서’ 있었던 ‘저들’의 체험과 고백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의 체험과 고백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고,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그때 거기서’ 일회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 지금 이 세상에는 평화가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더욱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네 역사가

점점 더 끔찍했던 과거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희망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평화의 왕을 고대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염원합니다. 썩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이유로 성탄절은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니 현재의 사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미래의 ‘그날,’ 즉 ‘종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사실 대림절과 성탄절은 본래적으로 ‘종말론’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론은 “역사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상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기존의 것은 철저하게 멸망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천지개벽의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이 약속한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예언자는 그런 세상을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sup>1</sup>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쳐 올 것입니다.... <sup>3</sup>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멘 장대를 부러뜨리시고 혹사하는 자의 채찍을 꺾으실 것입니다.... <sup>4</sup>마구 짓밟던 군화, 피투성이 된 군복은 불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sup>5</sup>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sup>6</sup> 다윗의 왕좌에 앉아 주권을 행사하여 그 국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법과 정의 위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야훼께서 정열을 쏟으시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실 일이옵니다.(사 9:1.3-6, 공동번역)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을 ‘대청소’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청소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에 협력하여 작으나마 한 몫을 감당하라고 초청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대림절 기간은 ‘수동적인 기다림의 시기’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 무수한 발자국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

대림절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협조하고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눅 3:4).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길’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봄으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답을 찾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쓰인 ‘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hodos’입니다. 이 ‘hodos’란 단어는 영어로는 way, path, road 등으로 번역됩니다. 우리말로는 각각 길, 통로, 도로 등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 셋 모두가 길을 뜻하기는 하나 way나 path와 road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way나 path는 ‘밟아서’ 생긴 길을 가리키고, road는 ‘토목공사’를 해서 생긴 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구절이 마태복음 7장 13-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 드는 사람이 적다.” 이 말씀을 보면 ‘넓은 문’과 ‘넓은 길’ 그리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넓은 문, 넓은 길은 무엇이였을까요? 로마제국에는 유명한 것이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에그냐티아 대로라고 불린 ‘도로’였는데, 이 도로는 로마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 건설한 ‘군사도로’였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뚫린 이 군사도로는 약소민족들의 고혈을 빨아들이는 착취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뜻에서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킬 때도 제일 먼저 관심한 것이 바로 철로를 놓고, 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역시 세계 정복을 전제로 광범한 아우토반을 만들었으며, 그 길을 타고 유럽을 침공했습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볼 때 넓은 길, 즉 마차나 자동차가 이동하기 편하도록 토목공사를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도로, road는 약한 나라들을 갈취하려고 강자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도로’가 아닌 그냥 ‘길’, way나 path가 있습니다. ‘길’이란 것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길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무수한 발자국**들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산에 난 조그만 오솔 길이나,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화단에 나 있는 지름길을 연상하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화단에는 지름길이 나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보도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길로 가는 것 보다, 잔디 위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깝고 편합니다. 처음에는 잔디가 심겨져있던 곳이었는데, 한 사람이 그리

로 걷고, 다른 사람이 그리로 또 걷고,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로 걷고 또 걸으니까, 결국 그곳에 있던 잔디는 다 죽고, 땅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길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문자 그대로 footway, ‘밟아서’ 생긴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길은 사람들이 수없이 왕래함으로써 생긴 무수한 발자국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길’(道)은 곧 ‘맥’(脈)입니다. 발자국들의 이어짐, 사람들의 이어짐이 길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만이 아니라, 내 뒤에 누군가가 내 발자국을 포개어 걸을 때,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 비로소 길이란 것이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님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국들에 의해 이룩된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과 사사 및 예언자들,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교회사의 이름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걸어왔던 그 발자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은 다져지고 다져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길은 명상의 대상이 아니라, 몸으로 가고 삶으로 살 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자신의 몸과 삶으로 이 길을 가장 철저히 걸어간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길’을 설명하거나 개념화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서는 단지 길을 가는 예수님을 서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요 14:6)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한다”(눅 13:33)고 하시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 길 자체이신 그분은 앞장서 가시면서 자신이 간 그 길을 따라 오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공관복음서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 16:25, 막 8:34, 눅 9:23)는 명령으로 당신께서 걷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어야 함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에는 이런 명령이 없습니다. 대신 상징적인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요 13:1-20)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눈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쏙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신’(요 13:5)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다른 데도 아니고 왜 하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죽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난 후 그 제자들의 발이 밟아야 할 ‘길’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 길을 뒤따라가야 할 제자들의 ‘발’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갈 그 발자국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또 다른 무수한 발자국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길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야 말텐데…。 아마도 예수님은 새 하늘 새 땅을 일구어 낼 그 발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부드럽고, 지극히 온유하고, 남김없이 다 바치는 섬김으로 제자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고 닦아주신 그 발로 하나님의 길을 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그 발자국 위에, 사도들이 걸어난 그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포개며 걷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그 길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길 -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진지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진정한 성탄절이 시작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다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자국을 기꺼이 포개며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마 28:20)이라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증언은 청빙에 앞서 서울제일교회에 초청되어 한 것입니다.

## 탈(脫)-향(向)

<sup>12</sup>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sup>13</sup>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sup>14</sup>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빌 3:12-14)

### 탈(脫)-향(向)의 의미

오늘 우리는 묵은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언자인 제 책임은 이에 적합한 신년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제가 서울제일교회의 청빙을 받고 처음으로 증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비전과 미션을 갖고 목회할 것인지를 개략적이거나 밝혀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과연 신년메시지와 위임설교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서 선포할까 고민 고민하다가 정한 제목이 바로 ‘탈(脫)-향(向)’입니다. ‘탈(脫)-향(向)’은 ‘벗을 탈’와 ‘향할 향’자를 씁니다. 탈(脫)이란 말은 ‘탈출한다’,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의 탈출, 바빌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벗어남, 이것이 바로 ‘탈(脫)’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다른 이름은 ‘자유’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에게 출애굽은 구원이었습니다. 바빌론 유민들에게 해방은 곧 구원이었습니다. 이렇듯 속박과 소외로부터의 자유는 구원입니다. 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역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자유’는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유가 그 목표를 잃으면 ‘방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무엇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 끝나서는 안 되고, ‘무엇 무엇을 향한 자유’ 또는 ‘무엇 무엇을 위한 자유’로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즉 분명한 목표를 가진/향한 자유가 진짜 구원입니다.

출애굽의 목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바빌론 포로의 목표는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이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탈(脫)’에는 ‘향(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목표를 향한 자유, 진짜 구원, 그리고 탈(脫)-향(向)은 한 의미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 송구영신(送舊迎新)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예배를 통해 2015년을 떠나보내고 2016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살아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15년을 ‘탈출’하고 2016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15년에서 ‘퇴출’ 또는 ‘방출’ 당해서 2016년을 ‘겪거나’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호스피스에서는 ‘당하는 죽음’과 ‘맞이하는 죽음’을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당하는 새해와 맞이하는 새해는 전혀 다릅니다.

나이 먹는 것과 늙는 것이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몸은 젊지만 마음은 늙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젊음과 늙음을 가를까요?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해서 늙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꿈을 잃으면 누구나 늙은이가 됩니다. 무관심과 무목적의 사람을 늙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젊어지고, 믿지 못하는 만큼 늙습니다. 자신감을 갖는 만큼 젊어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만큼 늙습니다. 희망의 크기만큼 젊어지고, 절망의 깊이만큼 늙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젊어지고, 미워하는 만큼 늙습니다.

저는 오늘 송구영신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들은 2015년을 ‘탈출’해서 2016년을 ‘맞이’한 분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준비 없이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맞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2015년을 떠나보내고 2016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새해는 분명 당하는 새해가 아니라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그러니 순서지 뒷면에 이해인 수녀가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라는 시에서 썼듯이, 2016년에는 기도의 사람, 희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기쁨이 사람이 되어, 비록 나이는 한 살 더 먹었지만 실제로는 한 살 더 젊게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탈(脫)-향(向)’의 목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탈(脫)-향(向)’이라는 용어는 제 스승이신 안병무 선생이 만든 조어(造語)입니다. 저는 정말로 그분에게 큰 빛을 쬔고,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또한 목회자가 된 것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닮고 따르는 길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목회현장/교회현장에 구현하고자 애썼던 것도 다 그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목회 비전과 미션이 안병무 선생의 영향하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제 목회를 ‘탈(脫)-향(向)’의 목회라고 이름 짓고 싶습니다. 기성의 것에서 탈(脫)해서 새로운 것을 향(向)하는 목회, 세상적인 것에서 탈(脫)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向)하는 목회, 개인구원만을 또는 사회구원만을 추구하는 한 날갯짓에서 탈(脫)해서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양 날갯짓으로 참된 구원을 향(向)하는 목회, 예수를 믿기만 하는 신앙에서 탈(脫)해서 예수를 닮고 마침내는 살아내는 참된 신앙을 향(向)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제껏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섬김 받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로, 닫힌 교회에서 열린 교회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쌓아 올리는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교회로,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에서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로 ‘탈(脫)-향(向)’하기를 원합니다.

## **‘탈(脫)-향(向)’의 교회**

우리는 왜 ‘탈(脫)-향(向)’해야 할까요? 정주(定住)하고 안주(安住)

하면 썩고 죽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교회만 썩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썩고 죽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3-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뒤에 있는 것에서 ‘탈(脫)’해서, 앞에 있는 것을 ‘향(向)’해서, 즉 탈(脫)-향(向)의 관계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주체성, 정체성을 나는 발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탈(脫)-향(向)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삶의 모습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참 삶의 자세를 노출한 것이고, 교회의 참 모습을 제시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출애굽은 영어로 엑소더스(exodus)라고 하는데, 이는 ‘밖으로’(ek)라는 전치사와 ‘길’(hodos)이라는 명사가 결합된 것입니다. 즉 애굽의 고기 가마에 연연하면서 거기서 그럭저럭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면 그들에겐 일상적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시는 길을 따라 간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ekklesia)라고 하는데, 이는 밖으로(ek) 불림 받은(kle)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질서로부터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세상의 질서

가 교회를 운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트(protest)란 이름을 가진 것도 가톨릭교회를 개혁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낡은 것에서 프로테스트(protest)해서, 계속 리폼(reform)해서 쉬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갱신하고 개혁하고 교회, 이것이 개신교입니다. Protestant-Reformed-Church라는 개신교의 칭호를 그대로 살린다면 바로 탈-향(脫-向)의 교회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즉 어떤 집단이 - 교회나 사회가 자꾸 정착에로의 길로 기울어갈 때, 점점 보수화의 늪으로 빠져들 때, 거기에 프로테스트(protest)해서 탈-향(脫-向)의 본래 모습으로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개신교회의 역할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는 주님께서 주어(主語) 되시고 사람은 동사(動詞)가 되는 모임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단 한 문장으로 이보다 더 잘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주어로 모시고 인간은 그 주어와 전적인 종속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크리스천은 교회의 주어이신 주님의 동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께서 주어가 되실 때만 진정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주어는 누구인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또 우리교회의 주어는 누구인가? 과연 나와 우리교회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가? 2016년 한 해 동안 ‘탈(脫)-향(向)’의 사람, ‘탈(脫)-향(向)’의 교회가 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예수의 ‘길’, 예수의 ‘품’

<sup>31</sup>바로 그 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sup>32</sup>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sup>33</sup>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sup>34</sup>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니!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눅 13:31-34)

###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여러분의 청빙을 받은 것이 작년 12월 13일이었는데, 만 두 달이 넘은 2월 16일에야 노회의 허락을 받아, 비로소 오늘 여러분의 담임목사로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증언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평소에 하듯이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lectionary)가 제시한 복음서 본문을 골랐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는 3년을 주기로, 매주일 네 개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 네 개의 말씀은 보

통 구약, 시편, 서신서, 복음서에서 각각 제시됩니다. 저는 매주일 제시되는 시편 말씀은 교독으로 넣고, 첫 3년은 복음서를 본문으로, 그 다음 3년은 서신서를 본문으로, 그리고 마지막 3년은 구약성서를 본문으로 증언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9년은 시무해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본문으로 하는 제 증언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저를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문이 던지는 두 개의 화두(話頭)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둘째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부활절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듯이 우리도 옛 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지 않고는 결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죽어야, 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할 것은 ‘자기 죽이기’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을 죽이는 훈련,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죽이는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갈 2:20 참조).

사순절 둘째주일인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가 제시한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4절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31-33절과 34절,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각각 ‘길’과 ‘품’이라는 화두(話頭)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의 ‘길,’ 예수의 ‘품’”이라고 했습니다.

## 무수한 발자국을 통해 다져진 하나님의 길

‘길’과 ‘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하는 대표적인 두 은유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길’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29일 대림절 첫째주일에 제가 이 강단에서 증언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교에서 저는 “길은 사람들의 무수한 발자국들에 의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던 어떤 땅을 한 사람이 밟으며 걷고, 다음 사람이 또 밟으며 걷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걷고 또 걸으니까, 결국에는 그 땅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지금과 같은 모양의 길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길은 사람들이 수없이 왕래함으로써 생긴 무수한 발자국들에 의해서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길’(道)은 곧 ‘맥’(脈)이라고 했습니다. 발자국의 이어짐, 사람들의 이어짐이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만이 아니라, 내 뒤에 누군가가 내 발자국을 포개어 걸을 때, 그리고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때, 비로소 길이란 것이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도 이와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 역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발자국들에 의해 이룩된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과 예언자들,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교회사의 이름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걸어왔던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은 다져지고 다져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길은 명상의 대상이 아니라, 몸으로 가야하고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가야만 한다”고 하십니다. 헬라어 원어는 분명 “가겠다”가 아니라 “가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성경은 이를 “I **must** be on my way”(NRSV)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습니까?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그 발자국 위에, 사도들이 걸어간 그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포개며 걷고 있습니까? 내가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내가 손해 보는 길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 나의 전향(轉向) 체험

여기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62년생, 81학번입니다. 대학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물리학을 배우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신나고 경이로운지, 정말 행복한 물리학도로서 대학생살의 전반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큰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가는데 갑자기 어떤 학생이 도서관 유리창을 부수고 난간으로

나아와 유인물을 뿌리며 뭐라고 구호를 외쳐댔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곧 달려온 사복 경찰들에게 두들겨 맞고 어디론가 개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당시는 사복 경찰이 교내에 상주하던 때라 이 모든 일은 정말로 ‘순식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목격한 시위 장면이었는데, 이는 제게 큰 ‘사건’이었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집-강의실-도서관’만을 오가며 ‘물리학-수학-컴퓨터’ 밖에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위를 주도해서 경찰에 끌려간 그 학생이 누구인지, 또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도 소정의 교과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는 단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의 시위를 주동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삶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위를 주동한 5분과 남은 인생 전부를 맞바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 놓았을까?” 이 물음이 그 후 며칠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물리학을 넘어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과학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고 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변혁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기독교청년운동에 투신함으로써 저의 생각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나 에스겔처럼 놀라운 환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80년대에 한국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역사의 제단에 피를 쏟았던 저의 동지들에게서 예수님을 보았고, 저들이 그토록 간절히 이루고자 소망했던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물리학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나머지 인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사회 역사현장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차마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앞서 간 동지들의 뒤통까지 더해서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제 인생길을 바꿨습니다.

제 또래의 음악가 백창우가 아주 오래 전에 “나이 서른에 우리”라는 노래를 지어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이 서른에 우린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나이 서른에 우린 무엇을 사랑하게 될까  
젊은 날의 높은 꿈이 부끄럽진 않을까  
우리들의 만남과 우리들의 약속이  
나이 서른엔 어떤 뜻을 지닐까  
빈 가슴마다 울려나던 참된 그리움의 북소리를  
나이 서른에 우린 들을 수 있을까

제 나이 서른을 넘고, 마흔도 쉰도 훌쩍 넘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어느새 제가 청년시절에 “역사현실은 외면하고 제 가족 돌보기에만 급급한 기성세대”라고 비판했던 그 자리에 제 자신이 서 있습니다. 예수

님에게 빛진 마음을 갖고, 내 비록 예수님과 똑같이 살지는 못해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보겠노라고 출발한 제자로서의 삶, 목회자로서의 삶을 뒤돌아보면 얼굴이 빨개지도록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한결같이 끝끝내’ 내 길을 가야만 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제 신앙양심을 흔들어 깨웁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오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 **‘품’을 잃은 세상에서 품이 되신 예수님**

다음으로 ‘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니!”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품’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따뜻함, 포근함, 부드러움, 조건 없이 받아들임, 안식처, 쉼터, 보금자리, 낙원 등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불행히도 현대사회는 품을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독신 내지는 독거가정이 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느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품을 잃고 홀로 사는 세상, 한데 모여 살기는 하지만 마치 모래주머니 같아 헤치면 와르르 흩어지는 관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품’을 말하면서 ‘어미 닭’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품’은 원래 모성(母性)에서 나온 것입니다. 품을 생각할 때,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물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의 모습만큼 적절할 상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궁, 생명을 가진 젖가슴을

가지고, 생명을 낳고 기르고 먹이고 감싸는 ‘어머니’, 즉 모성이 바로 품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모성애는 다른 말로 ‘희생’입니다. 품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품도 없습니다.

이런 전제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품의 사람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이 달리 들립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옮기면 “식막한 세상살이에 지치고 실망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 품으로 오너라. 내가 너를 품어 주마. 아무 조건 없이 너를 내 품에 안아 주마” 하는 말씀에 다름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품은 내 뜻을 남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수용’하겠다는 자세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바로 이런 자기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Movement)도 정의만 내세워서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자기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품이 있어야 합니다. 내 정의를 가지고 남의 불의를 이기려고만 한다면, 거기에는 피 흘리는 상호 투쟁만이 남습니다.

교회란 것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란 말은 “예수의 ‘품’ 안에서”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라고 권고합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예수의 품이 되려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 주어야 한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품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서로가 서로에게 품이 되어 줍시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품이 되어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은 사람들의 몸과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참된 보금자리요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품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힘닿는 대로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품이 되게 하십시오! 하지만 참된 교회는 교우들만을 품는 품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벼랑 끝에 내몰린 민주주의와 고난당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 시대의 참된 교회의 본모습을 회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

절 ‘고난당하는 민주주의’ 촛불예배 및 기도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매일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총회 홈페이지(prok.org)를 들러 거기 올려진 ‘고난당하는 민주주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장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총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사회의 고난 현장을 찾아가 성찬을 나누며 촛불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오후 7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촛불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매일기도’와 ‘현장예배’에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권고를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 당신은 그 사랑을 아십니까?

<sup>1</sup>바로 그 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sup>2</sup>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sup>3</sup>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sup>4</sup>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열여덟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sup>5</sup>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sup>6</sup>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sup>7</sup>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sup>8</sup>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sup>9</sup>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눅 13:1-9)

### 하나님과의 숨바꼭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숨바꼭질 놀이 많이 해 보셨지요? 유대인 랍비 바룩의 손자가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는 몸을 꼭꼭 숨기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술래 친구



가 오지를 앉았습니다. 한참 만에 밖으로 나온 그는, 친구가 자기 찾는 것을 중단하고 그냥 집으로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헛되이 기다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재에 있는 할아버지에게로 달려가 울면서 자기 친구를 비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랍비 바룩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숨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고 말씀하신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이 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찾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에 매여서, 세상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 찾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사순절은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찾아나서야 하는 절기입니다.

##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는가?

오늘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예수님께 정보만 전달한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나름대로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처럼 죄 없는 사람들이 무참히 죽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시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왜 벌을 받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으면 벌도 없

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의인에게는 절대로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엄청난 재난은 엄청난 죄를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죄 때문에 벌을 받았는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다른 의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재난을 당하지 않았습다. 따라서 우리는 의인이죠? 우리의 의로움을 확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그들은 “우리는 의롭고 선하다. 하지만 저들은 불의하고 악하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마음과 의도를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눅 13:2-3).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도 죄인이다. 너희들도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 **생명을 1년 더 연장 받은 무화과나무**

어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아무데서나 잘 자라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가장 좋

은 곳'에 심었다는 말입니다. 포도원은 토양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일 년이 지나고 이 년이 지났지만 그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더욱더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서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삼 년이 지나도 그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릅니다. “보아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에게 계속 온갖 정성을 기울여 볼 테니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더 무화과나무에게 기회를 주자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 버리자고 사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부에게 작물은 자식과도 같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한 이유는 무화과나무가 그에게 자식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운 무화과나무가 잘려나가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의 간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잘림을 유예 받았습니다. 일 년이라는 시간을 ‘덤’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일 년 뒤에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 비유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들이 무화과나무임을,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음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무화과나무인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기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무가 아니고 무화과나무입니다. 과실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제 구실을 하는 나무입니다. 만약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과수원에 있는 어떤 나무가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무를 뽑아내고 열매 맺는 다른 나무를 심겠지요. 다행히 우리는 “잘려나감”을 일 년간 유예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일 년이라는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 **당신은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읽고 묵상하면서 무화과나무인 저 자신보다 무화과나무를 살리기 위해 애쓴 포도원 지기에게 마음이 쏠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삼 년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상징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과수원 지기에게서 우리를 위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청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심판의 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매달리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유예 받은 일 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같은 길이의 시간이라 해도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매우 길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매우 짧게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 소풍가기 전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예쁜 옷도 채비해 놓고 소풍가는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또 깨도 날이 밝지를 않습니다. 이런 때 한 시간은 꼭 열 시간, 백 시간 같습니다.

반대로 내일이 시험 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덜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공부하는데, 시계를 보면 금방 한 시간이 지나고, 또 조금 있다가 시계를 보면 또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럴 때는 왜 그리도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정말 미처버릴 지경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정말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말의 시간은 주님의 ‘사랑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도 영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시계는 똑딱똑딱 잘도 갑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은 천년이 하루와 같을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당신 자녀가 고통 중에 있는데 어서 빨리 가서 도와주지 못할 때, 주님께서서는 하루가 마치 천년 같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마치 물가에 자녀를 내보낸 부모처럼 우리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안절부절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사고 사정하고 또 사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심판의 시계를 자꾸 자꾸 뒤로 돌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 무한한 인내와 한없는 용서의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무수한 허물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인내 앞에 “주님, 당신의 무한한 사랑에, 그 인내에 제가 손들었습니다” 하며 행복해 보셨습니까?

##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읽으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래 전에 읽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셜 실버스타인 지음)라는 동화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을 보면 ‘나무’는 ‘소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년의 놀이터와 쉼터가 되어 주었고, 다음에는 돈을 요구하는 청소년이 된 그에게 가지에 달린 사과를 몽땅 내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이 필요하다는 청년이 된 그를 위해 자기 가지를 모두 잘라 주었고, 또 다음에는 장년이 된 그에게 배를 만들라고 줄기를 베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인이 되어 돌아온 그에게 나무 밑동을 내어주어 앉아서 쉬게 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도 나무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더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우리의 심판을 유예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시간도, 돈도, 몸도 남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많이 내어놓아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

다. 내가 가진 ‘열’을 내어놓은들 내가 주님께 받은 ‘백’에는 결코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이 아무리 커도 주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언제나 unbalance하기 때문입니다.

## **열매를 맺고, 그것을 이웃과 나눕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무처럼 우리도 저마다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유일한 나무로서,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께서 직접 고른 땅에 심으셨습니다. 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자기 열매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언제나 나 아닌 남이 먹습니다. 즉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남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맺은 열매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한국사회가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비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를 맺지 않아서 인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30여 년 동안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교인도 늘고, 교회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열매는 자기들만을 위해 쓰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여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복음의 역사가 130년이 넘어갔으면,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사회는 조금이라도 변해야 했습

니다. 물질보다는 사람 사랑의 열매, 부패보다는 정직의 열매, 분열과 불화보다는 평화의 열매, 불평과 탄식보다는 감사의 열매, 이기적인 욕망보다는 나눔과 섬김의 열매가 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한국 크리스천이 일본 크리스천을 만나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 역사가 1백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 인구의 25%가 크리스천입니다. 당신네는 선교 역사가 5백 년이 넘어가는데 어째서 1%를 넘기지 못합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일본 크리스천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미 천국이 되었겠군요?”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른다지요? “지옥과 같은 봉건국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탓입니까? 그들의 탓이 크지만 그들만의 탓은 결코 아닙니다. 바닷물에 들어 있는 소금은 채 3%밖에 되지 않지만 짠 맛을 내고 바다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크리스천은 인구의 채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족사를 이끌었고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지금 한국 크리스천은 인구의 25%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면 사해 바다보다 더 짠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사회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회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이나 생각의 돌이킴이 아닙니다. 행동의 돌이킴, 삶의 돌이킴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지금 숨어계신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숨어계신 하나님을 찾아 나섭시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을 찾아내고,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헬조선”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데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십시다. 아멘.

## 사람과 사회와 민족을 치유하는 목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제 취임예배에 진히 참석하여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순서를 맡아 주신 박승렬 노회장님을 비롯한 노회 임원분들, 존경하는 김상근 목사님, 한완상 장로님, 야마모토 유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축가를 불러주신 <평화의 나무합창단>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서울제일교회는 1970년대 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지(聖地)입니다. 비록 규모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온 교회입니다. 또 세계교회, 한국교회, 정치권, 시민사회운동권, 기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인재와 지도자를 배출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실로 서울제일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부족한 제가 감히 제6대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를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리라 믿기에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시려고 훈련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물리학을 전공하던 제가 향린교회를 통해 스승 안병무 선생님을 만나 인생을 전향하게 하셨고, 김호식 목사님, 박성자 목사님, 홍근수 목사님 밑에서 각각 다른 색깔의 목회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미국유학 후에는 교만하지 말라고 암이라는 병을 주

셨고, 명지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며 치유목회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난 6년간 명지병원에서 일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오슬러는 “훌륭한 의사는 ‘병’을 ‘치료’하지만, 위대한 의사는 ‘환자’를 ‘치유’한다”고 했습니다. ‘치료’와 ‘치유’는 다릅니다. 치료는 ‘질병’에 초점이 있고, 치유는 ‘사람’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의료는 환자의 통증(pain), 즉 병을 치료하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의료는 병을 넘어 환자 자체의 고통(suffering)을 이해하고 보살피어 치유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의(小醫)는 질병을 치료하고, 중의(中醫)는 사람을 치료하며, 대의(大醫)는 국가와 사회를 치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명지병원에서 ‘원목’으로서 환우들을 care하고 healing하는 중의(中醫)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서울제일교회는 7·80년대 십자가 행진의 과정에서 받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참 많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를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치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해하고, 돌보고, 치유하라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분열되고 갈라진 이 사회,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대립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치유하는 대의(大醫)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큰 스승을 만나 바른 신학 위에 서게 하시고,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 여러 목회현장을 훈련하게 하시고, 좋은 병원에서 일하며 치유목회 전문가가 되게 하셔서 오늘 저를 서울제일교회로 불러주셨으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사람을 치유하고 사회와 민족을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제일교회가 서울에서 여러모로 제일가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돌아보니 제 목회경력 중 담임목사로 일하기 시작한 후에는 ‘제일’이라는 글자가 늘 붙어 다녔더군요. 로드아일랜드 ‘제일’한인교회, 명지병원. 명지병원은 미션이 환자‘제일’주의입니다.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제일’이라는 이름대로 한완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의 꼴찌들과 약자들을 섬기는데 제일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제일 열심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매주일 오늘 만큼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도 편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sup>1</sup>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 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sup>2</sup>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여 있었다. <sup>3</sup>그 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sup>4</sup>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sup>5</sup>“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sup>6</sup>(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 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sup>7</sup>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sup>8</sup>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요 12:1-8)

### 청년주일

예전에 ‘이주일’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코미디언은 무대에 서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웃겨야하는 직업이지요. 그런 그가 정말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자기가 웃기려고 하는데 관객들이 웃어주지 않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무대에 서서 남들을 웃겨야했던 때였습니다.

지금 제 처지가 이와 비슷합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지만, 제 아내가 지난 목요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에 GIST라는 작은 종양이 있어 그것을 확인하려고 받은 것인데, 처음에는 복강경으로 하는 2시간짜리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서 시작했다가, 무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나빠서 금요일에 배와 가슴을 열고 다시 6시간짜리 대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수술은 잘 되었는데, 아직도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고, 또 문제가 없다 해도 회복하려면 앞으로 몇 달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많이 힘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 이 사실을 밝히는 것은 당분간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필 취임예배를 드리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 매우 송구스러운데, 제 아내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사적으로는 큰 사정이 있지만, 공적인 업무는 감당해야하기에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자,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63번째 ‘청년주일’입니다. 저는 평신도 청년으로서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연합회 일도 하던 경험이 있어서 청년주일에 대한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숫자도 적고, 활동도 미미합니다. 교인들의 자녀마저 제대로 출석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우리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반의 문제이고,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 7포 세대의 젊은 노인들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져간다는 경고는 십여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문화를 포용하지 못하는 교회문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보적인 청년을 보수적인 교회가 품지 못한 다든지, 장년 위주의 예배문화와 교회제도에 청년들이 적응하지 못한 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교회나 청년문화를 수용하는 교회로 청년들이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층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청년층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는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청년이 되면 취업경쟁에 시달립니다. 소위 스펙을 쌓느라고 시간과 돈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취업을 해봤자,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88만원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고, 이제는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직업을 포기한답니다. 이 중 특히 '꿈'을 포기한다는 말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청춘(靑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心腸)의 고동(鼓動)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巨船)의 기관(汽罐)과 같이 힘 있다. 이것이다. 인류(人類)의 역사(歷史)를 꾸며 내려온 동력(動力)은 바로 이것이다.

언론인이자 소설가였던 우보(牛步) 민태원(1894~1935)이 지은 수

필 ‘청춘예찬’의 첫 부분입니다.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이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하면 열정, 이상, 패기, 건강미 등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7포라니, 특히 ‘꿈’을 포기했다니, 꿈을 포기한 청년이 과연 청년일 수 있을까요? “사람은 희망하는 만큼 젊어지고, 절망하는 만큼 늙는다.”는 말이 있는데, 꿈을 포기한 이 시대 청년들은 젊지만 이미 늙어버린 ‘젊은 노인들’이 아닐까요?

## 비 좋아 하하 법칙

저는 오늘 이 시간 꿈을 포기했다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젊은 노인들’에게, 그리고 비록 나이는 장년이나 노년이지만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청춘이고자 하는 ‘나이드는 청년들’에게 채인영이란 분을 소개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스스로를 ‘꿈 PD’라고 부릅니다. 인생은 꿈을 이루어가는 드라마이고 모든 사람은 자기 드라마의 주인공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에 그들을 다시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자기 꿈 드라마를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자 ‘꿈 PD’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이분이 쓴 『아플수록 꿈을 꾸자』(백천문화재단, 2014)라는 책을 읽고 크게 공감을 해서, 당장 그 책의 모작(母作)인 『꿈PD 채인영입니다』(산티, 2010)라는 책을 사서 읽고, 미국에 있는 두 아들에게도 보냈습니다. 우리는 위인이나 유명인이 자신의 꿈을 이룬 이야기를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 같은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의 꿈 이름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그 가치가 높습니다. 물론 이 책은 우리의 꿈 이름을 가로막는 거시적인 문제나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즉 미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 자신과 환자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탁월한 답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그것을 “비 좋아 하하” 법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비’는 ‘비록 ~하지만’입니다. ‘비’록 내가 이런 점에서 부족하지만, 예컨대 키도 작고 외모도 안 따라주지만, 가난하지만, 부모가 제대로 서포트 해 주지 못하지만 등등이 ‘비’에 해당합니다. ‘좋아’는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좋아만 해도 부족하고, 노력만 해도 안 됩니다. 좋아하면서 노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좋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 가슴 뛰는 일, 그 생각만 하면 몸이 먼저 알아채고 가슴부터 설레고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저절로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아’입니다.

그리고 ‘하하’는 그것을 ‘하’고 또 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좋아’ 하는 것을 하되 ‘오늘 이 순간부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런저런 조건이 충족 되면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하고 또 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하면 언젠가는 ‘하’늘(즉 하나님)이 돕습니다. 나의 노력에 대한 신의 윙크, 우주의 화답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즉 “비 좋아 하하” 법칙은 “‘비’록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공 드라마나 성공 소설의 시놉시스이기도 합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꿈을 갖고 꿈을 이룬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 좋아 하하’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 남이 걸어놓은 최면대로 살지 말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 좋아 하하” 법칙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소리나 갈망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밖에서 남들이 걸어놓은 최면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채인영 박사는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배체제가 심어놓은 최면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資本主義)는 문자 그대로 자(資)를 본(本)으로 삼는 사회체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자(資)는 재물, 즉 돈을 뜻하니까, 자본주의란 결국 돈이 근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체제 속에서는 국가도 사람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문제는 자본주의체제가 심어놓은 최면이 우리의 내면세계까지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잘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을 보면 ‘잘’사는 것은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옳고 바르게 사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잘’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산다고 하지요. 우리는 돈 많은 부자를 보고 ‘잘’산다고 합니다. 사실 ‘잘’살고 ‘못’사는 것은 경제적인 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는데, 자본주의사회 속에서 살다보니 우리는 ‘잘’살고 ‘못’사는 것을 경제적인 부와 연결시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우리의 사회체제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각 개인의 내면까지도 지배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왜?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이란 연봉이 높고 고용안정이 보장된 직장을 뜻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높다고 해서 꼭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가 사회에서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 전 영국의 국제 비즈니스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과 사회적 기여도 또는 가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회에 그 만큼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연봉은 낮지만 기여도나 필요도가 높은 사람도 많습니다.

### **본문이 던지는 화두(話頭) : 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인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가 제시한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이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16:6-13)과 마가복음(14:3-9)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이라는 것,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가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향유를 부은 곳이 ‘발’이 아니고 ‘머리’라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차이점들 중 마리아가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행위’가 당시의 상식이나

관습에서 많이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왜 머리가 아닌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다고 증언할까요? 이 행동에 담긴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고 보면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전하고 있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마 26:26-29, 막 14:22-25, 눅 22:15-20)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요 13:1 -20). 여기서도 ‘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왜 다른 곳이 아닌 하필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 마리아의 작별인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저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기 닷새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기에 앞서,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과 작별인사를 나눴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7절의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행위’는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고,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작별하면서 지금껏 예수님이 튼튼히 걸어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며칠간 더 걸어가야 할 수난의 길—십자가의 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며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옆에서 편히 쉬십시오. 주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저희가 뒤이어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 해바라기 밭에 핀 채송화처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청년주일’이라는 시각에서 읽으니 전혀 다른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리아요, 다른 하나는 가롯 유다입니다. 저에게 이 둘은 하나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따라 사는 자요, 다른 하나는 체제가 심어준 최면을 따라 사는 자로 보였습니다. 전자는 마리아고, 후자는 유다입니다. 전자는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후자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전자는 감성적으로, 후자는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전자는 어리석게, 후자는 지혜롭게 보입니다. 전자는 헛되게 보이고, 후자는 참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 내면의 소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했고, 유다는 사회가 심어준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마리아는 ‘뜻’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돈’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둘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밭에 해바라기가 가득히 피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 끝에 채송화도 꽃을 피웠습니다. 키도 작고 꽃의 크기도 작은 채송화는 해바라기를 의식할까요? 아닙니다. 채송화는 기죽지 않고 뽀뽀 자기 꽃을 피우며 자기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

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픈 일을 신명나게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남이 심어준 최면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연봉이 적어도, 작은 집에 살아도, 배기량이 낮은 차를 몰아도, 아니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못’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다릅니다. ‘못’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안’하는 것은 이와 다릅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선택’하기 위해 이것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안’하는 것입니다.

“7포”는 우리네 인생에서 7가지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포기’할 거라면 차라리 떳떳하게 ‘선택’을 하십시오. 연애 안하고, 결혼 안하고, 출산 안하고, 내 집 마련 안하고 등등.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니까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해도 나만은 안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내가 져야 하지만요.) 특히 ‘꿈’이나 ‘희망직업’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는 날까지 꿈꾸고, 희망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이 사회의 최면이 건네는 소리인지, 자기 내면이 하는 소리인지를 지혜롭게 분별하십시오.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Job이 아니라 Vocation을 선택하십시오. 돈이 아니라 소명을 따르십시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sup>28</sup>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sup>29</sup>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sup>30</sup>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sup>31</sup>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sup>32</sup>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sup>33</sup>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sup>34</sup>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sup>35</sup>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엮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sup>36</sup>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sup>37</sup>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sup>38</sup>"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눅 19:28-38)

### 종려주일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Palm Sunday)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에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종려주일이라는 이름 외에 고난주일(Passion Sunday)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교회는 종려주일보다는 고난주일에 초점을 맞춰 이날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종려주일에만 초점을 맞춰 설교하고자 합니다.

### **‘열망’이 ‘수난’으로**

2004년 사순절에 멜 깁슨이 제작한 영화 <Passion of Christ>가 개봉되어 커다란 화젯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Passion of Christ>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수난>이 됩니다. passion이란 단어는 ‘수난’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난’이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멜 깁슨의 영화 <Passion of Christ>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수난 당했나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왜’ 수난 당했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이 예수님의 수난을 야기했는데, 그 영화는 두 번째 passion만 이야기하고, 첫 번째 passion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늘은 고난주일일 뿐 아니라 종려주일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교회는 고난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종려주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오늘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종려주일을 모르면 고난주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수난 당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품으



셨던 당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기에,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수난 당하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품으셨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서는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였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비전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 의도적인 행진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막 1:15)라는 말로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은 줄곧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당신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로부터 시작된 지난 40일 간의 사순절 여정은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행렬은 저 갈릴리로부터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거의 다 이르러 입성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맞은쪽 마을로 보내서 거기서 아직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시키셨습니다. 나귀 주인은 당연히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겠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서 여러분의 차를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남의 차를 몰고 가려는 거요?” 하고 물으니,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

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순순히 여러분 자동차를 내어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나귀 주인은 순순히 자기 나귀를 제자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나귀 주인과 예수님이 사전에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선뜻 나귀를 내어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해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연한 일도, 충동적인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면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도는 무엇이였을까요? 왜 하필 미끈한 말이 아니고 초라한 새끼 나귀였을까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은 그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다.’” 이 말은 스가랴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가랴 예언자가 말한 나귀 탄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로 의도하고,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 **어느 행렬에 참여하고 싶은가?**

마치 현대의 행위예술처럼 보이는 이러한 퍼포먼스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였을까요? 사실 현대의 독자는 그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씌어진 “그때 거기”와 “오늘 여기”의 시공간적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게도 성경은 오늘 우리를 위해 써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 써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 사는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계를 들여다보아야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첫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광복절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간에는 평소의 몇 십 배 내지 몇 백 배의 사람들로 예루살렘이 북적거립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는 로마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셨듯이 지금 자기들도 로마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데모도 하고, 소요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점령자인 로마제국은 이 위험한 절기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로마제국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 뜰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안토니오요세에 로마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지만, 유월절 기간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 병력을 더욱 더 많이 증강시켜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던 사람은 로마제국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95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 해변’의 화려한 신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살기가 편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유대교의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면 빌라도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30년 어느 봄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행렬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군대의 행렬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예수님이 추종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맞은편 서쪽에서는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국의 권력과 위용이 눈에 보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말을 탄 기병들, 보병들, 가죽 갑옷, 투구들, 병기들, 깃발들, 식대 위에 얹은 황금 독수리들, 금속에 반사되어 빛나는 태양. 그 소리는 또 어떻습니까? 행군하는 군화소리, 가죽이 스치며 삐걱거리는 소리, 말고삐가 찢렁거리는 소리, 진군의 북소리, 먼지의 소용돌이, 말없이 응시하는 눈들, 놀라움으로 바라보는 눈들,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들.

이렇듯 예수님의 행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다면, 빌라도의 행렬은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행렬은 단순히 제국주의적 권력의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로마제국의 신학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신학에 따르면 황제는 단순히 로마의 지배자가 아니라 “신의 아들”, “주님”, “구원자”였습니다. 사실 복음서가 예수님에게 붙인 모든 호칭은 로마제국의 신학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유월절 첫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나귀를 탄 예수님의 초라한 행렬과 말과 무기로 무장한 화려한 빌라도의 행진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왕인지, 누구의 나라가 참된 나라인지를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로마 황제 시이저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로마제국, 시이저의 통치가 무너져야만 실현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로마가 창과 방패로 사람들을 지배했다면, 하나님은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0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예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맞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진에 대한 의도적인 대결이었습니다. 빌라도의 행진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권력과 영화와 폭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행진은 전혀 다른 비전, 즉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에게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물음에 직면하여 양자택일의 기로에 섭니다. 당신은 어느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느 행렬에 참여하고 싶은가?

##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설교 제목을 보고 짐작하셨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당신은 어느 행렬에 참여하고 싶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한 농부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 13:44-45). 또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던 어떤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 13:46-47).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 체험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대가를 먼저 치러야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이저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저는 그 해답 중 하나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끼 나귀 주인에게서 찾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실 준비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왜 그러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

려주신 대로 나귀 주인에게 말했더니 그가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11:6). 사전 양해도 없이 무례한 행동을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 자기 나귀를 끌어가게 한 그 주인의 태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귀 주인의 ‘드림’(offering)이 예수님의 ‘드림’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압니다. 십자가 사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생명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 사건이 부활 사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 시작된 예루살렘 입성은 한 이름 없는 새끼 나귀 주인의 드림(offering)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이름 없는 촌부가 자기 나귀를 주님께 내어드린 사건이 예수님께서 당신 생명을 당신 주님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린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는 부활 사건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작은 드림(offering)은 큰 드림(offering)을 가져왔고, 그 드림(offering)들이 이어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드림(dream)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내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예상치 않은 때에 와서 새끼 나귀가 표상(表象)하는 내 시간, 내 건강, 내 능력, 내 노력, 내 소유물 등 내게 메어 놓은 것을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

십니다” 하는 한 마디 내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은총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주간(Holy Week)은 여러분이 이것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복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갈 2:20)

### 부활절 인사

오늘 복된 부활절을 맞아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의 복음서 본문에 따라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상관없이 제 임의대로 본문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Christ crucified)라는 제목으로 수요성경공부를 인도하면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대속(代贖)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제 신앙과 신학의 바탕입니다. 그 위에 제 신앙과 신학과 소명의식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 후 첫 부활절에 꼭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 제 무덤을 스스로 판 예수님

여러분은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기독교와 불교를 가장 극명하게 차이 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불교는 자력구원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타력구원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영모 선생님이나, 함석헌 선생님, 그리고 안병무 선생님께서는 이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독교와 불교를 가장 극명하게 차이 나게 할까요? 저는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가모니와 예수의 죽음이 두 종교를 차이 나게 했다는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말 그대로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두 종교의 경전만 비교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불경은 성경에 비해서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불경 대부분은 석가모니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은 4복음서에 불과하고, 그것도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나면 아주 적은 분량만 남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석가모니와 예수의 공생애 기간 차이(80세/45년 대 30세/1-3년)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석가모니와 비교할 때 매우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요절한 것은 그의 삶에 따른 당연한 귀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제 무덤을 판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가 이 말에 딱 들어맞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가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막 1:15)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이 메시지는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체포된 바로 그 때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과 그 무대가 다름 아닌 세례자 요한을 체포하여 참수한 헤롯 안티파스의 지배권인 갈릴리였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가 세례자 요한의 것과 꼭 같았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이 기름을 안고 불 속에 뛰어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 전개한 예수님의 활동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을 꿈꾸었고, 그 꿈을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전 삶으로 현실화시켰습니다. 불쌍한 병자들을 긍휼히 여겨 치유하고, 배고픈 사람들과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음식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당시 사람대접 받지 못하던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감싸 안고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전개한 활동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부색, 성, 재산, 지위, 학식, 종교 등등을 기준으로 너와 나를 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장벽을 모두 철해하셨습니다. 마치 그런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결국 그 장벽을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성경 속의 신학자들은 ‘우리를 위해

(또는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당한 제물'이라고 증언합니다. 또 이에 근거하여 11세기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당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해석하는 '교리'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른바 '해석'이고, 진실은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 여러 장벽들을 만든 사람들에 의해 '살해'된 것입니다. 즉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세기에도 이런 일을 적지 않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자서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바다출판사, 2000)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이 신장되고, 자유가 확대되고, 차별이 줄어든 20세기에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던 사람들은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20세기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1세기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고도 살아남기를 바란다는 것은 부질없는 희망에 불과할 것입니다.

## 대신 살아남은 자의 몫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의 끝, 즉 십자가 죽음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살아남은 자에게 남겨진 몫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괴한의 총탄에 맞아 죽었을 때,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그의 추종자들은 과연 어

편 심정이었을까요?

1955년 12월 1일,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에서 ‘로사 파크스’라는 한 흑인 아줌마가 흑백분리법 위반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녀가 버스에서 백인 좌석에 앉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많은 주들은 흑백분리법으로 흑인과 백인을 구분했는데, 이는 사실상 흑인차별법이었습니다. 버스에서, 식당에서도, 심지어 학교에서도 흑인과 백인은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버스 앞좌석은 백인 자리이고 뒷좌석은 흑인 자리인데, 흑인 자리는 다 차고 백인 자리는 텅텅 비어있어도 흑인은 결코 백인 자리에 앉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크스 부인은 흑인 자리가 다 차자 백인 자리에 앉았고, ‘일어나 서서가라!’는 운전기사의 말에 불복종했다가 체포당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당시 몽고메리 교회에서 시무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권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킹 목사는 버스 안의 흑인차별에 대항하여 ‘버스타기 보이콧운동’을 전개합니다. 굴욕적인 태도로 버스를 타느니 존엄을 지키며 걸어 다니는 것이 훨씬 훌륭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중심한 많은 몽고메리 시민들은 영혼을 혹사하느니 차라리 다리를 혹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 걸어 다니기로 결정하고 ‘버스타기 보이콧운동’에 동참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려 20Km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킹 목사는 걸어서 출근하는 한 할머니를 발견하고 자기 차를 함께 타고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1년이 넘는 긴 싸움 끝에 결국 연방법원은 1956년 12월 20일에

“버스 내 인종분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21일, 킹 목사를 비롯한 많은 흑인들이 흑백통합버스에 최초로 승차합니다. 그 때 몽고메리 흑인 시민들이 느꼈을 감격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해낸 킹 목사가 1968년 괴한의 총탄에 맞아 죽었을 때,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식을 낳아 키우는 부모라면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길이 창창한 어리거나 젊은 자녀가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요절했다면 부모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십중팔구 그 부모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자기 목숨과 자식의 목숨을 맞바꾸었으면 하고 소원할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부모들은 당연히 자식이 아니라 내가 죽기를 자처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과 꼭 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맛보게 된 참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람대접을 받으며 살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별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한 그들,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경험한 그들이 느꼈을 가슴 벅찬 감동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사랑과 존경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들이 체험한 살맛나는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더 널리 널리 확산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만 그가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아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이제 더 이상 원도 한도 없는 나는 죽어도 되는데, 내가 죽고 그가 살아야 하는데, 그가 죽고 내가 살다니….

그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내가 죽고 그가 살아야하는데, 내가 살고 그가 죽다니,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다니…. 이것이 바로 대속신앙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 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관점이 바뀝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지금 내가 그를 대신해서 살아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살아남은 내가 할 일, 살아남은 자의 몫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예수님이 살던 삶을 본받아 살아야 옳겠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속신앙이란 흔히 우리가 오해하듯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덕분에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죄는 모두 씻겼으니 이제 만사형통이다”가 아닙니다. 대속신앙의 초점은 “대신 살아남은 자의 몫”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남은 자의 몫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갖고자 예수님을 좇아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걸었던 과정을 밟을 수 밖에요. 저들에게도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순교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받

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이어받은 것으로 여겨,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벧전 4:12-14 참조). 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니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긍지와 확신이 박해를 이겨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살아남은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가 남기고 간 몫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겠다.’는 관점으로의 변화, 그 전환점, turning point가 바로 부활체험입니다. 이 체험에 대한 신앙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대신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강단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습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는 과연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신해 살아남은 자로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완수해야 할 몫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배턴은 대신 살아남은 우리에게로 넘겨졌습니다.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날을 향해 이제 여러분이 그 배턴을 쥐고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겨레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벧전 2:9). 여러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고후 6:16),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소”입니다(고전 3:16).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고후 2:15), “그리스도의 편지”(고후 3:3)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잘 것 없는 질그릇일지는 몰라도,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담겨있는 질그릇입니다(고후 4:7).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전권을 이양 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고 있는, 지금 그의 사명을 대신해서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들”(고후 3:6)입니다.

여러분은 이토록 귀한 존재니, 아무것도 아닌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사명을 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각하시고, 그런 존재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 죽음에서 부활로, 의심에서 신앙으로!

<sup>24</sup>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sup>25</sup>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sup>26</sup>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sup>27</sup>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sup>28</sup>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sup>29</sup>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요 20:24-29)

### 대학시절 이야기

저는 대학에서 신학이 아닌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한 젊은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언제나 ‘왜?’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우리는 경

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자주 경험하기에,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왜 몸이 앞으로 쏠리지?’라고 질문해야 하고,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수님의 교수법은 참 독특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대학입시라는 목표 때문에 수학이나 물리학까지도 ‘암기’라는 방법으로 공부합니다. 그 교수님은 학생들의 그런 잘못된 습성을 바꾸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점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쳐 버린 문제에 대해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또 그 답을 스스로 찾아오면 점수를 더 주고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까지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내왔던 것들 - 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자연 현상 하나 하나에 대해 질문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해답을 찾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신나고 경이로운지, 정말로 행복한 물리학도로서 학창시절의 전 반부를 보냈습니다.

## 성경에 대한 의문들

대학 졸업 후 저는 지난 30년 동안 ‘물리학’과는 정반대라 할 수 있는 ‘신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는 습관은 신학도의 길을 걷는 내내 제게 매우 유익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대부분의 한국 크리스천들이 그렇듯이, 교회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심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것이지, 스스로 탐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얻는 방법은 ‘아멘’하는 대답이었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질문과 의심, 그것은 곧 불신앙을 뜻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질문을 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모순을 느껴 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하게 되면서,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었던 성경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만 읽어봐도 모순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 또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장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웅기장이처럼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창조의 ‘방법’이 다릅니다. 1장은 ‘말씀’이고, 2장은 ‘행위’입니다. 창조의 순서도 1장과 2장이 같지 않습니다. 1장은 사람에게 앞서 동물을 창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장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어떤 방법과 어떤 순서로 창조하신 걸까요? 이렇듯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 그때까지와는 다르게 수많은 모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신학을 공부하면서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제가 다닌 한

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무도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았고,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불경스럽게 들릴지도 모를 이야기지만 제가 품었던 의문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정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면,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나 나인이란 동네의 어떤 과부의 외아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빠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케이스, 첫 열매라고 할까?”

“왜 부활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특히 자기를 잡아 죽인 빌라도나 대제사장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다.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면 온 세상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곧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텐데…”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를 쫓아다녔으면서도 부활한 예수님을 왜 몰라봤을까? 오랜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단지 사흘 만에 부활했을 뿐인데…” 등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 어떤 부활을?

부활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용감하고 열심 있는 목사가 독일의 저명한 신약성경학자인 볼트만을 집으로 찾아갔답니

다. 그는 그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고 볼트만과 그의 학문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끝낸 뒤 볼트만과 정면으로 마주 앉자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볼트만 교수님,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이에 대해서 볼트만은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입에 파이프를 문채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어떤 부활 말입니까?” 이 반문에 그 목사는 분개해서 “부활이면 부활이지 어떤 부활이라니요?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소. 방금 내가 당신을 위해 한 축복기도는 전부 취소하겠소”라고 내뱉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부활을?”이라는 질문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형태로 대답해야만 묻는 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까닭은 질문자마다 부활에 대해서 다양한 표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다양한 증언이 전승되어 있는 관계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어느 부활전승을 문느냐라는 뜻입니다.

네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의 내용과 이해가 각각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부활한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증언합니다. 그녀는 부활절 새벽 빈 무덤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편, 열한 제자는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부활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28:19-20)는 대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한 주님이 처음

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열한 제자 앞에 나타나십니다. 한편, 마가복음은 마태와 누가를 종합해서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열한 제자의 순으로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빈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도마를 제외한 열 제자에게,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도마를 포함한 열한 제자에게, 끝으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곱 제자에게 부활한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듯 복음서의 부활증언은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다를까요? 그것은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사람, 즉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각각 자신의 목격담이나 경험담을 글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활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는 하나,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건’임을 뜻합니다. 즉, 부활을 경험한 - 부활을 목격한 사람마다 경험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만에 하나 꼭 같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꽃의 향기를 맡고 자기가 경험한 향기를 글로 표현한다고 할 때, 글이나 언어로는 자기의 경험을 다 담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입니다. 그 향기를 글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그 향기에 대한 느낌이, 경험과 해석이 똑 같지 않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비는 항상 신비로 남아 있는 것이며,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부활은 신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인간 언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 그렇기에 부활에 대한 증언은 하나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래부터 일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너는 부활을 체험했느냐?

이렇듯 “부활이 무엇이나?”란 질문에 대해 우리는 완전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체험이 부활신앙을 낳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절망했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은 패배자라고 믿었던 제자들을 아주 무서운 힘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부활체험 전과 부활체험 후의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의 수난을 방관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활체험 후에 완전히 바뀌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을 체포하고 처형한 장본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대사제의 집 뜰에서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대낮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렇듯 부활체험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겁하던 자가 용감한 자로, 부인하던 자가 증언자로, 도망치던 자가 순교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체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절기에 물



어야 할 질문은 ‘나는 부활을 믿나?’가 아닙니다. ‘나는 부활을 체험했나?’입니다. 나아가 ‘나는 부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관념적인 질문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라는 실천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도마의 불신앙’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제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게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20:25)라는 도마의 말이 “나는 부활한 예수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만지고, 부활을 믿습니다. 즉 부활한 예수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 체험하고 믿습니다” 하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말은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부활을 신앙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 **어디서 어떻게 부활을 체험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말씀은 이에 대해 한 가지 해답을 제시합니다. 부활절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찌된 일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해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도마에게 했지만, 도마는 단호하게 자기는 못 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 자국에 자기 손을 집어 넣어보아야만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하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못 자국과 창 자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에 남아 있는 십자가의 상징이, 죽음의 상징이 바로 못 자국과 창 자국이 아닙니까? 따라서 도마가 확인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도마가 그것을 보고 비로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다는 말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죽음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체험한 다음에, 비로소 부활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못 자국, 창 자국으로 예수님의 죽임을 경험했을 때, 십자가를 체험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 보아야 비로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 십자가를 건너뛴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수로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 영의 눈이 열리는 때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절망에 빠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지독하고 처절한 의심의 터널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죽음이 부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절망이 희망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의심이 참된 신앙을 인도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느 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 영의 눈이 열리는 때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우리는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의 눈은 죽음 속에서 부활을 보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시련 속에서 복된 미래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실패와 좌절을 통해야만 더 높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역경에 처하든, 공동체적으로 시련을 겪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축복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였으니,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 그것은 곧 부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주님의 몸에 남아 있는 죽음의 자국, 못 자국과 창 자국을 체험하고, 죽음에서 부활로, 의심에서 신앙으로 넘어섰듯이, 오늘 서울제일교회가,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떠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죽음에서 부활로, 의심에서 신앙으로 도약하는 귀한 축복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sup>1</sup>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sup>2</sup>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sup>3</sup>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 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sup>4</sup>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sup>5</sup>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sup>6</sup>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sup>7</sup>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겹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sup>8</sup>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 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sup>9</sup>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sup>10</sup>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sup>11</sup>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백헌세 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sup>12</sup>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

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sup>13</sup>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sup>14</sup>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sup>15</sup>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sup>16</sup>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치라.” <sup>17</sup>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시므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먹여라. <sup>18</sup>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sup>19</sup>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요 21:1-19)

##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 두 가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들라면 그것은 아마도 죄를 짓지 않는 일과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인간이 육신을 지니고 있는 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흠으로 빚어졌기에 험사리 부서지는 그런 존재

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해를 받는 신부님은 고해하는 신자들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마시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않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런 잘못을 저지른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또 그런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해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단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해도 사람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주님은 벌써 두 번씩이나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그 두 자리 모두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수난과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지 못한 제자들의 실패를 상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잘못을 질책하거나 꾸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따스한 평화의 인사로 제자들을 포용해 주셨고, 나아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다. 아니 따르지 못

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용서했지만, 제자들은, 특히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스스로를 용서 못한 베드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며 그를 따라나섭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말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직업, 즉 과거의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낙향해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하고, 그저 평범한 갈릴리 어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기에, 주님께 면목이 없고, 다른 제자들에게 체면도 안 서고,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전 주님 제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저를 대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그게 더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질책하고 꾸중하셨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텐데, 따스한 평화의 인사로 저를 감싸주시고 나아가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 못난 저에게 위임하시겠다니, 저는 몸 둘 바를 모르겠고, 주님의 위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표내고 낙향하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평범한 어부로 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듯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패잔병의 모습으로 갈릴리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간 것입니다.

## 모닥불! 빵! 기적의 생선!

고향으로 돌아온 베드로와 동료들은 고깃배에 다시 몸을 싣습니다. 3년 전, 주님을 만나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 낡은 고깃배에 다시 올라 탄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던 베드로, 그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도로 ‘생선’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비록 3년을 쉬었지만, 고기잡이로 평생 잔뼈가 굵은 그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손바닥 보듯 환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철에 따라, 또 시간에 따라 고기떼가 어디에 몰려있는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그런 그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작은 생선 한 마리조차 그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들은 밤새도록 헛수고한 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니 한 번만 더 던져보자는 심정으로 그물 던지기를 몇 차례 거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펄펄 뛰는 생선 대신, 물거품 같은 낙담과 실망만 건져 올렸을 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낮에는 물고기들이 호수 바닥에서 쉬기 때문에 주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점점 밝아오니 고기 잡을 가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침내 저들은 그물질을 포기하고 텅 빈 배를 저어서 호숫가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주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모닥불을 피워 놓고, 떡을 구워놓고, 또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서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배가 약 90m쯤 접근해 왔을 때, 주님께서는 “여보시오, 생선 좀 있습니까?” 하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대답할 기분조차 들지 않았지만,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하고 통명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그러면 잡힐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투덜거리는 동료들을 설득하여, 베드로는 한 번 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그물 가득 걸려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모닥불 주변으로 부르십니다. 싸늘한 새벽에 나뭇가지들이 타는 소리와 함께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빵이 준비되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닥불! 빵! 그리고 기적의 생선! 이것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벌어졌던 온갖 일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지나갔을 것입니다.

기적의 생선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 소명 받던 순간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밤새도록 애썼지만 베드로는 한 마리의 생선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자, 그물이 찢겨질 만큼 엄청나게 많은 생선이 잡혔었지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그를 첫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 빵은 주님과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 주님께서는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주시며 이렇게 당부하셨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

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닥불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가야바 집 뜰에서의 그 참담했던 순간을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모닥불 앞에서 불을 켜고 있던 베드로에게 대사제의 여종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지요?” 그 때 베드로는 만약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며 “나는 정녕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딱 잡아떼었지요. 그 순간 어디선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했던 주님의 음성이 생생히 베드로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때 참담함과 서러움에 복받쳐 얼마나 눈물을 쏟았던지요. 이렇듯 지금 감격과 후회가 뒤범벅이 되어 모닥불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랜 침묵 끝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지어준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마치 그를 난생 처음 만난 것처럼 부르십니다. 이 말이 베드로의 마음에 보통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 물으시는 물음에 겨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

합니다” 하고 둘러댁니다.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을 다 아시면서, 세 번이나 연거푸 물으시니 어찌 괴롭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은 첫 번째 이유는 양심의 가책이란 사슬에서 그를 해방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의 잘못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자학하며 낙향했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벌써 두 번씩이나 찾아와 평안을 빌었고, 지금은 고향까지 찾아와 손수 조반을 준비하여 대접하시며 베드로를 영접하십니다. 그러기에 사실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야, 네가 비록 나를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괴로워하지 마라. 자학하지도 마라. 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이미 너를 용서했다. 아니 속죄했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속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는 잘못된 그 사실만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죄는 죄에 대한 기억조차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을 넘어 ‘속죄’해 주셨습니다.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두 번째 이유는 그에게 사도직을 맡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를 배반한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를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잘못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에게 당신 양들을 맡기십

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쓸 때 자격을 따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선회개 후구원’이 아니라 ‘선구원 후회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세리나 창녀나 죄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와라. 너희는 죄에서 해방됐다. 구원됐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이에 대한 자연스런 감사의 응답으로 회개가 뒤따릅니다. 복음서는 이런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그랬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다. 그 진리를 깨달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뺨에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하늘같은 사랑에 감동되어서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때까지, 이 감격의 순간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섬기겠느냐?” “네가 나를 예배하겠느냐?” “네가 교회에 잘 출석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하느냐고만 물으셨습니다. 왜 일까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사랑에 눈이 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이지 나쁜 점은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보기는 보아도 그 단점이 나에겐 나쁘게 보이질 않습니다. 남들은 뭐라 해도 나에겐 오히려 그 단점이 매력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시련과 고통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라, 매일 성경을 읽어라, 십일조 생활을 해라” 하고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내가 오늘의 나 된 것, 지금 내가 사는 것, 내가 이런 축복의 생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고, 희생하고, 가난해지고, 죽으셨기 때문인데, 그 사랑과 은총에 감사해서 응답으로 드리는 감사의 행위인 예배생활, 경건생활, 헌금생활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저들은 의무감에서 교회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울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씩이나 제자들을 친히 찾아 오시고, 또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이야기는 언뜻 보면 삼국지에 나오는 삼고초려(三顧草廬) 이야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비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 제갈량을 세 번씩이나 찾아갔지만,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를 들어 당신의 도구, 당신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 번씩이나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견지에서 볼 때, 베드로는 지혜로운 사람도, 유력한 사람도,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개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고, 수난의 현장에서 도망쳤고, 주님을 부인했던 비겁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를 친히 세 번씩이나 찾아와 속죄해주시고,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재이기 때문에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친히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돌봐다오.” 비록 우리는 때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때론 주님을 배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십니다. 때때로 우린 죄책감에 허우적대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상처 난 우리 심령을 치유해주시고, 파스한 손 내밀어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꺼져버린 우리의 사명에 다시 불을 지펴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기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디베라 바닷가에서 사랑의 주님과 다시 만나고 이제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베드로가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 뵙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아무도 빼앗지 못할 소명

<sup>22</sup>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sup>23</sup>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sup>24</sup>그 때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sup>25</sup>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sup>26</sup>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sup>27</sup>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sup>28</sup>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sup>29</sup>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sup>30</sup>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 10:22-30)

### 성소(聖召) 주일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성소(聖召) 주일’ 또는 ‘선한목자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성서일과표는 매년 이 주일에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선한목자’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합니다. 즉, ‘가’해에는 10장 1-10절을, ‘나’해에는 10장 11-18절을, 그리고 ‘다’해에는 10장 22-30절을 읽습니다. 올해는 제 3년, 즉 ‘다’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2-30절이 본문입니다. 그

러니까 해마다 교회는 ‘선한목자’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성소(聖召), 즉 ‘거룩한 소명(召命)’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여기서 성소(聖召), 거룩한 소명이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뜻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소(聖召)를 ‘일반 성소’와 ‘특수 성소’로 구분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넓게는 각자에게 부여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의 소명에 충실한 것이고(일반 성소), 좁게는 성직자나 수도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특수 성소). 하지만 만인사제론(萬人司祭論),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제”라고 주장하는 우리 개신교회는 ‘일반 성소’와 ‘특수 성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봄으로써 교우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 **‘들음’ → ‘믿음’ → ‘따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논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에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26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불신(不信)의 이유는 저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인데, 27절을 보면 내 양인가 아닌가는 목자인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들은 목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롬 10:17)는 사도 바울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들음’→‘믿음’→‘따름’



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음’이란 무엇입니까? 과연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듣는다’는 우리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뜻은 “소리를 감각기관을 통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즉, “음악을 듣는” 경우처럼 두 귀를 통해서 소리를 감각(感覺)하는 것을 우리는 ‘듣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듣는다’는 뜻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그렇게 ‘행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듣는 기관은 ‘귀’가 아니라 ‘손발’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라고 말할 때, 말을 안 듣는 것은 우리의 ‘두 귀’가 아니라 ‘손과 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의 경우도, ‘들음’은 단순히 ‘말씀을 두 귀로 알아듣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두 귀로 듣고,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도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들음’입니다. 예를 들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자기의 소견(所見) 따위는 뒷전으로 제쳐놓고 말없이 노를 저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행위, 그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했을 때의 ‘들음’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은 “순순히 따른다”는 뜻의 ‘순종’(順從)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진정한 따름(following)과 닮아감(imitating), 그리고 살아냄(living)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듯이, ‘말’도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말이 살아있게 하는 힘은 ‘입술’이 아니라 ‘손발’에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이상의 ‘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삶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진작부터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의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들음’→‘믿음’→‘따름’이라는 도식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의 참뜻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자유”는 단순히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는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방종(放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는 “자유를 억제하는 자유”, “포기하는 자유”,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막 14: 36)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종할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죽어야 산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복종할 때 참 자유를 누린다!”는 말은 역설

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참된 진리입니다. 참된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참된 복종은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Erich Fromm)은 일찍이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 바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이익 추구형’ 인간과, 어느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찾는 ‘가치 추구형’ 인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익 추구형’ 인간은 ‘소유함’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남과 다른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가 행복의 척도입니다. 한편 ‘가치 추구형’ 인간은 ‘내가 지금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는가’에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습니다. 오지(奧地) 여행가였다가 지금은 국제구호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바람의 딸” 한비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이 뛰는, 심장이 끓어오르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열정 없이 그냥 쉽게 사는 인생이 좋은지,

무언가 심장이 뛰는 열정적인 삶이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직업이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만드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진정으로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고 참다운 자유인일 것입니다.

### **잘못된 교통표지판을 보면 스스로 멈추는 차**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도로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뚜껑은 대형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서지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도로

가 심하게 깨져서 운전자들은 늘 마음을 졸이며 운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위험한 맨홀뚜껑과 심하게 깨진 도로 옆에 손수 만든 교통 표지판을 붙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동래’라는 개인택시기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다 보니 위험한 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합판을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고, 그 위에 붉은색으로 ‘위험’이라는 글자를 써서 간이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태우고 다니다가 위험한 곳을 발견하면, 쉬는 날 그곳을 다시 찾아가서 위험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설치할 곳이 너무 많아 그는 본업인 운전도 제쳐놓고 그 일에만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택시운전 그만두고 아예 그 길로 나서지 그래요.” 그의 동료들도 자기 일보다 표지판 세우는 일에 더 열심인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곳곳이 그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결국 그의 열성에 탄복한 아내는 그에게 두 손 들고 말았습니다. 그 뒤 아내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힘쓰는 남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맨홀뚜껑과 도로가 탄탄해진 요즘, 그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표지판 보수에 열심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에 부딪혀서 찌그러지거나 방향이 엉뚱하게 돌아간 표지판을 고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택시 트렁크에 사다리까지 싣고 다니는 그가 농담처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표지판을 보면 내가 차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차가 스스로 멈춰 섭니다.”

“잘못된 교통 표지판을 보면 스스로 멈추는 차”라는 그의 표현이

참 걸작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복한데 누가 그 열정을 가로막겠습니까? 성소(聖召), 거룩한 소명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를 얹어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물합니다. 그 참 자유는 아무도 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시절에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소위 ‘운동가요’였는데, 그 가사와 곡조가 마치 찬송가 같아서 다른 노래보다 더 좋아했었습니다. 제목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인데 안치환씨의 목소리로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흘릴 눈물들  
이 생명 다한 후에 다 씻어지리니  
이 길을 가는 동안 지쳐 쓰러져도  
그 보다 더욱 귀한 건 생명을 봄이라  
곤한 내 혼아 눈을 들어 저 빛을 향하여  
아무도 빼지 못 할 생의 자유를 되찾자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받을 상처들  
이 몸이 문힌 후에 다 잊혀지리니  
이 길을 가는 동안 지쳐 쓰러져도  
그 보다 더욱 귀한 건 자유를 봄이라  
곤한 내 혼아 눈을 들어 저 빛을 향하여  
아무도 빼지 못 할 세계 자유를 되찾자

우리가 아무리 가슴 떨리는 일을 해도, 심장이 끓어오르는 일을 해도,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상처도 받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로 하여금 그 일

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이 그 무엇보다도 내게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할 때,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바탕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 **‘소유형 인간’과 ‘깨침형 인간’**

앞서 소개한 에릭 프롬의 ‘이익 추구형 인간’과 ‘의미 추구형 인간’은 각각 ‘소유형 인간’과 ‘깨침형 인간’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은 구원까지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노력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깨침형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얻고 획득하는 데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고, 가슴 뛰는 일, 심장이 끓는 일에 매달립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너무도 행복하기에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까지 초월한 열정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소(聖召), 거룩한 소명(召命)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그 부르심의 내용과 소명의 종류는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은 그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28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서울제일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성소(聖召) 주일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구원의 품을 잠시 떠나있던 사람들도 다시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을 듣고 돌아오는 때입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29절)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 번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심장을 끓게 하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소명을 찾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진정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35-39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본문 중 ‘사랑’이라는 말을 오늘 주제에 맞게 ‘소명’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명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소명을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명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 낮고 싶으냐?

<sup>1</sup>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sup>2</sup>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다섯 있었다. <sup>3</sup>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sup>4</sup>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sup>5</sup>거기에는 서른여덟 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sup>6</sup>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낮고 싶으냐?” <sup>7</sup>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sup>8</sup>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sup>9</sup>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요 5:1-9)

### 우리 모두가 미쳐 있는 게 아닐까?

히브리 사람들이 전해 온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가을걷이를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추수한 곡식을 먹기만 하면 사람들이 미쳤습니다. 임금은 큰일 났다 싶어 신하들을 모아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농사가 무슨 탈이 났는지는 모르겠으되, 곡식을 먹는 자마다 미쳐 돌아가니 이 일을 어찌할꼬? 그렇다고 해서 달리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으니 좋은 의견을 내어 이 난감한 일을 해결토록 하라.” 하지만 신하들인들 무슨 뽀족한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임금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곡식을 먹으면 미치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미치지 않고 죽는 것보다는 미쳐서라도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먹고 미친 상태로나마 살아남게 하자. 그러나 아무개 대신은 이제부터 ‘우리는 지금 미쳐 있다’라고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책임을 맡도록 하라. 우리 모두가 지금 미쳐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하면, 언젠가는 다시 제 정신으로 돌아올 날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뒤로 아무개 대신은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미쳐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미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아래 할 것 없이 세상이 온통 미쳐버려서 자신이 미쳤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가운데 선택받은 몇몇 사람은 미치지 않았기에 우리가 지금 미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팔 한쪽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에서는 두 팔 다 가진 성한 사람이 병신 취급을 받듯이, 모두가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정상인인 예수님이 미친놈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고, 다시 말해 미쳤다고 했습니다(막 3:20-35 참조).

사실 오늘 우리가 봐도 예수님의 말씀은 참 황당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느니, “살고자 하면 제 목숨을 버리라”느니, “원수를 사랑하라”느니,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마저 돌려 대라”느니….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닮으려고 노력하고,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비록 세상은 다 미쳐 돌아가지만 그래도 올바른 한 분이 계셔서 우리가 미쳤다는 사실 -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또 그분의 황당한 말씀을 듣고도 그를 미친놈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이 거짓말 같은 사실이, 위아래 할 것 없이 온통 미쳐 버린 이 세상이 본래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근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을 하는 그분이 비정상이 아니라, 그분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내 자신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남보다 먼저 깨달은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나와 이웃과 세상을 본래 모습대로 회복시키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쳐 돌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 무한 경쟁 시대

20세기 말부터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세계 각 나라들 사이에 이른바 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들 합니다. ‘무한 경쟁’ - 경쟁은 경쟁인데 끝이 없는 경쟁이라는 말입

니다. 그러나 세상 이치라는 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돼 있습니다. 경쟁이라 해서 끝이 없을 리 없지요. 생각해 보면 무한 경쟁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원시 권투처럼 한쪽이 쓰러져 죽거나 다시는 일어설지 못할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질쯤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한’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끝장날 때까지’라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무한이든 유한이든, ‘경쟁’이란 이웃을 다툼의 상대로 보는 관점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경쟁이란 말속에는 이기지 않으면 지고, 지면 죽는다는 속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는 나폴레옹의 말은 경쟁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쟁이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쟁에서 내가 이긴다는 것은 결국 나 아닌 누군가가 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누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무한 경쟁 시대에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키워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길 것이냐를 모색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만물의 어버이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모두가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인 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모색할 게 아니라, 경쟁 자체가 없는 세상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베데스다는 최고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현장

오늘 본문의 현장은 베드자다 또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한 연못입니다. 그곳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곤 했는데,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맨 먼저 거기에 몸을 담그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전설 때 문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베데스다’는 ‘은총의 집 - 자비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병이 낫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나 봅니다.

하지만 베데스다의 기적은 진정한 하늘의 은총이 아닙니다. 일등으로 들어간 병자만이 고침을 받는 연못, 그곳은 이른바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고 치열한 경쟁으로 유지되는 비극의 현장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 아닌 남을 뒤로 물리쳐야만 하는 곳, 그 누군가의 어깨를 짓밟지 않고서는 출세가 불가능한 곳, 그런데도 저마다 오직 출세만을 꿈꾸는 곳, 바야흐로 “최고만이 살아남는다”는 구호가 복음으로 메아리치는 곳, 그래서 천사의 긍휼(矜恤)은 잠깐이고 언제나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런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따라서 베데스다는 절대로 그 이름처럼 은총의 집이나 자비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곳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무한경쟁의 현장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신이 미쳤는지도 모르고 있는 병자들로 득실대는 곳, 오직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 복 받은 자라고 인정받는 곳, 그러기에 서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치열하게 투쟁하는 곳, 그러

나 우리 인생이라는 게 태어난 환경에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승패가 판가름 나 있기에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란 것은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가능하기라도 한 것 같은 착각에 빠뜨리는 곳, 또한 모든 경쟁은 악인데 그것이 ‘선의의 경쟁’이란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 치열한 경쟁의 현장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38년이나 자리에 누워 있는 불쌍한 병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낮고 싶으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의 가슴에 꽉 차 있는 것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병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원망’입니다.

“내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것이 그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네가 (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희망하느냐?”라고 묻는데, 38년 된 그 병자는 “저는 늘 경쟁에서 집니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가 바라는 것은 ‘해방’이나 ‘치유’가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그 병자의 청을 무시합니다. 천사가 못의 물을 휘젓는 순간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남보란 듯이 선착순에서 일등하기를 바라는 그의 요구를 들을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이 한 마디로 예수님은 비열하고 야만스런 베데스다의 경쟁 질서를 통쾌하게 둘러엮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베데스다를 깨끗하게 외면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경쟁의 논리와 힘의 논리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최고만이 살아남는다”는 선착순의 논리 -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해 온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아예 그런 것은 있지도 않다는 듯이 전혀 다른 논리를 편 것입니다.

### 경쟁 없는 사회를 살아가는 법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의 질서에 던져졌고, 그것은 원죄와도 같아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경쟁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보다 더욱더 치열한 경쟁으로 치달게 되리라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법은 엄연한 현실의 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안식일법은 없다는 듯이, 그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법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무한경쟁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록 경쟁의 질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살기만 하면 경쟁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경쟁의 질서가 우리에게 심어 준 고정관념(고질병)을 깨뜨리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미리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경쟁의 질서가 우리의 뇌리에 박아 놓은 고정관념이 매우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지난 청년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바 있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잘’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잘’사는 것은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옳고 바르게 사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 ‘잘’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산다고 하지요. 우리는 부자를 보고 ‘잘’산다고 말합니다. ‘잘’살고 ‘못’사는 것은 경제적인 부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인데, 어쨌든 새 우리는 ‘잘’살고 ‘못’사는 것을 경제적인 부와 연결시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의 질서가 낳은 왜곡된 관념이요 고질병입니다.

경쟁의 질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라는 소유욕을 부추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언젠가 간디가 살던 소박한 오두막을 탐방한 이반 일리치는 그 감상을 적은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온갖 편의물들은 불구자의 목발 같은 것이다. 그러한 편의물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물건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는 더 커진다. (자동차가 없으면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컴퓨터가 없으면 아무 글도 쓸 수 없다. 우리는 편의물들을 소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편의물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역설적인 것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우월한 존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의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월한 존재로 간주된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A를 달라고 할 때 그가 원하는 A를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A를 달라고 했지만 엉뚱하게 B를 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달라고 할 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그를 변화시켜 더 이상 원하던 것을 원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증언의 주제가 ‘기도’가 아니기에 각 응답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를 변화시켜 더 이상 원하던 것을 원치 않게 하는 것”도 기도 응답 중 하나라는 것만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내가 바뀐 뒤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되, 바뀌기 전의 산이 아니요 바뀌기 전의 물도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것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됩니다. 무한 경쟁의 질서는 계속되겠지만 이제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경쟁에서 이겨 쟁취하려고 하는 것에 더 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되,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하여 더 이상 낡은 세상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참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법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온통 캄캄할 때 거기서 빛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드리자. 우리가 용감하면 세계가 용감해 질 것이다. 우리의 몸에서 일이 생기면 그것은 우주에서 생기는 것이다. … 우리가 이 강을 건너 저쪽 기슭에 닿으면 세계가 거기에 닿을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강의 절반을 건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조금 더 힘을 내 나머지 절반을 건너갑시다. 내 생각(가치관)이 바뀌면, 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뀌면 세계가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 경쟁 시대의 한복판에서 그 경쟁의 질서를 거역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 하나님의 자녀들

<sup>1</sup>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sup>25</sup>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창 4:1.25)

### 어린이날의 의미

오늘 5월 1일, 5월 첫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 온 어린이주일입니다. 또한 오는 5월 5일은 제94회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란 노랫말도 있듯이 어린이주일과 어린이날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어린이들입니다. 선물도 받고, 가족들과 나들이도 가고, 외식도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주일과 어린이날은 1년 중 가장 신나고 즐거운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날을 만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소파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소년(少年)’이라는 한자말밖에는 없었던 일제강점기 때 ‘어린이’라는 순우리말을 처음으로 만들어 쓰기 시작한 분도 바로 그분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새롭게 미래를 열어갈 주인공들

인 어린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꾼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날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만큼 정성을 쏟았나, 혹시 잘못 키우지는 않았나를 성찰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단지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잔치를 베푸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선물을 받을까 또는 무엇을 선물할까를 고민하기에 앞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 내 자녀 대 하나님의 자녀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를 두고 과학계는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창조된 것은 부모입니다. 이 사실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가 있기 전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녀의 효도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답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효도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먼저 살피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진실한 사랑은, 자녀의 자발적인 효도를 부르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우리 ‘소유’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 자녀에게 참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속에 담긴 것은 ‘이기심’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모의 이기심은 언제나 자식을 병들게 합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는 다음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4:1)

인류의 조상, 첫 부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낳은 하와의 첫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였습니다. 가인이란 발음은 히브리어 동사 “얻다” 또는 “생산하다”라는 말의 발음과 비슷합니다. 즉 “가인”이란 이름은 “얻다” 또는 “생산하다”란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얻은 사람, 생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답은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는 하와의 외침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나’입니다. 즉, 가인이란 이름은 “내가 득남하였다. 내가 얻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4장 1절은 “하나님과 같이 나도 한 남자를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산의 주체,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가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기른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은 친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 평생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요즈음 사회문제가 된 자녀 학대 사건들을 일으킨 부모들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하나같이 자녀를 자기 소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창세기 4장 25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 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셋”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어는 4장 1절처럼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식이란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셋”이 인류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이렇듯 ‘내’가 주어일 때 인류는 타락했고, ‘하나님’이 주어일 때 인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자녀임을 말입니다.

탈무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일일이 다 돌볼 수 없으니까 대신 부모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듯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듯이 자신을 희생하며 자녀를 돌보라는 말입니다. 옛날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죠.

옛날 옛날에 어린이들을 아주 업신여기는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방해만 되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아주 성가신 존재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임금님이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마을 어린이 가운데는 내 친자식이 있다. 내가 너희들 몰래 아무도 모르게 끼워 넣었다. 내가 먼 훗날 다시 이 마을에 올 테니 그때까지 내 자식을 너희들이 맡아 키우도록 하라.”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고민이 생겼습니

다. 도대체 누가 임금님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임금님 자식은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가정에서는 일체 어린이들을 학대하거나 홀대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또 옆집 어린이를 보고도 “혹시 저 아이가 임금님의 자식일지도 몰라”하는 생각이 미치자, 마을 사람들은 옆집 어린이도 제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또 어린이 놀이터, 학교, 도서관 등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세워 어린이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먼 훗날 임금님이 이 마을에 와서 달라진 모습을 보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임금님께 물었습니다. “임금님, 이제 우리 마을 어린이 가운데 누가 임금님의 자녀인지 가리켜 주시죠? 제 아이인가요?” 임금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 어린이 모두가 다 내 친 자식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자녀임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진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에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 자녀는 부모의 거울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제로 수필을 쓰게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정에서 필요한 물건이 된다면, 어떤 것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떤 학생이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텔레비전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좀 더 자주 나를 보실 것이고, 더 열심히 돌봐주실 테니까요. 부모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주의 깊게 내 목소리에 귀를 기

울여 주실 것이고,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히 해!’ 하고 주의를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놀라거나,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그만 가서 자라거나 하지도 않을 것이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잠들지도 않을 테니까요.”

성경에 보면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무엇을 받아들일 때 이론이나 이치 또는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어린이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깨끗한 영혼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질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와 같습니다. 그 백지에 무엇이 그려지는 가는 종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배움’이란 곧 ‘본받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앞의 이야기에 나오는 어린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본받을지는 뻔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의 모습이 자식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부가 매일 다투면서 자식에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기대할 수 없고, 스스로는 책 한 줄도 읽지 않으면서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바랄 수 없고, 본인은 신앙생활을 방관하면서 자식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콩 심은 데서 팥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깁니다.

그래서 성장한 자식은 바로 부모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자식의 잘잘못은 곧 부모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식에게 흠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의 성장 과정 어디에선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알게 모르게 부모가 부족해서 저지르고 만든 상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마의 태를 통

해서 주신 자식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을 것이니까요. 다만 그렇게 태어난 어린이가 부모의 손을 통해 이 세상에서 몇 십 년을 살다 보니 때가 묻고 상처가 나고 이지러지곤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장한 자식이 무언가 잘못할 때면 바로 이때 부모는 ‘내 탓이요’를 마음 속으로 외쳐야 합니다.

## 자녀를 위한 올바른 기도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캐서린 부스 여사는 슬하에 여덟 명의 자녀를 두었고, 모두 훌륭하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사에게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사의 대답은 담담하고 명료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가 훌륭히 자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훌륭한 부모가 있어야 훌륭한 자식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올바른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의 자녀가 그 가능성을 발휘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것인가는 바로 우리 부모들에 달렸습니다.



## 자녀의 도리

<sup>1</sup>자녀 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sup>2</sup>“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달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sup>3</sup>“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엡 3:1-3)

### 어버이주일

매년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또한 매년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두 날이 겹쳐서 더 뜻 깊은 것 같습니다. 이날 한국교회가 꼭 읽는 성경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 역시 이 말씀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 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돌 판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 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된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이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수록된 두 번째 돌 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 위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제5계명, 즉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관

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부모공경”이라는 것입니다.

##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무엇 때문에 부모공경을 인간관계의 으뜸계명으로 제시하신 것일까요? 첫째,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어린이주일에 탈무드는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에) 부모님을 보내주셨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네 부모님은 신의 분신이며, 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공경’이란 인간의 ‘의무’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공경의 의무를 행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하여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명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네 부모님은 ‘천사’도 아니고 ‘성자’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부모 역할을 난생 처음 해보았기에 잘 잘못했을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오

랜 세월을 가까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관계이기에, 차라리 남남이었으면 주고받지 않았을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부모에 의해 할퀴어진 상처자국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과 관련하여 기억하고 싶은 것보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부모를 ‘존경하라’고 명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를 ‘사랑하라’고도 명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를 존경하라면 존경하지 못할 자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라면 자식의 작은 그릇으로는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자식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과 존경 없이도 공경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공경을 인간관계의 으뜸계명으로 제시하신 둘째 까닭은 우리 생명이 부모를 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낳지 않았다면, 부모를 통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지금의 우리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는 진리의 삶에 감격하며 감사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에 지금 우리의 생명이 비로소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생명이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홀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모의 손길이 있어야 했는지 우리는 자

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양주동 선생이 작사한 <어머니 마음>의 가사,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이없어라”는 가사가 절절이 마음에 와 닿는 때는, 아마도 자신이 자식을 낳아 부모 역할을 해보고 나서 일 것입니다. 지금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그 희생적인 양육 덕분에 지금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의 삶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금 지니고 있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모독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넷째,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자녀가 먼 훗날 부모인 나를 어떻게 대할는지 알고 싶으면, 내 부모를 대하는 지금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됩니다. 내 자녀는 내게서 보고 배운 대로 나에게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못마땅해 하면, 나도 자식으로부터 못마땅해 함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효도하면 내 자식들도 입으로만 효도하고, 내가 돈으로만 효도하면 내 자식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해와 사랑을 낳는 공경심으로 내 부모를 대하면, 그 공경을 고스란히 자녀로부터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이 다음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는 내 부모의 이런저런 부정적인 면만은 절대로 닮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내가 욕하고 흠봤던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움은 반드시 미움의 대상을 닮게 하기 때문입

니다. 시집살이를 고되게 한 며느리일수록 후에 며느리를 이해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움을 극복하는 길은 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미워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느새 내가 미워하는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지 않으려면 부모님을 미워하는 일을 중단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내가 바라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해인 수녀의 시 <어머니께 드리는 노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게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빠 사는 자식들에게  
더러는 잊히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 안은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 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의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풀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의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 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sup>1</sup>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sup>2</sup>그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sup>3</sup>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혀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sup>4</sup>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행 2:1-4)

### 성령강림사건의 핵심

부활절이 ‘기독교’의 생일이라면, 성령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강림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만약 어떤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까? 마침 오늘이 우리 교회의 창립 63주년 기념주일이기에 이 질문은 더 뜻깊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말씀은 부활절 후 첫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강림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가리키고 있는 성령강림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문 2-3절은 성령강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

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헛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저는 하늘로부터 강림한 성령이 ‘어떤 모양이었느냐’에 중요한 뜻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강림했습니다(막 1:10). 그런데 이번에는 ‘혀’ 모양의 성령이 강림했습니다(행 2:3). 왜 하필이면 ‘혀’였을까요? ‘혀’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말’(言語)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을 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을 충만히 체험한 사도들이 한 첫 번째 일은 다름 아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성령강림 사건은 다름 아닌 ‘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란 무엇입니까? ‘말’은 왜 존재합니까? ‘말’은 나와 남 사이에서 다리(bridge) 역할을 하여, 서로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소통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즉 ‘의사소통수단’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의 결과는 의사소통이었습니다. 본문 4절이 가리키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를 뜻하지 않습니다. “각 지방(나라)의 언어”를 뜻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이민 1세 만이 아니었고 2세 이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국어인 유대 말은 모르고 각자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의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체험 후 갈릴리 출신 촌무지렁이들이 한 번도 배우



지 않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인과 이민자가 서로 의사를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7-8 절은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이렇듯 성령 체험의 결과는 이제껏 말이 달라 서로 갈라져 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말이 통하게 되면서 소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뒤집어엮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는 당시의 사람들이 한 가지 말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흠어지지 않으려고 하니 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온 땅에 흠으셨다고 증언합니다(창 11:1-9 참조). 이렇듯 불순종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도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강림 사건은 바로 그 단절이 극복된 사건입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이 의사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성령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끊어졌던 관계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소통,’ 이것이 사도행전이 증언하는 성령체험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체험했다/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관계의 소통’ 없는 성령체험은 다 거짓입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 말씀, 말 숨, ‘들숨’과 ‘날숨’

이제껏 살펴보았듯이 성령강림 사건은 ‘말이 소통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숨의 사건’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말숨’이란 용어는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 되시는 류영모 선생님께 빌려온 것입니다. 류영모 선생님은 ‘말씀’이라는 우리말의 어원이 ‘말의 숨’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말이 숨 쉬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숨을 쉰다?” 어떻게 말이 숨을 쉴 수가 있을까요?

‘숨’이란 것은 본래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들숨과 날숨이 함께 존재합니다. 들이쉬는 숨만 있고 내쉬는 숨이 없어도 안 되고, 그 반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한쪽 숨만 있으면 숨이 멈추게 되고, 숨이 멈추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뜻하는 우리말이 바로 ‘목숨,’ 즉 ‘몸의 숨’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단어 네페쉬(nepesh)와도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 이렇듯 숨이란 두 관계가 서로 통(通)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교통(交通)하지 못하고 단절되면, 숨이 막히고, 마침내 생명도 끝이 나고 맙니다.

말의 숨인 ‘말씀’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통해야 합니다. 들숨에 대해 날숨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덜’하면 나는(또는 교회는) ‘더컹’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에 외치는 ‘죽은 소리’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 내가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메기고 내가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날숨과 내 들숨이 계속 교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체험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체험은 하나님과 의사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소통은 (방언기도 하듯이) 하나님과 내가 의미 없는 ‘소리’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 서있다면 그건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왼쪽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쪽으로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성령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 **세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말이 숨 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아멘’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진정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듣는 것/경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해설하는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러니 예배와 성경공부에 늘 참석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참석하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증언>이나 <성경공부자료>를 꼭 읽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속에서 일하시면서 세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엔 성경을, 다른 한 손엔 신문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마침 우리 서울제일교회 창립 6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 때부터 세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또 성실히 응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50-60년대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피난 온 실향민들에게 품이 되어 주었고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70-80년대에는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과 통일을 위한 십자가 행진에 앞장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히 답했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우리가 다시 한 번 세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구조조정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성령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교회는 맛 잃은 소금처럼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늬만 교회지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모든 문제에 응답할 수는 없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노래하면 우리는 춤을 추십시오. 세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神命)에 우리가 순종하여 응답할 때, 신명나는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 부름 받고, 세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하나님의 사랑법

<sup>1</sup>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sup>2</sup>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sup>3</sup>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sup>4</sup>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sup>5</sup>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롬 5:1-5)

### 삼위일체(三位一體)란?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강림절이었는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강림절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에 이어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오셨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란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면 ‘삼위일체(三位一體)’란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완전히 구별되는 세 개의 위격(位格)을 가지지만, 동시에 하나의 신성(神性)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람마다 인격(人格, personality)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위격(位格, *persona*)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단 하나의 인격을 갖습니다. 물론 “지킬박사와 하이드” 처럼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인격을 가진 다중인격자도 있습니다만, 다중인격은 정신장애의 일종이고, 정상인은 한 사람이 단 하나의 인격만 갖습니다. 따라서 한 분 하나님도 하나의 위격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격은 하나가 아니고 성부·성자·성령 셋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 분이어야 하는데, 그 세 위격은 ‘하나의 신성(神性)을 이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것입니다.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는 주후 325년에 ‘니케아’란 곳에서 공의회를 열고 이 ‘삼위일체’를 교회의 정통 교리로 공인했습니다. 그 후 오늘날까지 수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어느 것 하나도 속 시원한 해답은 없었습니다.

##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그렇다면 삼위일체 교리는 왜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 태양이 하나이듯이 이 세상에 신(神)도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신앙’입니다. 그런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도 체험하게 되었습

니다. 그런데 저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기저기서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의 이런 체험은 그야말로 수수께끼요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한 분밖에 없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분이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또 다른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걸까?” 하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숙고 끝에 저들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로마 시대의 개념과 용어로 이 교리를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당시의 용어가 뜻하던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말로 “위격”이라고 번역된 라틴어 단어는 페르소나(*persona*)입니다. 그런데 이는 원래 그리스와 로마의 극장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mask)을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면은 자신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역을 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 가면극에서 어떤 연희자가 과장(科場)이 바뀔 때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역으로 다시 등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분이데 세 위격을 갖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개의 서로 다른 ‘가면’을 쓰고 서로 다른 역할로 우리에게 알려진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다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즉,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인데, 그 사랑의 표현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교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이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저 멀리’에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계신 분’으로, 나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법을 표현하고자 한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면서 셋이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건에 다름 아닙니다.

## 은혜와 믿음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믿음”이 바로 그 답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받게 되는 선물이지만, 우리는 신앙(믿음)을 통해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구절을 가톨릭에서 발간한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sup>1</sup>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sup>2</sup>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sup>3</sup>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sup>4</sup>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sup>5</sup>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새성경 롬 5:1-5)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의 믿음입니까? 내 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내 선택을 뜻합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기로 결단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란 내 의지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의지가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란 내 의지만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성이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거나 그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 9장 14-29절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 받은 이야기”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22절)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23절)고 하시면서 그 아버지를

꾸짭니다. 이에 그 아버지는 큰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24절)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앞말과 뒷말은 서로 모순됩니다. 금방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의지’만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길 때”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나서, 곧이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이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자, 그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앙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앙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있어서 내 의지나, 선택 또는 결단이 전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는 우리의 신앙이 경험에 의해 즉각 ‘입증’되지 않는 때에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도록 ‘결심’하게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 바로 그 예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믿겠다, 이제부터 믿어보겠다”고 내 의지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움,” 즉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한 것입니다. 이렇듯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되면, 우리는 신앙 안으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구원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과정이 단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평생토록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 즉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우리는 보다 높은 단계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성장 과정과 비슷합니다. 갓난아이는 배가 고프면 “으앙”하고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젖을 물려줍니다. “으앙”하고 우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라 할 수 있고, 젖을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기는 배부름이라는 은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기쁨은 배부름이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크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기쁨도 알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사랑의 기쁨도 알게 되고, 나중에 자식을 낳아 기르다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구원의 은사들도 이와 같습니다. 계단을 오르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 전에 알지 못하던 구원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 지금까지 내가 살던 도시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개역, 롬 5:3-4)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인내”라는 구원의 열매를 체험했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연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소망”이라는 구원의 은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할 수 있습니다. 환란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금이 여러 번 단련됨으로써 정금과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뎌므로써 그 자신이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 하늘 정원사

어떤 사람이 환란 중에 하나님께 참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포도원 옆을 지나갔습니다. 포도밭은 가을 햇볕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마다 많은 잎은 있었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 정원사가 그에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여러 가지 괴로움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느냐? 기억하여라. 정원사가 가지치기와 손질을 그만두고 썩레질과 경작을 멈추는 것은 그가 그 포도나무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때뿐이란다. 너는 내가 가지치기를 그만두기 원하느냐? 너는 내가 너의 인생에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환란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은 하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이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과 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의 환란과 시련 또한 여러

모습일 수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과 환란은 하나님 사랑의 다른 모습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만 기억한다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확신하고,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끝내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 자연에서 배우라!

<sup>25</sup>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  
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  
니하냐? <sup>26</sup>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  
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  
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sup>27</sup>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일 수 있느냐? <sup>28</sup>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  
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  
도 하지 않는다. <sup>29</sup>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광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sup>30</sup>오늘 있다가 내일 아  
궁이에 들어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마 6:25-30)

### 이스터 섬의 교훈

남미 칠레의 서부 해안에서 3,700km 떨어진 곳에 면적이 겨우 120  
km<sup>2</sup>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이스터  
(Easter)인데, 유럽인들이 이 섬을 처음으로 방문한 날이 마침 1722  
년 부활절 아침이어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이 섬  
에 도착했을 때 처음 발견한 것은 원시부족이었습니다. 그 원시부족  
은 누추한 갈대 오두막이나 동굴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  
고, 부족한 식량 때문에 식인 풍습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의 유럽 방문객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그 누추함과 야만스러움 속에 남아 있는 한때는 번성했던 진보된 문화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섬 전체에는 평균 6m 높이의 거대한 석상이 600여 개나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인류학자들이 이스터 섬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것은 가난에 찌들고 뒤떨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이 원시부족이 조각을 만들고 나르고 세우는 것과 같은 사회적으로 진보되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한 일을 해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터 섬은 마야문명처럼 하나의 ‘미스터리’가 되어 버렸고, 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외계인의 방문이라든가, 지금은 태평양에 가라앉아 버린 사라진 문명이라든가 하는 황당무계한 이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터 섬의 역사는 사라진 문명의 역사도 아니고, 신비한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가 환경에 의존한다는 사실과, 돌이킬 수 없이 환경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주는 섬뜩한 실례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폴리네시아인들이 이스터 섬에 이주해서 살기 시작한 것은 5세기의 어느 때쯤이라고 합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원래 동남아시아 사람들인데, 험난한 태평양을 건너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차례차례 섬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북쪽으로는 하와이, 남서쪽으로는 뉴질랜드, 남동쪽으로는 이스터 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에는 태평양의 파도와 바람을 거슬러서 가야합니다. 그러니까 폴리네시아인들은 상당한 수준의 항해술과 선박 조종술을 지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이 처음 이스터 섬을 발견했을 때 그 섬에 자원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이 배에 싣고 온 고구마와 닭을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극도로 단조로운 이 식단의 유일한 장점은 고구마 경작에 노동이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이 여가시간을 기념물을 제작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섬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00여 개의 거대한 석조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석조대 위에는 제주도의 돌하르방과 비슷한 모양을 한 6m 높이의 거대한 석상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습니다. 또 그 석상의 머리 꼭대기에는 10톤가량의 붉은 돌이 모자처럼 얹혀 있습니다. 이 문화 유적은 모든 폴리네시아 종족들 가운데 가장 앞선 것입니다. 특히 자원이 얼마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석상들을 제작하는 데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높이 6m에 무게가 수십 톤씩이나 되는 석상들을 섬을 가로질러 운반하여 제단 꼭대기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터 섬에는 수레를 끌만한 동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석상을 운반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채석장에서 제단까지 통나무를 깔아서 유동성 있는 운반로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돌을 굴러 운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목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섬 전체에 가득했던 나무들을 베어 그 목재를 충당했습니다. 그 결과 1,600년경에는 섬의 모든 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무가 사라졌을 때, 저들의 석상 세우기도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섬 전체의 삼림벌채로 인한 거대한 환경파괴가 가져온 결과

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주민의 일상생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무가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집짓기를 포기하고 동굴이나 갈대로 만든 오두막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카누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물의 재료인 꾸지나무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잡이도 어려워졌습니다. 삼림의 황폐로 토양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그 결과 농작물의 수확이 감소했습니다. 이렇듯 자원이 줄어들자 이를 둘러싼 씨족들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마침내는 씨족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구할 수 있는 단백질이 부족해짐에 따라 결국에는 식인 풍습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스터 섬 주민들은 난관을 헤쳐 가며 수세기에 걸쳐서 그 유형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이 극도로 제한된 자원 기반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많은 면에서 인간 재능의 개가(凱歌)였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이 섬의 환경에 부과한 요구는 막대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섬 주민들의 문화적인 야심은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자원에 비해 너무나 컸습니다. 환경이 더 이상 압박을 이겨 낼 수 없게 되자, 지난 수천 년 간 땀 흘려 건설한 사회는 환경의 몰락과 함께 빠른 속도로 붕괴되었고, 마침내는 거의 야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터 섬의 운명에 대해 연구한 클라이브 폰팅(Clive Ponting)이란 사람은 이스터 섬이 인류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터 섬과 마찬가지로 지구에는 인간 사회와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섬의 주민들처럼 인류도 지구를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 지난 200만 년 동안 인간은 늘어나는 인구와 점점 복잡해지는 기술 문명과 진보하는 사회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고 더 많은 자원을 뽑아 쓰는 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치명적으로 고갈시키지 않고, 자신들의 생명 보존 체계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에 있어서 이스터 섬의 주민들보다 성공적이었을까요?

##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쓰레기

이스터 섬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녹색세계사, The Green History of the World』(도서출판 심지, 1995)라는 책에 실려 있는데, 이 책의 한국어판에는 <진보의 역사 뒤에 숨겨진 파괴의 역사>라는 부제가 붙어있습니다. 이 부제는 지금껏 우리가 ‘문명’과 ‘진보’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였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현재 이스터 섬의 주민들과 똑같이 출구 없는 절해고도(絶海孤島)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이스터 섬의 주민들처럼 인류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쓰레기라는 생활 방식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동안 발전론자들은 인류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경제발전이 계속되어야 하고, 경제발전이 계속되려면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현재의 산업적 생활방식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발전론자들은 이것이 풍요를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관계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스터 섬의 교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지구생태계 전체를 공멸에로 이끄는 지름길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대량생산 - 대량소비-대량쓰레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인류는 이스터

섬의 전철(前轍)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조금만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들은 써서 버릴 것을 전제로 한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쓰레기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후보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또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해를 유발하고, 결국에는 쓰고 버림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영어로 웨이스트(waste), 그러니까 낭비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자원의 낭비만이 아니라 결국 인생의 낭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생활에서 나오는 부산물 찌꺼기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오늘의 지배적인 산업체제 자체가 인생의 낭비를 구조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자연에서 배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생활에서 ‘쓰레기 후보들’을 보다 더 소유하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무엇을 (더) 입을까’를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보다 편리해지려고, 보다 더 풍요로워지려고,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려고 밤낮으로 애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요를 넘어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 빈곤감에 사로잡혀 부질없는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쓰레기 후보들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생명과 몸을 그것들과 맞바꾸기까지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

니다. 그들의 생활방식을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는 지, 추수하는지, 공간에 모아들이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바뀔 말하면 “자연에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들을 파괴하지 않고 살아가는 새와 꽃의 삶의 스타일, 삶의 방식을 보고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가 어떻게 날아다닐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새가 다 날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타조나 펭귄은 비록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합니다. 몸집에 비해 날개가 작기 때문입니다. 몸집과 날개의 크기가 비슷한 새 역시도 잘 날지 못합니다. 닭이나 거위가 그런 경우입니다. 잘 날아다니는 새를 자세히 살펴보면 몸집이 작습니다. 날기 위해 새는 자기 몸집을 줄였는데, 위도 작고 창자도 짧습니다. 또한 대변, 소변, 산란, 교미를 한 기관으로 다 합니다. ‘다목적 전천후’ 기관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간편한 생활을 하니까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배가 큰 새, 욕심이 많은 새는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적게 소유하고 간편한 생활을 하면 새처럼 하늘을 날을 것 같은 자유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삶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은 얼마나 당치도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지닌 것, 소유한 것이 적다는 말입니다. 소유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잃을 것이 적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 초조해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 결국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

겠습니까? 거기에 마음까지, 심령까지 가난하면 바야흐로 행복은 완벽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아무 것에도 욕심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없으니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이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 산을 소유한 사람은 산을 지키는 염려, 관리하고 경영하는 노력과 수고, 땅값 상승의 완만함에 대한 속상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온갖 세금에 대해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바라보는 모든 산이 그저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한 마디 덧붙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노력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일하지 말고 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 근면은 성경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내 필요를 넘어, 보다 더 소유하려는 탐욕의 노예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하신 이 지구 생태계를 잘 보존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구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편리와 풍요를 추구하며 보다 더 소유하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우리 인류의 운명을 이스터 섬의 경우처럼 빠른 종말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삶의 방식,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며 자연에서 배워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 문제, 생태계 문제를 전 지구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안목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를 실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시인 박노해가 그의 책 『사람만이 희망이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맹(文盲)은 동정 받아 마땅하고,  
کم맹(Com盲)은 도움 받아 마땅하나,  
환맹(環盲:환경 문제에 눈먼 사람)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인간의 미래를 파괴하는 자,  
아이들의 미래를 훔쳐다 쓰는 자,  
오늘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 자신의 발밑을 허무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환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찍이 생명운동가들이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말했듯이,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되,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희망의 시작입니다. 덜 소유하고, 덜 소비하는 삶, 더 아껴 쓰고, 더 나누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오늘의 성경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 기장이여, 일어나라!

<sup>11</sup>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sup>12</sup>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의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sup>13</sup>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sup>14</sup>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sup>15</sup>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sup>16</sup>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주셨다” 하였다. <sup>17</sup>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눅 7:11-17)

### 기적 이야기를 읽는 올바른 방법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야기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치유기적,’ ‘귀신추방기적,’ ‘소생기적,’ ‘자연기적’이 그것입니다. 오늘의 복음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되살리신 기적 이야기니까, 앞의 구분 중 ‘소생기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우리가 기적 이야기의

참뜻을 찾으려면 제일 먼저 ‘누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전했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야 할 최종적인 곳은 ‘기적’ 자체도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도 아니고, 그 기적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기적 이야기의 올바른 의미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묻습니다. 과연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소생한 기적 이야기는 ‘누가’ 전달했을까요? 그들은 ‘왜’ 그 기적 이야기를 전달했을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큰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에서 기적 이야기는 ‘민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사변’(思辨), 즉 ‘생각’의 기록이 아니고, ‘경험’ 즉 ‘삶’의 기록입니다. 기적은 민중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는 구체적인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기적 이야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에게 투영되어 있는 민중의 열망입니다. 과연 오늘의 기적 이야기에는 민중의 어떤 열망이 투영되어 있을까요? 이제부터 본문을 통해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적 - 체념에 대항하는 반역의 이야기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죽음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듯 간단하지만 우리네 현실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식물인간의 안락사(安樂死) 문제를 놓고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은 “대뇌의 손상으로 의식과 운동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호흡과 소화, 흡수, 순환 따위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는 환자”를 가리킵니다. 분명 목숨은 붙어 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그리고 법적으로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이에 비해 철학적인 의미의 죽음도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 1813-1855)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죽음의 또 다른 이름을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절망’(絶望), 즉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가 곧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체념해 버리고 말뚝에 매달려 죽기를 기다리는 도살장의 짐승 같은 존재,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사람은 살기는 살았으되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과부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과부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 및 이방인과 더불어 당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 층에 속하는 약자였습니다. 이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권리와 재산을 번번이 약탈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과부처럼 아들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아들이 장성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유일한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

니다. 이 이야기에서 실제로 죽은 사람은 과부의 아들이지만, 키에르케고르의 정의에 따르면 과부도 죽은 사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곤 절망과 체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망과 체념은 단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죽음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망과 체념은 자신의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무력감에 빠져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절망과 체념은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위 운명이니 팔자니 하면서 자신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면서 아무 것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지 진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병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앓은뱅이로 태어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소경이나 귀머거리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어찌다가 나병 같은 불치의 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쫓겨나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성 밖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발버둥 쳐봐도 저들로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성경은 기적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에서는 현 상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름발이는 절름발이로 남지 않습니다. 문둥병자는 더러운 존재로만 남지 않습니다. 광야의 배고픈 사람

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기적 이야기들 속에서는 인간의 삶을 왜곡시키는 온갖 질곡들이 반드시 극복되고야 맙니다. 한 마디로 기적 이야기는 인생역전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따라서 민중들은 이런 자신들의 간절한 염원과 그 성취를 기적 이야기에 담아서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쩔 수 없다고, 운명이나 팔자라고 영원히 포기한 상태, 아무리 부정을 해도 재간이 없다고 체념하는 상태에 대항하는 반역의 이야기가 바로 기적 이야기입니다. 미래는 단지 과거의 연속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다는 인생역전, 앓은뱅이가 걸을 수 있다는 희망, 소경이 볼 수 있다는 희망, 아니 죽음마저도 극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희망, 자신들을 짓누르는 로마의 지배는 종식된다는 희망, 예수님의 민중은 무지·절망·체념·불신을 딛고 이 희망을 살았습니다. 저들은 죽음 같은 운명에 처해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적 이야기는 “내 처지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테 쾰레(Dorothee Soelle, 1929-2003)라는 독일의 여성신학자는 “체념에 대항하는, 그리고 인생의 파괴에 대항하는 반역의 이야기”가 바로 기적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 **새로운 기적 이야기의 전승자가 되라!**

제가 예전에 인생의 온갖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신앙체험 수기를 모아 놓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서 도움을 청했을 때 슬쩍 힘을 보태 주는 분이시, 가만히 앉아서 조르기만 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요행을 바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가운데서도, 솟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죽음과도 같은 절대적인 힘과 맞닥뜨려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좌절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력하고 싶어도 노력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부가 된 것도 서럽고 절망적인데, 옆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을 힘을 다해 다 키워놓았더니 요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죽어 하늘이 무너졌지만, 아들 하나 믿고 의지하며 솟아나 보려고 애써왔는데, 이제 그 아들마저 요절을 했으니 땅이 꺼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 그 어디에도 버틸 힘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에 주님께서 그 과부를 찾아오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는 50km나 되는 먼 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다볼산을 넘어 에스드렐론 평야를 거쳐 사마리아까지 거의 다 가야 하는 아주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먼 길을 친히 찾아오셔서 죽음에 빠져 있는 그 과부를 가엾게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com-passion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여에 손을 대십니다. 율법 따위는 주님이 느낀 애간장이 타는, 창자가 비틀어지는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은 이를 일으켜 주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아무개야 죽음의 절망에서 일어나라! 체념을 떨쳐버려라!” 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기적 이야기의 전승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찾았습니다. 저들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감사와 기쁨에 넘쳐 자신들이 체험한 이 기적 이야기를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처지에서도 절망해선 안 됩니다. 고난이 너무나 엄청나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 보이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물결처럼 밀어닥친다 해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며, 끝내는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생명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죽음의 절망을 떨치고 지금 당장 힘차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기적 이야기

의 전승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 기장이여, 일어나라!

끝으로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총회선교주일입니다. 전 제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롭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장이 기적 이야기의 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죽음과도 같았던 식민의 시대, 독재의 시대, 분단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우리네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갔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뜻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라고 외치며 고난을 무릅쓰고 그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 사건의 증언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은 작년에 우리 교단이 100회 총회를 맞아 이를 기념하여 만든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라는 제목의 곡인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뜻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기장 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 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기장 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 찬양이 노래하듯 우리 기장 교회는 절망 속에서 참 희망을 선포 하던 교회였습니다. 독재와 분단, 불의와 죽음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우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화의 기적을 일으키고 남북 화해의 새 역사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다시 죽음의 시대로 회귀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세월호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힘없는 사람들의 절규와 아우성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저는 그 속에서 “기장이여,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기적 이야기의 증언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토대로 정의와 평화,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새 세상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총회선교주일을 맞아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기장 교회들이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평화와 공존의 길

<sup>26</sup>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sup>27</sup>예수께서 물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sup>28</sup>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sup>29</sup>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sup>30</sup>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sup>31</sup>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sup>32</sup>마침 그 곳 산기슭에, 놓아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sup>33</sup>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 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sup>34</sup>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sup>35</sup>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sup>36</sup>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sup>37</sup>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sup>38</sup>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sup>39</sup>“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알이 온 읍내에 알렸다. (눅 8:26-39)

## 민족화해주일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성령강림 후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단 총회가 제정한 ‘민족화해주일’이기도 합니다. 약 20년 전인 1997년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이 포함된 한 주간을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민족화해주간’으로 선포하고 이를 지켜왔습니다. 또한 한국 가톨릭교회는 1965년부터 6월 25일이나 그 직전 주일을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켜오다가, 1992년부터는 그 명칭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바꾸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남한의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가 모두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남한의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가 왜 이 주일을 특별하게 지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 때문입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족이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죽이고 죽은 끔찍한 기억과 상처는 반세기가 넘어도 도무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아문 듯하다가도 다시 덧나고, 어느새 악화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아파서 신음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 상처를 극복해 보자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끔찍한 전쟁을 한반도에서

되풀이 하지 말자고 민족의 화해와 남북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적대적 공생 관계

그런데 말입니다. 66년이 다 되도록 6.25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그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상처를 계속해서 이용해 온 분단고착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에 6.25만 되면 어김없이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6.25의 노래’가 바로 그것인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갇으리 그 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지금 들으면 참 섬뜩한 내용인데, 당시에는 가슴 뜨거움을 느끼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가사에 의하면 우리의 조국은 남한이고, 북한은 우리의 적이요 원수이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쳐서 무찔러야 할 대상으로 묘사돼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분단시대를 산 저에게 분단은 당연한 것이었고, 북한 땅은 괴뢰도당에게 강점당한 미수복 영토이며, 휴전선 이북에는 빨이 달린 빨갱이라는 악마가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6.25의 노래’가 주장하듯이, 과거 남한의 독재정권은 “공산당을 이기자”는 ‘승공’, “공산당을 반대한다”는 ‘반공’, “공산당을 멸종시키자”는 ‘멸공’을 슬로건으로 내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공산당

을 적대시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대관계를 자신의 독재권력 유지에 악용해 왔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면 공산당이라고, 빨갱이라고 하고 옥에 가두거나 처형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공산당이 다스리는 국가와 국교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교류하면서 승공, 반공, 멸공을 주장할 명분이 더 이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적대 범위가 ‘공산당’에서 ‘북한’으로 좁혀졌습니다. 과거의 승공, 반공, 멸공 주장이 이제는 ‘반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북좌파’라고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반대 세력에게 주홍글씨를 깊이 새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들은 6.25 전쟁의 상대국인 미국을 원수시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반미’로 통합니다. 또한 남한 당국을 걸핏하면 ‘친미 매판정권’이라고 몰아붙이며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지금까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며 강화해 왔습니다. 이렇듯 남과 북의 극우와 극좌 강경 세력들은 각각 상대방을 적대집단과 ‘주적’으로 규정하며 서로를 궤멸시키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서로를 꼭 필요로 합니다. 반대편이 있어야만 내가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저들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는 남북의 강경세력들이 상대방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비극적인 관계입니다. 분단 후 지금까지 남과 북 간의 갈등과 증오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과 북의 내부에서 입지가 강화되는 분단고착 세력들이 있어왔고, 그들이 6.25의 상처를 계속 건드려서 덧나도록 해왔기에 66년이 다 되도록 6.25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 화약 냄새가 가득한 한반도와 악순환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3월에 “현재 (한)반도 정세는 칼을 뽑고 활시위를 당긴 상황으로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사드 한국배치 협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와 각국의 매우 강도 높은 대북제재, 남북 간에 군통신선마저 끊긴 상태에서 선제공격을 노골화한 역대 최대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리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고강도 위협과 무장력 과시,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마디로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뒤덮인 위기 상황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못 믿겠으니 자구책 마련을 위해 핵무기를 가져야겠다고 합니다. 남한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대화도 없고 교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대결 국면을 이용해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남한에 비용까지 부담시키며)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 재무장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북중러 3각 안보동맹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지금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일 것이기에 전쟁 발발 가능성은 매우 적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게 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엄청나게 힘들게, 지난 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게 그것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이유로 우리에게 사드를 내놓았는데, 만약 북한이 사드로는 대응할 수 없는 잠수함탄도탄(SLBM)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그 방어무기를 사느라고 또 다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돈을 벌어서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 갖다 바치게 될 것입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버는 격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병원은 돈 벌어서 그 대부분을 미국 의료기 회사에 갖다 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업 GE(제너럴 일렉트릭)가 생산하는 의료기기(초음파 검사기기, CT 촬영기, MRI 촬영기, 방사선 치료기, 감마선 치료기 등등)는 수백, 수천만 원에서 수십,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병원은 그 기계를 월부로 사서 돈을 벌어서 값다가, 다 갚고 나면 다시 신형 기계로 교체합니다. 안 그러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무기시장도 이와 똑 같다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14년에 우리나라와 70억 달러(약 8조 2천억 원)의 미국 무기 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 무기수출 계약의 20%에 이릅니다. 이 금액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한국의 대미 TV 수출액 1억 9,040억 달러(약 2,200억 원)의 36배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 거라사 광인 이야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없어져야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남

북 사이에 증오와 갈등이 심화되면 민족의 소중한 자원은 생산적인 곳에 투입되기보다는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인 전쟁무기 분야에 쏟아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남북 모두에게 고통과 손실만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으로는 서로가 만신창이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등과 대립의 길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적대적 공생관계로 인한 악순환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결코 ‘로마의 평화’=‘팍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로마의 평화는 안보와 직결됩니다. 저들은 모든 적대자들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키고, 그 승리에서 얻어지는 안정을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의 절대적 우위에 기초해서 전쟁이 없는 상태, 전제적 지배의 결과로 피지배자가 꺾소리 못하고 굴복한 상태가 저들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미국이 핵과 미사일을 독점하여 전 세계를 자신의 패권 하에 두려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여 그것으로 자기 살 길을 마련하려는 것도 사실은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평화, 즉 로마의 ‘정치적 평화’를 거짓 평화로 거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참된 평화 즉 예수의 평화란 무엇일까요?

마침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가 제시한 오늘의 복음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39절입니다. 거기에는 거라사 광인이 고침 받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거라사 지방에 당도했을 때 거기서 귀신들린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서 살았는데, 여러 번 발작을 일으켜서 사슬로 단단히 묶인 채 감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괴력을 발휘해서 사슬을 끊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시고, “네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이 범상치 않게 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거나 악령을 쫓아내실 때 이름을 물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자기 이름이 ‘레기온’/‘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히랍어 ‘레기온’은 6천명이 모인 로마군대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레기온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쫓아낼 것이면 들판의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고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레기온의 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레기온은 돼지 떼로 들어갔고 귀신들린 돼지 떼는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집단자살을 감행했습니다.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 동네로 달려가서 벌어진 일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달려와 보니 돼지 떼는 간곳이 없고 귀신들렸던 사람이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있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청을 받아들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귀신들려다 나온 사람이 동행하기를 청하자 그를 돌려보내시며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얘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후 동네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돼지 떼가 몰살했다는 사실과 귀신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사실을 확인한 후에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자기 동네에서 나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엄청난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두려웠을까요? 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레기온 귀신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왜 레기온 귀신을 내쫓고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동네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레기온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사슬에 묶여 무덤가를 배회하던 그 사람만이 아니라, 동네사람 모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사람들은 귀신들린 사람을 무덤가로 내쫓고 사슬로 묶어두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태의 가짜 평화에 길들여져 있던 모든 사람이 사실은 레기온 귀신에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들은 군대를 쫓아낸 예수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군대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안보가 튼튼해야 평화가 보장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저들은 로마의 평화 귀신에, 거짓 평화 귀신에, 달리 말하면 전쟁 귀신, 안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 평화와 공존의 길

예수님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망각하고 전쟁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날의 세계를 향해서 “당장 그 사람에게 나와라!”라고 외치십니다. 6.25가 돌아올 때마다 전쟁이 아닌 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평화의 이름으로 증오의 귀신이 벌이는 아수라장’이 아니라 ‘평화의 이름으로 사랑의 영이 벌이는 잔치 한 마당’을 벌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과 20년 만에 화해했습니다. 소련과는 38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중국과는 39년 만에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동족하고는 분단 70년이 넘도록 계속 원수

로 지내야 합니까? 이제는 한반도의 아픔을 끝내야 합니다. 이 일에는 원수 사랑으로 무장한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준 평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길입니다. 이 길에 우리 기장 교단과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불림 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네 죄가 용서받았다!

<sup>36</sup>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 서서, 상에 앉으셨다. <sup>37</sup>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sup>38</sup>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sup>39</sup>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 <sup>50</sup>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눅 7:36-50)

### 공인된 의인, 공인된 죄인

오늘의 복음말씀에는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이름의 유대인 남자이고, 다른 사람은 이름 없는 유대인 여인입니다. 시몬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바리새파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도덕이요, 진리의 시금석이라 불렸습니다. 즉 저들은 당시의 사회가 공인한 '의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본문에는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존경’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정성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섰을 때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44절),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45절),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지도 않았습니니다”(46절). 이 모든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시몬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했다면 틀림없이 그리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이 위대한 예언자라는 풍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과연 위대한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자기 집에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며 가까이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초대의 목적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궁금증은 갑자기 등장한 한 여인 때문에 금방 풀리고 말았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으로 불쑥 나타난 이 여인은 시몬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청객은 공인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소문난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기구한 사연 때문에 창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한(限) 많은 인생을 저주하면서 무한한 죄의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몬처럼 예수님에 대한 풍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풍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은 성전에서 내쳐지고 회당에서 쫓겨난 죄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어울리고 함께 식사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눅 7:34).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빈정대는 이들에게 그분은 “건강

한 사람에게에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에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막 2:17)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분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마 11:28)라는 말씀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어찌나 가슴이 뛰던지…, 그 분이 초대한 사람 중에 어찌면 자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이 섬광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 말이 정말 인지 자기 두 귀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은 이 여인은 놀라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마 23:31). 이 여인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공인된 의인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을 제치고 성전도 버리고 회당도 내친 당시 사회의 공인된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 자기는 살아서도 변두리 밑바닥 인생이고, 죽어서도 불붙은 지옥에나 가야하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 자기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 있다니! 그녀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기를 별례 보듯 하는 시몬의 집에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만은 그냥 집에 뉘 놓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

습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 드리고 싶은 열망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집에 귀한 향유 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걸 들고 시몬의 집으로 향합니다. 용기를 내어 시몬의 집에 들어선 여인은 뒤쪽에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당시에는 평상처럼 생긴 긴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왼쪽 팔꿈치를 괴고 오른손으로 가운데 있는 음식을 집어먹는 로마식 식사법이 유행했기 때문에 발치로 다가가기 쉬웠습니다. 몸 둘 바를 모르며 겨우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 앞에 선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연히 예수님 발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인은 황급히 엎드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젖은 발을 닦았습니다. 이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원래 인사할 때는 얼굴에 입을 맞추고, 또 향유를 바를 경우에는 머리에 발랐는데, 여인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무언의 행동으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존경과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십니다. 이 여인은 창녀였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당신을 만지도록 그냥 두신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몸이 닿으면 자기 자신도 부정해 지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여인의 행동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속으로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인이 누구이며, 어떠한 여인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인은 죄인인데!”(39절)

이제 시몬의 궁금증은 다 풀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언자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몬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돈놀이꾼에게 빛진 두 사람의 예를 들며, 많이 빛진 자와 적게 빛진 자들이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고는 그 여인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48절)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50절)는 말씀도 하십니다.

##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죄의 용서”와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의 용서로서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심판 받아 마땅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동의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는 적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죄’와 ‘가짜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짜 죄란 하나님과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고,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전수해 준 감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우리 머릿속에서 경찰관이나 재판관 역할을 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지만, 사회나 문화가 우리에게



심어준 죄의식의 대부분은 거짓된 죄요 비본래적인 죄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창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족 제도가 등장한 이래 창녀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죄인 취급을 당해 왔습니다. 이렇듯 창녀하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손가락질을 하는데, 어느 누가 스스로 창녀가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 민족은 스스로를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 즉 선민(選民)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의 역사는 실제로는 수많은 강대국들에 의해 점령당해 온 식민(植民)의 역사였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나라와 가족을 강대국의 군대로부터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선민의식은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상처받은 선민의식은 강대국이 아닌 다른 분노의 대상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창녀였습니다. “동대문에서 뽀맏고 남대문에서 가서 화풀이한다”고 유대인 남자들은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자기 나라와 가족을 지켜내지 못했으면서도, 로마 군인들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그 때문에 동족 중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몸을 파는 창녀로 전락한 여인들에게 자신들의 분노를 전가시켰습니다. 선민의 자존심을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먹었다고 손가락질했고, 죄인이라고 정죄했으며, 나아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낙인찍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기들 잘못인데, 그 잘못을 힘없는 동족 여인들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식의 죄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 죄의식은 사회

나 문화가 만들어낸 허위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네 죄가 용서받았다!”(48절)고 하신 말씀은 “너는 사회와 문화가 심어놓은 거짓 죄의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가진 죄의식이 허위의식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사회 밑바닥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이 세상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세상이 도리어 불쌍해 보입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허위의식이 가여워 보입니다. 그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50절)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눈을 떠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 이제 세상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니고,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 나의 죄는 용서받았는가?

또한 이 여인을 향해 “네 죄가 용서받았다!”(48절)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한 바리새파 사람 시몬과 당시 사회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한 말이기도 합니다. 거짓 죄의식의 다른 이름인 허위의식은 사회적 약자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강자들 역시 허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갖고 있는 허위의식이 ‘열등감’이라면, 사회적 강자들이 갖고 있는 허위의식은

‘우월감’입니다.

사회적 강자, 즉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지금과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출세한 줄 알고,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한 줄 압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저들은 자기보다 열등하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 사람 시몬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의 소(小)자산가 계급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중산층입니다. 즉, 잘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인생의 역경을 별로 모르며 지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먹고 살만 했기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하는 민초들과는 달리,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따져서 골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등 따시고 배가 불렀기에 율법 조항을 세세히 신경 쓰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먹고살기 위해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민초들을 죄인들이라고 조롱하며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저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열심히 노력했고 성실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과 자기의 선천적인 차이는 무시하고, 현재의 상태만을 보고 정죄한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몬과 여인은 그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인생을 100m 달리기 경주에 비유한다면, 시몬은 0m가 아니라 50m 앞에서 그리고 여인은 50m 뒤에서 출발한 경우와 같습니다. 더구나 시몬이 보통 코스를 뛰었다면, 여인은 허들(hurdle)이 놓여 있는 코스를 뛴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출발선이 다르고, 코스가 다른데 시몬이 여인과 100m 달리기 경주를 해 이기고 나서, 여인에게 ‘너는 나보다 열등하

다’, ‘게으르다’, ‘성실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난센스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월감은 이런 허위의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조건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조건을 주실까요? 누가복음 12장 46절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준 것은 더 많은 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선물’임과 동시에 ‘책임’입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우리가 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얼마나 잘 선용했느냐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거저 받은 달란트를 자기 것인 양 여기며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선물인줄로만 알았지 심판의 기준인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지위가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고맙다는 인사조차도 바라지 않고 기쁘게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 인사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 내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47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은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큰 사랑이 ‘어제’의 큰 죄를 없앴다는 말입니다. 순서를 따지자면, 어제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 큰

사랑을 보여준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어 이 여인이 큰 사랑을 보였으므로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저는 이 말이 “크든 작든 자기가 받은 것으로 많은 사랑을 하는 사람,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사람은 사회와 문화가 심어준 우월감이나 열등감, 즉 허위의식(죄의식)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나를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그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에게는 허위의식(죄의식)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해바라기 밑에 핀 채송화를 바라보십시오. 채송화는 비록 해바라기에 비해 키도 작고 꽃도 작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혀 주눅 드는 일 없이 떳떳하게 자기 자리를 잡고 자기 꽃을 피웁니다. 채송화가 해바라기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해바라기가 채송화 꽃을 피울 수도 없고, 피워서도 안 됩니다.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우월감이나 열등감 없이 자기 달란트에 맞게 자기 꽃을 피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사회와 문화가 심어준 열등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월감에서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받은 만큼 나누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때 오늘 말씀 속의 여인처럼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sup>25</sup>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sup>26</sup>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sup>27</sup>그가 대답하였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sup>28</sup>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sup>29</sup>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sup>30</sup>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sup>31</sup>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sup>32</sup>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sup>33</sup>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sup>34</sup>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sup>35</sup>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sup>36</sup>너는 이제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sup>37</sup>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눅 10:25-37)

## 그리하면 살 것이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가 제시한 오늘의 복음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인 30절로 35절에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설명하면서, 그 예화로 이 비유를 여기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과 율법교사와의 대화’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한 자리에서 이야기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좀 놀라시겠지만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세상의 전복,’ 다른 말로 하면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비유 ‘이해’와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해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모르겠는데, 송구스럽게도 오늘 설교 주제는 이 비유의 참 뜻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는 “누가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해설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다른 설교나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앞 뒤에 있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와의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25절)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즉 성경을 전문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율법(성경)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 비밀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은 사실 이 문제에 대

한 전문가인 셈입니다. 이미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질문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그 의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25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질문 속에는 영생에 대한 율법교사의 전이해가 들어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해서, 즉 어떤 상응하는 값을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얻는다’는 말의 그리스 원어의 뜻은 유산으로 받던가, 대가를 치러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교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얻으려면, 소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얼마를 내야 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 수만 있다면, 프리미엄이 얼마든 그것이 문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서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냐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26절) 이 반문에서 예수님은 ‘기록되어 있는 것’과 ‘읽는 것’, 즉 ‘쓰여 있는 것’과 ‘알아듣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열심히 공부한 대로 율법의 핵심을 짚어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27절) 흠잡을 데 없는 정답입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28절) 이것이 율법교사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율법교사가 이미 정답을 다 밝혔는데 예수님께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그 값을 지불하고 영생을 내 것으로 사면 끝나는 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 율법교사의 생각과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율법교사와 전혀 다르게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영생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나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교사의 대답은 성경에 쓰여 있는 것에 대한 훌륭한 분석과 종합의 결과였지, ‘쓰인 것’을 참으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아들었더라면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는 않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29절) 이 질문 역시 몰라서 묻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29절) 이 질문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즉, 자기를 과시(誇示)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율법교사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 핵심을 유도하는 질문을 통해 한 차례 깨우침을 주셨는데, 이제 그가 또 잘못된 질문을 하니 다시 한 번 핵심을 유도하는 질문을 통해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예화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즉, 율법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아직도 좀 배웠다는 사람의 ‘먹물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웃의 ‘개념’을 묻는 ‘관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쉽게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너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즉, 율법교사는 “이웃이 누구인가”(29절)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인가”(36절) 라고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인가”는 관념적인 질문이라면,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실천적인 질문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sup>15</sup>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 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sup>16</sup>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sup>17</sup>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약 2:15-17).

뉴욕 맨하탄의 한 흑인 거지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단체를 만들어 내 배고픔에 대해 토론해 주었소.

정말 고맙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은 조용히 교회 안으로 들어가 내 석방을 위해 기도해 주었소.

정말 잘한 일이요.

내가 몸에 걸칠 옷 하나 없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외모에 대해 도덕적인 논쟁을 벌였소.

그래서 내 옷차림이 달라진 게 뭐요?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 꿇고 앉아 신에게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을 기원했소.

하지만 난 당신이 필요했소.

내가 집이 없을 때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한 신의 집에 머물라고 내게 충고를 했소.

난 당신이 날 당신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 주길 원했소.

내가 외로웠을 때 당신은 날 위해 기도하려고 내 곁을 떠났소.

왜 내 곁에 있어 주지 않았소?

당신은 매우 경건하고 신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 같소.

하지만 난 아직도 배가 고프고, 외롭고, 춥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소.

당신은 그걸 알고 있소?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일 수 없습니다. 위선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즉 지금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37절)입니다. 관념을 넘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네 주위를 둘러보아라.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더 이상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쓸모없는 질문에 사로잡혀 시간 낭비하지 말라. 지금 당장 저들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영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영생은 지식이 아니고 삶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 **적어도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은 살립시다**

오늘 이 지구상에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지금 당장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굶주림,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살아있는 성녀라고 불렸던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와 나를 늘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나는 평범한 인간이고, 그녀는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런 구분은 그녀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나는 그녀처럼 살 수 없다’, 또는 ‘나는 그녀처럼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다음 한 마디는 우리의 숨은 뜻을 드러나게 하고

나아가 우리를 꿈쩍 못하게 만듭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면  
난 4억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힘으로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작은 힘으로도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World Vision, Compassion, Good Neighbors 등 지구촌 아동결연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단체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단체들은 월 3만원, 하루 1,000원의 돈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전 지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커피 반잔 값만 절

약해도 죽어가는 한 어린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어린이의 미래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매 끼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움큼씩 덜어내어 따로 보관했다가 주일에 정성스럽게 찹겨 교회에 봉헌했던 쌀을 성미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넉넉한 가운데 성미를 덜어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저들의 배고픔에 연대하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쌀을 덜어냄으로써 내가 조금 배고프겠지만, 그래도 기꺼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매 끼니 때마다 식탁에 놓인 돼지 저금통에 1,000원씩 집어넣음으로써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어 보십시오. 식사 때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후원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사랑 바이러스가 나를 넘어 우리 식구 전체로, 우리 식구를 넘어 전 지구적 차원으로 번져가게 해 보십시오.

성미는 ‘정성 성(誠)’ 자에 ‘쌀 미(米)’자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정성스런 쌀이 아니라 거룩한 쌀, 성미(聖米)였고,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은 ‘죽임’이 아니라 ‘살림’으로 ‘영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오늘 당장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 참된 섬김의 길

<sup>38</sup>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sup>39</sup>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sup>40</sup>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sup>41</sup>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sup>42</sup>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 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눅 10:38-42)

### 말씀이 섬김보다 중요하다?

오늘의 복음말씀은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긴 여행 중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예수님의 일행이 어떤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습니다. 모든 가정주부가 그렇듯이 마르다는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오자 갖가지 시종드는 일로 바빴습니다. 특히 음식 준비하는 일로 경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동생 마리아는 그런 자기를 도울 생각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공주처

럼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나?’ 아마도 마르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생 마리아에게 몇 번 눈치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얌체같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다. 참다못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다가가 자신을 좀 거들도록 마리아를 타일러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신도들은, 특별히 봉사에 열심인 분들은 이 장면에서 마르다가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났겠는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의 예상을 뒤집어엎는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타이르거나 야단치기는커녕, 오히려 마리아를 편드시고 마르다를 나무라듯이 말씀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42절) 예수님의 이 대답은 스스로를 마르다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왜 마르다의 입장을 배려해 주지 않는지 섭섭하고 야속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흔히 이 이야기는 ‘말씀’과 ‘섬김’ 중에서 말씀의 우선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왔습다. 말씀과 섬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택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말씀과 섬김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조점이 있다면 ‘섬김의 실천’ 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였고, 몸소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식사 시중을 드셨으며, 십자가에서 온몸을 섬김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더구나 이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섬김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해 도망친 제사장과 레위인에



게 부족한 게 말씀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물었던 율법학자에게 부족한 게 말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아니라 섬김과 실천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야속하게 여기리만큼 마리아가 참 좋은 몫을 택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찾아봄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 자신을 섬긴 마르다

“참된 섬김의 길”이란 오늘의 증언제목이 나타내듯이, 저는 오늘의 복음 말씀이 ‘말씀’과 ‘섬김’ 중에 ‘말씀의 우선권’을 주장하는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비추어 볼 때, ‘말씀’과 ‘섬김’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조화’와 ‘균형’의 문제였습니다. 섬김 없는 말씀은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는 것과 같고, 말씀 없는 섬김은 머리는 없고 몸통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비정상이고, 생명이 없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섬김’,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며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화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왜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참된 섬김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섬김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마르다를 통해서 참된 섬김의 길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마르다의 ‘행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행위, 즉 마르다에 해당하는 동사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8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

서 들었습니다.” 40절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즉 “다가가서” 말하였다고도 합니다. 또 41절에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는 새번역 성경이 40절에서 “와서”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와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에피스타사’(epistasa)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헬라어에 ‘에프스토스’(epistos)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는 ‘스스로를 남들 위에 내세우는 사람’, ‘나서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서는 사람’, 혹은 더 심하게 말해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마르다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자기 집에 모셔 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활동적인 성격은 요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마르다와도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위독할 때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고(3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중을 나갔으며(20절), 마중 나가서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한 자기 의견도 피력했습니다(24.27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 활동적인 성품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정도의 지나침은 화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기’ 원하는 만큼 또 남에게도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남이 ‘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심각한 관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하고, 남이 하는 일보다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나아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의식합니다. 본문 40절 중반절의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불만 표시’는 마르다가 능동적인 것의 도를 넘어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의 행사는 마침내 예수님에게까지 미칩니다. 본문 40절 하반절에 있는 “내 동생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분명히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명령하고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섬김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세우다보면 어느새 마르다처럼 주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진정한 섬김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님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남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를 섬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도 참 많음을 봅니다.

## 무언가를 ‘하기’ 위해 분주했던 마르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섬기는 좋은 몫을 택했으면서도 왜 주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라는 40절 상반절의 증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분주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 마귀회의가 열렸답니다. 거기에서 인간을 유혹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었는데 1등으로 채택된 안은 “인간들의 시간을 뺏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을 하찮은 일에 바쁘게 만들어 하나님과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마귀들이 논의한 구체적인 예는 이렇습니다. 돈을 마구 쓰게 하자는 안, 부인들과 남편들을 과도하게 일하도록 유혹하여 삶이 공허해지게 하자는 안, 운전할 때 라디오나 CD를 틀도록 피고 집에서는 늘 TV와 PC를 틀게 하자는 안, 그리고 각종 잡지와 신문을 통해 하루 24시간 뉴스를 보게 하고 운전할 때마다 광고판이 눈에 들어오게 하자는 안, 우편함을 시시한 우편물과 카탈로그와 광고물 그리고 각종 뉴스레터와 헛된 꿈을 꿀 우편물로 넘치게 하자는 안, 잡지와 TV에 날씬하고 아름다운 모델들을 등장시켜 아내가 싫증나게 하자는 안, 과도하게 휴가나 오락, 스포츠, 연극과 영화를 즐기게 만들자는 안, 삶을 수많은 좋은 일들로 북적이게 하여 그들이 예수의 능력을 구할 시간을 주지 말자는 안 등등이 논의되고 마귀들은 각자의 임무를 위해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을 나가고 이러한 악마들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은 ‘바쁘다’(busy)라는 영어 단어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B」-Being: 존재하다

「U」-Under: 아래에

「S」-Satan: 사탄

그렇습니다! 현대의 특징 중 하나는 바쁨입니다. 분주함입니다. 현대가 바쁜 이유는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바빠지고 더욱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지는 속도보다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유하려해서는 결코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여유란 필요한 것을 소유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자유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섬김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남을 심판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사랑도 용서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봉사하라와 같은 명령에 시달리며 삽니다. 사랑하려 애쓰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려 애쓰는 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화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무능을 발견하고 점점 더 실의에 빠집니다. 또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것만큼 남에게도 ‘하기’를 강요해, 알게 모르게 남에게 은근한 폭력을 가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남을 심판하게 됩니다.

진정한 섬김은 이렇듯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능동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의 힘’에서 나옵니다. 참된 섬김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섬기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열병에 걸려 누운 베드로의 장모 같아서, 주님께서 먼저 당신 손을 우

리 손에 대시지 않는 이상 ‘자기 섬김’의 ‘열’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올바르게 섬기라고 내 손을 만져 주시고 내 발을 씻어 주신다면, 비로소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일어나 그분의 시종을 들게”(마 8:15) 되는 것입니다.

## 주님 위주로 섬긴 마리아

마리아는 지금 주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도록 허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되, 자기 위주로 하지 않고 주님 위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음식을 대접받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과 융성한 귀빈 대접에 목말라 그곳을 방문하신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명 곧 복음 선포,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 집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접대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접하려고’ 방문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리 내가 원하는 접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접대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섬김은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

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능동적이지 아니라 수동적이 되어야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말씀을 사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섬김에 앞서 말씀을 택한 마리아를 두둔하신 것입니다.

### **우리는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너는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를 물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너는 마르다처럼 섬기는가, 아니면 마리아처럼 섬기는가”의 물음이었습니다. “섬김”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섬김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섬김은 남을 섬기는 참된 섬김이고, 어떤 섬김은 남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릇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 왔는지, 주님이나 교회 위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였다고 판단되시면, 자기 위주가 아니라 주님 위주로 교회 위주로 섬기는 새로운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진정으로 서울에서 주님과 이웃과 사회를 제일 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sup>1</sup>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sup>2</sup>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sup>3</sup>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sup>4</sup>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sup>5</sup>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세 개를 꾸어 주게. <sup>6</sup>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sup>7</sup>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sup>8</sup>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sup>9</sup>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sup>10</sup>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sup>11</sup>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sup>12</sup>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sup>13</sup>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눅 11:1-13)



## 양의 변화가 질의 변화를 가져온다!

성서일과표에 따른 오늘의 복음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기에 누가는 자신이 수집한 기도에 관한 여러 전승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 전승들은 모두 네 가지인데, 1-4절의 “주의 기도”, 5-8절의 “친구의 간청을 들어주는 사람의 비유”, 9-10절의 “청하면 들어주신다”는 단절어, 그리고 11-13절의 “아들의 청을 들어주는 아버지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에는 “기도”라는 큰 주제 아래 네 개의 서로 다른 전승들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각각의 전승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바를 풀이해서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설교 제목대로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 하자”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소켓(socket)이라면 우리는 플러그(plug)입니다. 기도는 소켓에 플러그를 끼우는 행위입니다. 플러그를 소켓에 끼워야 전기가 통하고 가전제품이 비로소 작동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가전제품은 무용지물이듯이,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양적인 기도생활, 그러니까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부터 질적인 기도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선 양적인 기도생활이라도 열심히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약한 게 인생이고 부족한 게 인간인지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청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도 양이 쌓이면 언젠가는 질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우선 살이 찌고 나서 그 다음에 쑥쑥 키가 크지 않습니까? 물을 끓여보면 섭씨 100도에 이르기까지 액체 상태이다가 100도가 되면 수증기가 되어 기체로 증발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생활이 쌓이면 언젠가는 질적인 비약을 하게 되고, 마침내는 올바른 기도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질적인 비약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평생을 진보 없이 그 신앙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좀 더 빠른 기도생활의 진보를 바라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의 기도생활에 적용한다면 분명히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기도는 대화다” 하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기도는 대화다”라는 정의가 짧지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monologue’가 아니라 ‘dialogue’입니다. 일방 전달이 아니라 쌍방 교신입니다.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 맨 앞에 “아버지여” 하고 대화 상대자인 ‘하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눅 11:2).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대화가 아니고 독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할 말을 했으면 이제 잠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라는 것이 성립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기도할 때, 1분 말했으면 1분간 침묵하고, 5분 말했으면 5분간 침묵하십시오.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꾸 훈련하다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대화하는 단계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잡념을 없애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뭔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그게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깊은 내면에서 울리는 자기 양심의 소리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무슨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에다 대고 다시 말을 하십시오. 대화, 즉 이야기 주고받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그게 누구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본문 11-12절의 말씀,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낮은 단계에서는 내가 A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A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A를 구했는데, B를 주시기도 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깊은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주님에게서 들은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을 그대로 갖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의 기도 끝에 이 응답을 듣고 병 고치기를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 소원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으려고 노력했기에 그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독백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과 대화는 그의 믿음에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A를 청했을 때 A를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 받은 응답은 그냥 질병을 가진 채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A를 청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바울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약점이었던

것이, 부끄러움이었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강점이요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A를 청했을 때 A를 주시리라 믿었지만, 이제는 A를 청했을 때 A가 아닌 B나 C를 받든,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자기가 청한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의 믿음이 진보한 것입니다. 독백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그가 변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되, “기도는 대화다”란 진리를 꼭 “의식”하고 “의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을, 가족과 친지와 교우와 기타 여러 사람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 전승들 중 두 번째 이야기, 즉 “친구의 간청을 들어주는 사람의 비유”가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비유는 “우리가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성가시게 졸라대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풀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난센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칼을 갖고 놀겠다고 졸라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가시게 졸라댄다고 위험한 칼을 자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달란다고 무엇이나 다 주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참 뜻은 다른 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한 사람은 ‘양식’(糧食)이 없어 죽어 가는 친구요, 다른 한

사람은 ‘양심’(良心)이 없어 죽어 가는 친구였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먼 길을 여행한 후 자기 집에 와 쓰러진 친구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염치 불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려 이웃을 찾았으나, 그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양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자는 양식을 구해다 주어 살렸고, 후자는 양심을 깨워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렇듯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독백은 나만 살리지 남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아니 사실은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합니다. 독백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고, 나를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는 대화다”란 진리를 꼭 “의식”하고 “의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이웃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도는 나 자신과의 대화이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마 6:8).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말입니다! 더구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3

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요 10:38)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10:30)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과의 대화가 기도였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기도란 일종의 ‘자기 성찰’입니다.

저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입술’로 드리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입술’로 간구하는 기도는 기껏해야 우리 ‘머리’에 다다르지만,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 ‘양심’에까지 다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좋은 점수를 받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였다면, 그 학생은 곧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는데, 너는 어찌 공부하는 하나도 안하고 좋은 점수만 받기 바라는가?”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그 학생은 자기가 드린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차원이 되면 삶이 곧 기도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 9-10절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못 받고, 못 찾고, 안 열린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받으려면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떼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바람을 하나님께

청원했다면 그 바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받고자 하면 먼저 구하라, 즉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입술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기도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동시에 양심을 통해 과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딸로 살고 있는가?”를 성찰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 사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물질만능의 나라를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뿐이 아닌 내일, 나아가 죽을 때까지 편히 살 재물을 쌓아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십시오. 이렇듯 우리가 입술의 기도가 아닌 마음의 기도를 드리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결국에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드린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의식하고 의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드린 기도에 나 스스로를 비추어보며 성찰해야 합니다. 그 성찰에 기초해서 내가 드린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변합니다. 젃먹이 신앙인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고, 날마다 하나님께 조금씩 다가가고, 조금씩 닳아가고, 조금씩 사림의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날을 꿈꾸며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 어리석은 자여...

<sup>13</sup>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sup>14</sup>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sup>15</sup>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sup>16</sup>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sup>17</sup>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sup>18</sup>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공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 두겠다. <sup>19</sup>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sup>20</sup>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sup>21</sup>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 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눅 12:13-21)

### 원숭이 사냥법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 가운데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은 ‘원숭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원숭이를 손쉽게 잡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원숭이 사냥법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죽으로 자루를 만들고, 그 입구를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루 속에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넣어서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나타나 자루 속을 들여다보다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좋아서 날뛵니다. 그리고는 “얼씨구냐!” 하면서 자루 속에 손을 집어넣어 과일을 꺼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의 손은 자루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자루 속에 집어넣은 손에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움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는 손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과일을 꼭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원주민들이 나타나 자루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원숭이를 쉽게 잡습니다. 그런데도 원숭이는 원주민들이 자기를 잡기 위해 오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손에서 과일을 놓지 않기 때문에 원숭이는 잡혀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다른 동물들보다 영리하다고 하지만 가장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손에 쥔 먹이를 놓기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움켜쥔 과일을 포기하면 살 수 있는데, 원숭이는 어리석게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놓여 있는 과일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원숭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무엇입니까? 살 수 있는데도 원숭이는 왜 죽음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먹이에 대한 집착, 자신의 손안에 움켜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 원숭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 너무도 어리석은 부자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이 미련한 원숭이와도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이 미련한 원숭이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제 스승이신 안병무 선생님께서 이 비유를 조금 각색해서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로 꾸민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땅 전체가 모두 그 지주의 것인지라 그 마을 사람들은 몽땅 그의 농노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종들 외에는 소작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모두 그 지주의 땅에 예속되어 있었기에 그의 눈 밖에 나면 언제라도 굶어죽어야 하는 판이니 노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춘궁기가 오면 먹을 것이 없어 곡식을 빌려야 하고, 가을이 되면 두 배로 갚아야 하니 모두 그 지주의 채무자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그 지주는 고래 등 같은 기와집 주위에 뽕 둘러 지은 창고에 곡식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모두 농부들이 피땀 흘린 결과물들이었지만, 정작 소작농들은 그 곡식에게서 소외당했습니다. 모든 수확을 지주의 창고에 채우고, 그 중에서 지주가 조금씩 시혜를 베푸는 것에 매달리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왕창 풍년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먹고 빌려주어 줄어들었던 곡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곡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뜻밖의 풍작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던 그는 주체할 수 없이 밀려드는 이 곡식들을 어떻게 할까가 고민이었습니다. 궁리 끝에 그는 집 주위에 또 한 겹 둘러 공간을 짓기로 했습니다. 마침

내 그는 겹으로 지어진 곳간으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곳간마다 큰 자물쇠로 잠그고 난 다음 너른 대청에 앉아 긴 담뱃대를 꼬나 문 그는 이렇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 기쁨을 뉘게 말할까? 동생 녀석에게 말할까? 자식들에게 말할까? 맨날 내 물건 훔쳐낼 생각 아니면, 내가 죽을 날만 고대하는 그놈들에게? 당치도 않는 소리! 아니다. 나는 나에게 말하는 수밖에. 나에게도 속나 걸나가 있지. 걸나는 위험한 것. 그러니 속나에게 말해 야지. ‘내 속나(혼)야! 여러 해 동안 아무리 흥청거리며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 많은 물건들이 가득 가득히 쌓였으니 너는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할 것 없다. 파수꾼을 돌려 세웠으니 도둑놈이 들거냐, 관가에 찔림이나 건넸으니 저들의 노략질이 걱정인가. 곳간마다 자물쇠로 잠그고 이렇게 열쇠가 내 허리에 채워져 있으니 집안 도둑이 걱정이나. 형편이 이러하니 안심하고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거라.’”

“여봐라 술상을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 들여오너라! 그러나 동생 녀석, 아들놈들 그리고 여편네 따위와 술상을 함께 할 수는 없다. 이미 저들과 원수 된지도 오래고, 또 그래서 저들이 내 물건에 얼씬도 못하게 된 판인데 저들에게 인정을 베풀 수는 없는 노릇.”

그는 홀로 앉아 술을 마시고 진수성찬을 마구 물고 뜯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한 것이 배때기였습니다. 그놈이 너무 작아서 그 많은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상을 물려 허기진 아랫놈들이 달라붙어 먹는 꼴을 볼 수도 없는 노릇. ‘할 수 있는 대로 썰어 놓자. 배가 고무풍선이 될 수도 있는 법.’

마침내 뱃속이 편치 않더니, 아래 위 옆 모두가 꽉 막힌 듯 속이 뒤집히고 뱀이 쪼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소리칠

까 하다가 그 소리에 장단 맞춰 얼씨구나 춤을 출 식구라는 것들 꼴이 눈앞에 생생해서 그는 혼자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나는 이제 죽는다. 죽어? 죽다니 그러면 이 재산들은 다 어찌지? 저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내버린다는 생각을 하니 사는 시간만 단축될 것이고, 그러나 어찌하랴, 우선 살구 봐야지.’ “여봐라 나 죽는다. 의원을 불러오너라.”

그러나 불려온 의원은 단 한마디 “당신은 오늘밤을 못 넘기오”라는 말만 던지고 가 버리지 않네! “내 재산의 절반을 주어도 나를 못 살리겠느냐? 저 공간을 봐라!” 의원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습니다. ‘하하! 저 물건들이 다 뭐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죽으면 결국 내 원수 같은 저것들이 다 뺏어 가겠구나!’ 그 생각에 미치자 그는 갑자기 눈이 뒤집히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 왜 이 부자는 어리석은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주를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왜 어리석습니까?

첫째, 그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소유는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바로 그가 그토록 믿었던 소유가 실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소작농이었던 동네 사람들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를 섬기는 종들과도, 나아가 그의 가족과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홀로’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비록 짧은 이야기이긴 하

지만, 거기에는 ‘부자’ 외에 그 누구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 소출, 내 공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등등, 온통 ‘나’뿐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하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를 ‘홀로’이게 한 것은 바로 그 풍요한 소유입니다. 언뜻 보면 그가 재물을 소유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가 재물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그는 추수한 곡식들을 성벽처럼 둘러놓고 그 안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그를 포위하여 그의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소유에 갇힌 죄인입니다. 더욱이 그는 여럿이 함께 갇힌 것이 아니라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는 배가 터져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은 홀로 일 수 없습니다. 생명이란 바로 ‘더불어’만 생존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차단,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을 몰랐기에 그는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둘째, 그는 시간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는 다른 것은 다 잘 계산했는데, 자기가 가진 시간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가 결정적으로 어리석은 것은, 시간이 자기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그는 시간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에 쌓여 놓듯이, 자기 시간도 공간에 넉넉히 쌓아 놓고 사는 줄로 여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진실일 뿐이지 주관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은 자신이 죽으리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닌 어리석음입니다.

## 미루지 마십시오!

언젠가 류시화 시인이 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란 수필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의 한 유대인 마을에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자식을 키웠으며, 가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각자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기 전에 성지순례를 한 번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앉으면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올해는 꼭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지. 더 나이 먹기 전에 다녀와야겠어.” 그러면서 그들 각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낳으면 꼭 가야지. 소가 배가 잔뜩 불러 있으니 떠날 수가 있어야지.” “난 신고 갈 구두가 없단 말야. 구두만 사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꼭 가겠어.”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난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냥 갈 순 없어. 멋진 노래를 부르면서 가야지. 그런데 내 기타 줄이 끊어졌단 말이야. 기타 줄만 갈면 떠나야지.”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성지순례를 떠나지 않았습다. 그리고 얼마 후 독일군이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의 유대인들은 모두 집단 수용소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은 발가벗긴 채 가스실로 향하며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집 소가 계속 새끼를 낳았는데도 난 성지 순례를 떠나지 않았어. 그때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가지 않았어.” “난 구두가 없다는 핑

계로 가지 않았어. 고무신을 신고서도 갈 수 있었는데 말이야.” 음악가가 말했습니다. “난 기타 핑계를 댔지. 기타 줄이 없으면 성지순례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했어. 그냥 노래만 부르면서 갈 수도 있었거든.” 그들은 다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때 갔어야 하는 건데! 이 미 때는 늦었어!”

이 지구의 동식물들 중에서 ‘미루는 것’을 발명한 것은 인간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나무도, 어떤 동물도 미루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미룹니다. 오늘은 나를 위하고 내일 가서 남을 위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손을 움켜진 사람은 내일도 그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자기 재산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은 내일도 그 올라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물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꼭 움켜쥐고 손을 펴지 못한다면, 자신을 전혀 비워 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한순간에 끝장날지 모를 일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입니다.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말입니다.

## **삭개오처럼 오늘 여기에 구원이 임하길**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삭개오도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로지 자기 재산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었고 오직 재산을  
늘려 나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오늘 비유  
에서의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  
님께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먹은 것이 있다면 그 네 갑절은 갚아 주겠습니  
다”(눅 19:8)라고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와는 달리 재물에 집착하지 않  
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재산을 꼭 움켜쥐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움켜  
진 손을 펴서 내어놓을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미련한 원  
숭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눅 19: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움켜진 손을 펴서 이웃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삭  
개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재물 대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  
다. 따라서 재산을 꼭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고 재물에 집착하지 않을  
때, 자기의 것을 나누고자 할 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다  
운 재산, 참다운 풍요로움, 바로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sup>32</sup>“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sup>33</sup>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남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sup>34</sup>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눅 12:32-34)

### 예외는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눅 12:32). 오늘 복음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왜? 비록 우리는 적은 무리의 양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당신의 나라를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은 특수한 공동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기쁜 소식, Good News, 복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문 바로 앞에는(눅 12:22-28)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근심하

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 이고(28절), 그래서 “이방 사람들”(29절), 즉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32절)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업적(work)에 대한 보상(reward)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총입니다.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되, 역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주신다고 예수님은 지금 힘주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두,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인간적인 걱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공덕을 쌓은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감사와 찬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 중생의 경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기쁜 소식, Good News, 복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barometer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경험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자녀를 키워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가면 아이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손에 꼭 움켜잡니다. 만약 장난감 가게였다면 갖고 싶은 장난감을 꼭 움켜잡니다. 고집 센 아이는 부모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손에 움켜쥔 것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돌아다니다가 더 맛있는 것, 더 갖고 싶은 장난감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에 꼭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새 것을 움켜잡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구원을 한번 경험하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손에 꼭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것들을 저절로 내려놓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아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좋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중생’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중생(重生)—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말 ‘태어난다’는 말은 “태(胎)에서 나온다”는 말입니

다.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있었던 아기가 약 10개월쯤 자궁에서 지내다가 바깥 세상에 나오는 것이 ‘태에서 나오는 것’, 즉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에서 나온 아기는 반드시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탯줄을 자르지 않는 한 그 아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생명줄이었던 그 탯줄을 끊음으로써 비로소 아기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새로 태어나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한 생명줄, 즉 탯줄을 끊고 새로운 생명줄에 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이요, 거듭남이요, born again, re-born입니다.

김용석 시인의 동시 중에 <가을이 오면>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꽃이에요  
앞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지요  
그래도 난 잃는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이 아름다운 시처럼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주고, 가을이 왔을 때 더 많은 열매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한 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추구하는 것도 한 때입니다. 순간(瞬間)이요 찰나(刹那)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질없는 것에 영원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인간적인 걱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진리에 투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란 것입니다(요 8:32).

## 네 영혼이 은총 입어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번역본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들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가톨릭 새성경). 지금 여러분을 향해 햇빛처럼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곡이 있습니다. 새 찬송가에는 438장에 있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 참 맛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기꺼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가게 될 환상적인 내세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세에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내세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함께 계심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 **너희도 주기를 기뻐하라!**

이렇듯 은총을 체험하면 우리 삶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은총 체험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라는 말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인가가 더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적인 삶은 우리를 받아들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변화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발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가진 것을 은혜로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주변에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 우린 내 삶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생명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건강, 재능, 물질, 명예, 지위 등등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 없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신앙인은 인생을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인생을 사는 자세의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이나 지위를 얻으면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 앞에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재물과 지위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 마음껏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인은 아버지가 베푸셨기에 다른 형제들을 위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은 베풀어야 하고, 지위는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덕분에 자기 한 사



람 잘 될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잘 바치는 자를 잘 되게 해 주는 이 세상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공양미 삼 백석을 바쳐야 심 봉사의 눈을 뜨게 해주는 심청전의 용왕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듯이 대가 없이 당신의 나라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과응보의 원리 따라 베풀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녀를 더 사랑하고 실패한 자녀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 모두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며, 자녀 모두가 훌륭히 살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 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서, 은혜로 우신 당신의 자녀로 살 것을 원하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생명을 연장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모습을 역사 안에 지속시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일을 실천합니다. 가진 것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은 하나님이 높고 두려워서 그분께 빌고 바치는 노예가 아닙니다. “기꺼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에 그 사실을 자기의 실천으로 당당하게 나타내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그렇게 살아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려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분을 배워 실천할 때, 그 실천의 원천으로 우리 안에 확인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삶을 사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 군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sup>26</sup>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달았다. <sup>27</sup>예수께서 물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sup>28</sup>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sup>29</sup>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 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sup>30</sup>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sup>31</sup>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sup>32</sup>마침 그 곳 산기슭에, 놓아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sup>33</sup>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 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sup>34</sup>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sup>35</sup>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sup>36</sup>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sup>37</sup>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

는데, <sup>38</sup>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sup>39</sup>“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알이 온 읍내에 알렸다.(눅 8:26-39)

## 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제일교회의 새 담임목사 정원진입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니시카타마치교회와 교우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빕니다. 제가 진작 인사드리러 왔어야 했는데, 이제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월 6일 주일에 서울제일교회의 제6대 담임목사로 취임했습니다. 그 때 야마모토 유지 목사님과 츠부라야 메구미 상이 니시카타마치교회를 대표해서 친히 방한하여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와 서울제일교회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5월 중에 방일하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 아내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오늘에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아내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또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 방문이 늦어진 덕분에 저와 제 아내는 물론 제 두 아들들도 함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제일교회와 니시카타마치교회가 자매결연을 한 것이 지난 1975년 5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두 교회는

강산이 4번씩이나 변하는 동안 변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서울제일교회의 제6대 담임목사로서 우리 두 교회가 지난 41년 동안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자매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두 교회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실현을 위해 굳게 맞잡은 손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 보태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8.15와 정명(正名)

마침 제가 방문하여 설교하는 오늘을 니시카타마치교회는 ‘평화주일’로 지킨다고 들었습니다. 서울제일교회는 오늘을 ‘평화통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8월 15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8월 15일을 ‘광복절’(光復節)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같은 날을 ‘종전일’(終戰日)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복절’과 ‘종전일’이라는 두 이름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光復)’은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언어적 표현이 과연 한국(조선)인들에게 옳은 개념일까요? 한(조선)반도의 해방은 곧바로 ‘분단’과 ‘적대’로 이어졌고, 남한은 또 다른 외세인 미국에게 예속된 것이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8.15가 어찌 한국(조선)인들에게 진정한 광복이요 해방일 수 있겠습니까!

또 일본이 쓰고 있는 ‘종전’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종전’이라는 표현은 “전쟁이 끝났다”는 뜻밖에는 없습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누가 누구하고 싸웠는지,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 전쟁도발의 책임자

는 누구인지, 전쟁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있었는지 등등의 문제들이 모호해지고 유야무야되고 맙니다.

이와는 달리 ‘패전’이라는 표현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의 원인과 결과도 밝혀질 것입니다. 또 전쟁을 일으킨 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전쟁에서 항복한 쪽은 전쟁의 아픔을 회상하거나 다시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는 반성을, 적어도 후회하는 심정이라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을 공식적으로 ‘패전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굳이 중성적(中性的)인 낱말을 써서 ‘종전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공자(孔子)의 『논어(論語)』에 “정명”(正名)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제자가 공자에게 “정치의 요체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이름을 바르게 지어서 바른 이름을 쓰는 것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정명’(正名)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이름은 바른 인식을 낳고, 올바른 가치판단을 낳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이름은 그릇된 인식을 낳고, 왜곡된 가치판단을 낳습니다. 그래서 ‘바른 이름 짓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첫 단추와 같습니다. 만약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는 다 허사입니다. ‘광복’이나 ‘종전’은 결코 바른 이름, ‘정명(正名)’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이름, ‘오명(誤名)’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와 한일 문제는 바로 이 ‘정명(正名)’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평화’라는 말에 대한 오해**

제가 지금까지 오명(誤名)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오해

(誤解)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못된 ‘이름’이 있듯이 잘못된 ‘이해’도 있습니다. 저는 ‘평화’라는 말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이라는 뜻을 ‘평화’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작년 오늘, 그러니까 2015년 8월 14일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소위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 담화에서 분명히 ‘평화’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에 그 말은 ‘전쟁’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적극적 평화주의’란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고, 또한 신미일방위협력지침(新日米防衛協力指針)을 개정하면서 내건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평화 이해는 그만의 오해가 아닙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평화를 그렇게 이해해 왔던, 아니 오해해 왔던 사람들이 있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의 평화, 파스 로마나(Pax Romana)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안보와 직결됩니다. 저들은 모든 적대자들을 전쟁을 통해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그 폭력적인 승리를 통해 얻은 안정을 평화라 불렀습니다. 즉 힘의 절대적 우위에 기초한 전쟁이 없는 상태, 전제적(專制的)인 지배의 결과로 피지배자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굴복한 상태가 저들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전쟁의 준비는 평화를 지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다”라고 주장합니다. 한 마디로 저들의 말하는 “평화는 힘(Power)의 자손”입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평화는 껍데기이고 알맹이는 바로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실상 ‘힘의 숭배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

셨습니다(요 14:27). 이 말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평화, 즉 로마의 평화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평화와 다른 그리스도의 평화, Pax Christi는 과연 무엇일까요?

##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의 복음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39절입니다. 거기에는 거라사 광인이 고침 받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거라사 지방에 당도했을 때, 거기에서 귀신들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서 살았는데, 여러 번 발작을 일으켜서 사슬로 단단히 묶인 채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번이 괴력을 발휘해서 사슬을 끊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귀신은 자기 이름이 ‘레기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희랍어 ‘레기온’은 6천명이 모인 로마군대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쫓아낼 것이면 들판의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고,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군대 귀신은 돼지 떼로 들어갔고 귀신들린 돼지 떼는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집단자살을 감행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이를 보고 놀라 동네로 달려가 벌어진 일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달려와 보니 돼지 떼는 온데간데없고 귀신들렸던 사람만 멀쩡한 정신으로 앉아있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예수님께 마을을 떠나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네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돼지 떼가 몰살했다는 사실과 귀신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사실을 확인한 후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37절) 예수님에게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군대 귀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렸던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에게 큰 두려움을 느껴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동네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은 동네사람 모두였던 것 같습니다. 동네사람들은 귀신들린 사람을 쇠고랑과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힘을 힘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제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번번이 괴력을 발휘해서 사슬을 끊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런 대처는 전쟁을 억제하려고 자꾸 무기를 만드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힘을 통해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힘의 숭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돼지 떼를 몰살시켰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군사력도, 경제력도 모두 물리치셨다는 말입니다. 힘이 있어야, 군대가 있어야, 재물이 있어야 그것이 평화든 안정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를 수 있는데 그 힘을 없애버렸으니 저들은 결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mammon(재물의 신)을 함께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마 6:24). 이렇듯 힘을 숭배했던 저들 역시 군대 귀신에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런데 문제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만 ‘힘의 숭배자’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우리 역시도 (본인이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사실상) ‘힘의 숭배자’입니다. 더구나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힘의 숭배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패권국인 미국은 대표적인 힘의 숭배자입니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미국 이상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군사력은 자신이 가지면 ‘선’이고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남이 가지면 ‘악’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는 것을 그토록 싫어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멈추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군사력을 통해 미국이 자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 바탕에는 힘의 숭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한이 북한에 맞서서 매년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이제 미군의 사드(THAAD)까지 배치하려는 것, 일본이 지난 3월에 전쟁법인 안보법을 발효하고 나아가 평화헌법까지 개정하려고 하는 것 역시도 전쟁준비를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힘의 숭배’가 그 본질입니다.

하지만 무기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군사력 증강을 통해 이루려는 평화는 거짓 평화요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힘에 힘으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결국 폭력의 악순환만 계속될 뿐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자비한 테러가 그 생생한 증거들 아닙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 악만 확대재생산 될 뿐입니다.

그런데 힘에 힘,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로마의 평화와 다른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힘을 추구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증강이 살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에 편승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힘이 최고다. 힘이면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해방되라고 하십니다. ‘힘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자’가 되라 하십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수동적으로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항하되, 철저히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라고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와 니시카타마치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평화의 파수꾼이 되고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 두 교회를 부르시고 자매결연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말씀을 통해 군대 귀신에게 해방된 사람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라”(39절)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알이 온 읍내에 알렸습니다”(39절). 우리도 지난 41년간 일본과 남한에서 부족하지만 증언자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더욱 엄중히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꺼이 함께 손을 잡고 그 사명을 감당 하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세상 끝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 닫힌 종교, 열린 종교

<sup>10</sup>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sup>11</sup>그런데 거기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sup>12</sup>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sup>13</sup>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sup>14</sup>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옛새가 있으니, 옛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sup>15</sup>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sup>16</sup>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열여덟 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sup>17</sup>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눅 13:10-17)

### 모든 종교는 다 좋다?

오늘 주일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즉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계신 분들일 줄 압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놓고 많은 논쟁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요, 수학자 겸 철학자였던 파스칼도 이 문제에 관해 논쟁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도저히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어차피 일종의 ‘도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경우에 신이 존재한다는 쪽에 거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데 걸었다가 설령 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우리로서는 그렇게 큰 밀착을 들인 것이 아니므로 결국 밀쳐야 본전입니다. 반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쪽에 걸었다가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 땐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쪽에 거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이른바 그의 유명한 ‘도박 논증’입니다.

파스칼의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은 적어도 손해 안 나는 쪽에 인생을 건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스칼과는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교종교학자 오강남 교수가 그분들 중 한 분인데, 그분은 350년 전에 살았던 파스칼은 지금 오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직접 볼 수 없었기에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주장합니다.

그분은 우리 주위를 보면, 함부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아무 종교에나 기웃대다가 파리 끈끈이 같은 종교에 빠져 ‘몸도, 마음도, 돈도, 시간도, 가정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를 지적합니다. 이십여 년 전에 미국 텍사스 웨이코(Waco)에서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외치는 데이비드 코레쉬의 가르침에 빠져들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바라던 예수의 재림도 보지 못하고 불에 타 죽고 말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우간다에서 교인 천여 명이 자기들의 종교 때문에 자살하거나 타살되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휴거니 뭐니 하면서 곧 세상이 끝난다고 믿고 따르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위에서 종교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을 여럿 봅니다. 그러니 파스칼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밀져보야 본전이 아니고 아주 신중히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 열린 종교, 닫힌 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서 참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결코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진리에 속아 인생이 속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인 것이 그릇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일은 바로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어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인 것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견해가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 “닫힌 종교, 열린 종

교”라는 말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종교에는 닫힌 종교가 있고, 열린 종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불교는 닫힌 종교이고, 기독교는 열린 종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 내에도 닫힌 불교가 있고 열린 불교가 있으며, 기독교도 이와 마찬가지로 닫힌 기독교가 있고 열린 기독교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힌 기독교인이 되느냐 아니면 열린 기독교인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닫힌 기독교는 무엇이고 열린 기독교는 또 무엇일까요?

저는 열리고 닫힘의 차이가 ‘법’이나 ‘제도’에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사람’에 중심을 두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다녀 온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군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군인을 위해서 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위해서 군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은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옷과 군화를 받았다고 해서 투덜대면 바보가 됩니다. 바보가 될 뿐 아니라 기합 받기 일쑤입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것이 소위 군인정신이고, 자기 몸에 맞는 옷과 군화를 찾지 말고, 군화에 발을 맞추고 옷에 몸을 맞추라는 것이 군대의 논리입니다.

소위 닫힌 종교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닫힌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정한 절대적 권위에 모두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 모든 행동 강령은 이미 다 주어진 절대불변의 것이므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덮어놓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거기에 따라 복이나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나 벌이 내린다는 공식을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제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은 계명이 필

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계(戒)와 명(命)에서 출발합니다.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戒)와 무엇 무엇을 하라는 명(命)이 모든 종교인에게 ‘의무’로 주어집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서지 말라는 것이 바로 계(戒)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짓은 하지 말라. 거기는 발을 들여놓지 말라. 이것이 계(戒)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하라. 한눈팔지 말고 이 길로 정진하라. 여기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명(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은 바로 이런 계(戒)와 명(命)들입니다.

이 율법들은 마치 사고가 잦은 길목에 세워 놓은 위험 표지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위험 표지판이 알리는 한계와 기준은 인간을 속박하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시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표지판은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속박하거나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지판의 안내에 따라 운전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가르치는 계(戒)와 명(命)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戒)나 명(命)’이 곧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곧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 몇 Km 남았음’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곧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로 가는 길’을 ‘서울’로 착각하고, 서울 몇 Km 남았음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서울’로 오해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 생활에 있어서 무엇 무엇을 하라 또는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는 율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절대시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배가 바로 계(戒)와 명(命)입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서 반대편 기슭에 닿은 후에는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율법주의란 반대편 기슭에 닿은 후에도 배를 버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외적 규정에만 치중하는 형식주의와 완고한 마음을 레위기 26장 41절은 ‘할례 받지 않은/못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 아니라 ‘할례 받은 마음’입니다. 여기서 ‘할례 받은 마음’이란 법 ‘조항’이 아니라, 법 ‘정신’을 헤아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열린 종교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 죽은 부처를 산 사람보다 가치 있게 여기다?

어떤 추운 겨울밤에, 한 떠돌이 고행자가 절에 와서 잠자리를 청했습니다. 그 가엾은 사람이 눈을 맞으며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스님이 내키지는 않았으나 그를 들어오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룻밤만 묵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절이지 여인숙이 아니오, 그러니 아침에는 떠나야 합니다.”

한밤중에 그 스님은 톱툰 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법당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법당에서 불을 지펴 몸을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법당 안에 모셔져있던 목조 불상 하나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불상이 어디 있소?” 떠돌이는 불을 가리키더니 말했습니다. “이 추위에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이 외쳤습니다. “정신이 나갔소?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소? 그건 불상이오. 당신이 부처님을 태워버렸단 말이오!”

마침 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떠돌이 고행자는 잿속을 들여다보더니 작대기로 재를 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또 무얼 하고 있는 거요?” 하고 스님이 고함을 쳤습니다. “스님이 내가 태워버렸다고 하시는 그 부처님의 뼈를 찾고 있습니다.”

그 스님이 나중에 어느 선사에게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넨 못된 중이로구먼. 죽은 부처를 산 사람보다 가치 있게 여기다니!”

“죽은 부처를 산 사람보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 말이 제 가슴에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안식일 규정 준수를 주장하는 회당장은 “죽은 부처를 산 사람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죽은 부처보다 산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긴” 분입니다. 안식일 법은 훌륭한 법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은 장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법은 어디까지나 법입니다. 그것이 인간 위에서 인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법이 인간 위에 군림한다면 그 법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합니다.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리 급하지도 않아 보이는 병을, 그것도 본인의 간청이나 친척의 부탁도 없는데, 드러내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막 2:27)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제도나 법보다 인간이 우선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 열린 종교인 박형규 목사님과 우리

우리는 지금 박형규 목사님의 상중(喪中)입니다. 각종 언론들이 박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낸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박 목사님의 삶을 요약하는 많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민주화운동의 큰 별”, “민주화운동의 산증인”, “길 위의 목사”, “행동하는 신앙인”, “춤추는 늘 푸른 청년” 등이 그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하여 박 목사님을 “열린 신앙인”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박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실정법이나 관습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박 목사님이 생전에 벌이셨던 빈민운동, 인권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등의 바탕에는 언제나 ‘사람 사랑’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박 목사님을 보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박 목사님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법보다 사람을 중시하며 열린 신앙인으로 살았으니, 예수를 믿고, 닮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린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닫힌 종교인입니까? 그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촉구하십니다.

##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sup>1</sup>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sup>2</sup>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sup>3</sup>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귀입니다. <sup>4</sup>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일 1:1-4)

### 요한공동체의 혁명적인 주장

오늘 전교인수양회에서 무슨 말씀을 증언할까 고민하다가 성서일과표가 제시한 본문이 아니라 요한일서의 머리말을 본문으로 골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약간의 ‘신학적인’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 서두에서는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요한일서가 요한복음서보다 약 10년 뒤에 쓰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한복음서가 쓰인 것이 주후 90년경이니까, 요한일서는 주후 100년경에 쓰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후 70-80년경에

쓰인 마태·마가·누가 등의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혁명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교리를 당면한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하나도 혁명적일 것이 없지만,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에 이 주장은 굉장히 혁명적이었고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관복음서 가운데 첫 번째로 쓰인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 있는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막 8:27) 이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막 8:28)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막 8:29a) 이에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막 8:29b)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보다 약 10년 뒤에 쓰인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대답이 바뀝니다.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이 마태복음에는 16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초대 교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고백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보다 10년 뒤에 쓰인 요한복음에 가서는 또 달라 집니다.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론은 머리말에 잘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요 1:1).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과 ‘하나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를 보면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장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 체험 이후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가(마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고(마태), 더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요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마지막 고백은 당시 유대교 내에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공관복음서가 쓰일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처럼 유대교의 한 종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부터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는 유일 신앙을 근본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일 신앙이란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신앙입니다.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여호와/야훼 한 분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일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말과 같이 허무맹랑하게 들렸고, 저들이 수천 년 간 믿어온 유일 신앙을 파괴하

는 이단적인 주장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교는 유대 교로부터 추방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가 쓰일 당시에는 이런 상황 게다가 또 다른 상황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 철학과의 충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이념은 그리스 철학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불리던 이 그리스 철학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영(靈)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肉)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육이 아니다. 따라서 육적인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한공동체는 “참 인간 예수가 참 하나님이 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 주장을 더욱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머리말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가? 너희는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은 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 우리는 그에 대해 들어 보았고, 눈으로 보았으며, 심지어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이것이 요한공동체의 주장이었습니다. 말씀을 만져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분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

으로 볼 수도 없으며, 귀로 들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어 보았고, 손으로 만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이것을 선포한다. 이것을 선포하는 목적은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 이것을 알고, 우리와 함께 사귀(코이노니아)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귀는 것과는 다른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이렇듯 요한일서는 그 머리말에서 참 인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은 물론, 그 예수님은 영적인 실재였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실재였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 **우리는 참 사람에게서 참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인 실재였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실재였다는 요한일서의 주장은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참 사람에게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참 인간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요한일서를 탄생시킨 요한공동체의 사람들은 예수운동 1세대, 초대교회 창립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일서는 주후 100년경에 쓰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이 주후 30년경이니까, 주후 100년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 보았던 사람은 아무도 살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학이 고도로 발전해서 인

간의 수명이 고대사회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현대에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고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던 1세기에 90살이나 100살까지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19살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높은 유아 사망률을 반영한 것이지만, 아무튼 당시 사람들은 기껏해야 70세까지 살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였을 당시 10대였고, 또 굉장히 건강했다 하더라도 주후 100년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1세대를 30년으로 잡을 때, 요한일서의 저자는 초대교회 2세대 내지는 3세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보고 듣고 만졌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미 70년 전에 돌아가셨고, 또 그에게서 듣고 그를 보고 만졌던 사람들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일서의 저자가 “우리는 참 사람에게서 참 하나님을 보았다”고 주장한 것은 단지 “우리는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본 “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처럼 살았던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는 비록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작은 단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4장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요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어떤 사랑의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분신을 보았고, 그에게서 듣고 그를 보고 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요 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서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참 사람에게서 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참 사랑은 다름 아닌 ‘사랑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행동으로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고, 나아가 그에게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참 신앙인은 몸과 행동으로 이웃을 내 몸 같이 사

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 때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이 땅의 예수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 조현이 지은 『울림』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가 몰랐던 이 땅의 예수들”이라는 부제 때문이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 “한국의 기독교는 진정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는 소중한 “울림”들을 담았습니다.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에 뜨겁고 커다란 발자국을 남긴 24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취를 복원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다룬 24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유영모 선생님처럼 ‘한국의 기독교 영성가’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의 기독교 실천가’들을 모아 『울림2』가 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문익환 목사님, 홍근수 목사님 등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당연히 박형규 목사님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월 22일 월요일 오전에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고 박형규 목사님의 장례예배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으로 드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상근 목사님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빌 3:17~4: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교회 교인들에게 그랬듯이 고 박형규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목사님은 평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는 사람의 영혼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웃을 못 본 척하면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도 듣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박형규 목사님, 그분은 분명 또 한 명의 이 땅의 예수였습니다.

## **사랑의 사람, 사랑의 교회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살던 중 어느새 예수를 닮아버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면 어느새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 이게 요한일서가 말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도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의 저자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진실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나는 저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을 보았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갈 새 길을 묻다—서울제일교회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전교인 수양회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찾는 길은 새 길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옛 길입니다. 왜? 그 길은 2천 년 전 예수가 걸었던 길이요, 1970-80년대에 고 박형규 목사님과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이 함께 걸었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쉬었던 그 길을 다시 함께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영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작은 사랑부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는 ○○○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어! 우리는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자 목표이고, 삶이자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제자가 되는 길

<sup>25</sup>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sup>26</sup>“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sup>27</sup>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sup>33</sup>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눅 14:25-33)

###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성경을 읽다보면 때론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의 복음 말씀도 그 중 하나입니다.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나아가 33절에서는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못들은 척 회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니면 달리 해석할 구석이 없나 잔머리를 굴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

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제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하는 ‘선택’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장사의 논리에 따른 신앙생활

현대인들은 본인이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장사의 논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 역시 ‘장사의 논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밀지고 장사할 사람은 없습니다. 적은 투자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 것이 모든 장사꾼의 바람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장사의 논리로 산다는 말은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얼마만큼 벌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수고 없이 공짜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장사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용됩니다. 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장 귀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물론 늘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헌신을 다 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뿐인’ 신자들도 있습니다. 또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절충하면서 사는 ‘타협형’ 신자들도 있습니다.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다면 구석자리도 좋고, 입석이라도 괜찮다는 ‘태평형’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좀 황당합니다. 적게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목표인데,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으라니요?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라니요? 이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손해나는 장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 보면 이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 남아도 한참을 남는 장사임을 알게 됩니다. 어차피 누구나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 목숨이든 어차피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내 것도 아니었는데, 그것들을 좀 일찍 내어놓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니 이것보다 더 큰 이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쯤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놓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이 말씀은 평소 사랑을 강조하던 예수님의 말씀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랑과 미움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움’은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국어는 아람어였는데, 이 언어에는 비교급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덜 사랑하라’는 말을 ‘미워하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워하라’는 말은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애착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부모, 자식,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둘째 자리에 놓고 첫째 자리에는 하나님을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이고, ‘나’를 하나님보다 중심에 놓습니다.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는 자녀나 내가 놓여있습니다. 이렇듯 내 우선순위에, 내 중심에 하나님 대신 자녀나 자기 자신이 놓여있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식을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자녀의 일이 겹쳤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했는지 말입니다. 만약 자녀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신앙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적나라한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 대답에 따라 네가 과연 누구를 신앙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와 동기,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 죽어야 산다

둘째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십



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희생’ 등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자기부정’입니다. 사실 여기에 제자 됨의 모든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수십 년간 목회를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았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고 성경공부를 해도, 기도를 하고 심방을 해도 교인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답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 실망하고 낙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이 사람아 왜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네가 살아 있으면 절대로 교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네가 죽으면 교인들이 변화될 것이다. 나도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내 제자들도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자 그들이 변화되었다. 그러니 교인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 음성을 듣고 그 목사님은 크게 깨닫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주장하면, 나를 내세우면 다 죽습니다. 교회도 죽고, 가정도 죽고, 직장도 죽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죽으면 모두 삽니다. 내 주장을 누그러뜨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삽니다. 모두가 win-win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닌 네 십자가를 저라, 상대에게 포기하라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포기해라, 그러면 참 제자가 된다. 죽는 척 쇼(show)만하지 말고 진짜 죽어라, 그러면 변화

가 일어난다.

## 내려놓으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더러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거지로 살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꼭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십니다. 앞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소유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을 포함하여 모든 집착을 버리라는 말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기게 된다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한 우리 것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올린 명예, 꼭 움켜쥔 재물, 미래의 불안과 생명의 위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과 참된 평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역설적 진리를 몸으로 삶으로 산 증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용규 선교사인데, 그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런 그가 학위를 수여받자마자 안락한 미래의 보장과 인간적인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가족 모두가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

습니다. 그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미국 유학생들과 몽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씩 내려놓는 삶을 배워나가게 되었는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진정한 내 것을 얻으려면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듭니다.

아들 동연이가 두 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동연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두 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바코드 판독기를 통과시켜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연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연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움켜쥔 것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어드린다면 해결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곤 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그렇게 내 것 챙기기에만 골몰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이때 영적인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하여 선뜻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 것을 얻으

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고, 비워야 충만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짧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순간의 안락을 위해 영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전제품 회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선전했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전 그 문구가 참으로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쓰다 버릴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일도 10년 동안 그 책임이 뒤따르는데, 영원을 책임져야 할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십 년, 이십 년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말하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내세’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지금 여기’를 포함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려놓으면 먼 훗날 저기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라**

결국 제자의 삶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나를 비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것이 하나

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수많은 좋은 것을 우리 인생에 선물하고 싶지만 우리가 작은 것을 양손에 움켜쥐고 있기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십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품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그의 나라 온 땅에!

<sup>1</sup>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sup>2</sup>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sup>3</sup>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sup>4</sup>“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sup>5</sup>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sup>6</sup>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sup>7</sup>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sup>8</sup>“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 닢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sup>9</sup>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sup>10</sup>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눅 15:1-10)

### 너무나도 유명한 쌍둥이 비유

오늘의 복음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비유”와 “잃은 은전을 되찾고 기뻐하는 부인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잃어버림’과 ‘되찾음’이라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쌍둥이 비유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더 유명한데, 그 이유는 잃은 양의 비유가 기독교 음악과 미술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도 이 비유를 소재로 한 것이 있는데, 297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 아흔 아홉 마리는”이라는 제목의 이 찬송가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 아흔 아홉 마리는 울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아흔 아홉 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둔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이 찬송을 듣고 있노라면 목자를 떠나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의 애처로운 모습, 그리고 그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갖 고생을 무릅쓰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종간의 좁은 턱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양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목자의 모습과 결국에는 그 양을 구해 어깨에 메고 환한 웃음을 짓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이런 모습은 기독교 미술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었기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그림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기독교 예술에 수많은 영감을 불어넣은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설교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의 이미지가 사랑과 용서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잃은 양”은 교회 밖에 있는 비(非)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예전에는 교회 안에 있었으나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밖을 맴돌고 있는 냉담신자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가나안’(안나가) 신자들을 가리키고, 또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길 잃은 양을 구해내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 “잃은 양을 구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종류의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잃은 양을 구하라!”는 설교는 전도를 독려하는 메시지로 채워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비유들을 말씀하셨을까요?

##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목자의 행동

이제 잃은 양의 비유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그 중 한 마리를 잃었을 때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의 행동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첫째는 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아흔 아홉 마리는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헤매고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할까요? 지금 들에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맹수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백 마리 양을 골고루 돌보고 하나같이 아껴야 하는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아흔 아홉 마리는 들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렇게 헤매고 다녀도 과연 괜찮을까요?

물론 아흔 아홉 마리 양들이 있는 장소가 안전한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한 찬송가 297장은 이 문제를 “양 아흔 아홉 마리는 울(우리)안에 있으나”라고 표현하여 본문을 변형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울’이 아니라 ‘들’로 되어있습니다.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들’은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이는 ‘광야’를 뜻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건조하며 불땀과 전갈이 있는 곳으로, 양들이 쉬고 풀을 뜯을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광야가 있었을 것이고, 목자는 이런 광야를 지나

면서 무사하고 안전하게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 목자가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아흔 아홉 마리는 생사가 불투명한 광야 가운데 내버려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은,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으면 다시 아흔 아홉 마리 양이 있는 광야로 돌아가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집으로 오든지 다른 초장으로 가든지 할 일이지, 잃은 양 한 마리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런 식으로 목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작 사표를 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목자는 아흔 아홉 마리 양은 빈들에서 굶어죽는지 늑대에게 물려죽는지 상관하지 않고,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목자의 행동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세속의 계산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감행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서는 아흔 아홉 마리보다 한 마리의 무게가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7절에서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아흔 아홉 보다 죄인 하나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아흔 아홉 보다 죄인 하나가 더 소중하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7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라

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의인과 죄인 앞에 각각 설명이 붙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은 누구이고,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문 1절과 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스스로 잘났다고 사회 우등생이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이 “회개가 필요 없는” 의인이요, 남들이 못났다고 사회 열등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왜 당신은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느냐? 왜 그들을 맞아들이고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느냐?”며 수군거릴 때, 이들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아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나라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 모든 이가 하나님 백성에 속해 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동체는 잃어버린 것을 마음 아파하고, 찾은 것을 기뻐하는 마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잃었던 한 마리 양을 다시 찾아 기뻐하며 돌아오는 목자의 마음, 잃었던 은전 한 닢을 되찾은 주인의 마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며,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 기쁜 소식이었기에 예수님은 소위 잘난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제쳐놓은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상대함으로써 모든 이가 하나님 백성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죄인, 창녀, 세리, 과부, 병자, 가난하고 힘없는 자 등 전부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불러 모은 집단은 당시 사회에서 보면 온통 죄인들의 집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 모은 까닭은 이들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갈라놓고 구분하는 차별적인 사랑에 대한 경계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그의 나라 온 땅에

제가 성가대 지휘자에게 오늘 “그의 나라 온 땅에”라는 곡을 찬양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유는 류형선 씨가 쓴 그 곡의 가사가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진 자/못

가진 자, 배운 자/못 배운 자, 높은 자/낮은 자, 귀한 자/천한 자, 잘 난 자/못난 자를 나누고 전자가 후자를 업신여기고 천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 경륜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은전의 비유를 통해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깨우치십니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 중 바리새파 사람이거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이 있다면 “너희끼리만 잘 먹고 잘살 생각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스스로를 세리나 죄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그 한 마리의 양이요, 한 닢의 은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은전 한 닢을 찾으려고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온통 쏘며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찾아내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집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간다 해도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분의 눈길을 피할 구석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줄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몸쓸 병에 걸렸었을 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류형선 씨가 쓴 “그의 나라 온 땅에” 가사를 다시 한 번 보

십시다.

아주 작은 어린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 것 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여러분은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를 온 땅에” 건설하라고 택함 받고, 불림 받은 일꾼들입니다. 이 축복 마음껏 누리시고, 이 사명 옹골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 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sup>11</sup>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sup>12</sup>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sup>13</sup>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전 3:11-13)

### 노인주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새롭게 지키기로 한 ‘노인주일’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만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3.2%인 657만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UN은 총인구 중 만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이제 ‘고령사회’(14%)에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령화 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생긴 ‘선진국형’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게 된 것이 반영된 사회 현상입니다. 이는 매우 기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사회가 ‘고령화 되어가는 속도’입니다. 프랑스

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기까지 115년이 걸렸습니다. 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에는 39년이 걸렸습니다. 영국은 각각 46년과 53년이 걸렸습니다. 미국도 72년과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100년 내지 1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간이 겨우 26년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 되는데 이에 대처할 시간과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미처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1.2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니까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아 키우기 힘들니 출산을 주저합니다. 이런 초저출산 문제와 급속한 노령화 문제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바른 정치인을 뽑아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와대나 여의도가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하고, 그것마저도 어려우면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도 선택해서 이 사회와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 **새 노인(주일)학교 교재**

이렇듯 노인문제가 사회와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해도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도 각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지요. 제가 명지병원에서 원목실장으로 일할 때,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사무국장’도 겸했습니다. 명지병원은 공공병원이지 아닌 민간병원이지만,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꾸렸고, 제가 그 실무 총책임을 맡았던 것입니다.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매 예방과 극복을 위해 ‘백세총명학교’를 세우고 운영한 것입니다. 이 학교는 (의학적, 임상적 등등) 실로 많은 성과를 냈는데,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 모델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노인(주일)학교’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단 총회교육원에 이 아이디어를 이야기했고, 총회교육원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이번에 첫 번째 노인교재가 출판될 예정입니다.

이 교재의 집필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어린이, 청소년) 교회학교공과나 구역공과가 ‘성경말씀공부’에 중심이 있는 것과는 달리 ‘예술치료’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동작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예술치료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성경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성경말씀을 공부하되 예술치유와 연관하여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같은 본문과 주제로 교재가 두 권 집필된다는 것이 이 교재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교재와 어려운 교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인지능력에 따라 (각 교회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쉬운 교재는 그림 중심이고, 어려운 교재는 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 증언은 제가 쓴 교재 내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말씀도 ‘새번역’이 아닌 ‘개역(개정)’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본문은 전도서 3장 11-13절이었고,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아름답습니다!”였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특별히 ‘노년’을 가리킵니다.

[사진1]을 보시지요. 이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찍은 것입니다. 아마 한려수도의 어디쯤인 것 같은데 참으로 빼어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어느 계절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과 ‘가장’ 마음에 드는 계절은 넷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진이 다 마음에 들고, 사계절 모두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 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인생의 계절 역시 각 계절마다의 독특한 특색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을 바라보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지으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소년의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는 각각 다 아름답습니다. 봄은 봄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이기 때



사진 1

문에 아름답듯이, 각 때는 바로 그 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 인생의 선물

노래 한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양희은이 부른 <인생의 선물>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2007년에 발표한 <양희은 35주년 앨범>에 실려 있는 곡인데, 양희은이 직접 가사를 쓴 것입니다.

봄 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정말로 몰랐네  
 봄 산에 지는 꽃이 그리도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면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안개 빛 같은 젊음이라면  
생각만 해도 힘이 드니까 나이 든 지금이 더 좋아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봄이면 산에 들에 피는 꽃들이 그리도 고운 줄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정말로 몰랐네  
내 인생의 꽃이 다 피고 또 지고 난 그 후에야  
비로소 내 마음에 꽃 하나 들어와 피어있었네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 끄덕이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하나 있다면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하지 않고 지는 해 함께 바라봐 줄  
친구만 있다면 더 이상 다른 건 바랄 게 없어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철든다”는 순우리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철’은 ‘사시사철’ 즉 ‘계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철든다”라는 말은“계절이 (삶에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각 계절의 특성을 알고, 그 계절에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계절 고유의 아름다움을 누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네 한국인들은 참 철없는 사람, 철부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 년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네 인생에도 분명 사계절이 있는데, 노년의 때에 이르러서도 청년이나 장년의 특성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니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그 계절에 걸맞게 살기보다는 지나간 계절을 붙들고 사니 철부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계절은 다 아름다우며, 각각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봄은 생명과 희망, 여름은 열정과 성

장, 가을은 성숙과 결실, 겨울은 휴식과 쉼 등으로 각각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의 특성과 가을의 특성은 다릅니다. 따라서 봄에 해야 할 일과 가을에 해야 할 일도 다릅니다. 또 여름의 아름다움과 겨울의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여름은 눈이 부시게 푸르려서 아름답고, 겨울은 하얗게 황량해서 아름답습니다. 따라서 여름에 하얀 황량함을 찾거나, 겨울에 눈부신 푸름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노년의 때에 이르러 젊었을 때를 그리워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노년만이 가진 특성과 아름다움을 찾고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젊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나이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년만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노인만의 값어치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 얼굴, 얼의 골짜기

[사진2] 할머니 사진을 보십시오. 이 할머니는 명품 옷을 입지도 않았고, 일류 미장원에서 머리를 하지도 않았습시다. 화장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얼굴에 깊은 주름만 가득 패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혜서인 전도서의 저자는 모든 것은 ‘제때’가 있고, 모든 때에는 ‘제때의 의미’가 있으며, 제때에 충실할 때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에겐 젊은이의 때가 있고 노인에게는 노



사진2

인의 때가 있습니다. 10대는 10대에 맞는 얼굴이 있고, 40대에는 40대에, 80대는 80대에 맞는 얼굴이 있습니다. 어느 나이든 그 나이에 맞는 가치가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우리말은 ‘얼굴’에서 왔고, ‘얼굴’은 ‘얼의 골짜기’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이 할머니의 얼굴에 새겨놓은 얼의 골, 주름마다에는 연륜에서 우러나온 여유와 인자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노년의 주름진 얼굴은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얻은 연륜과 지혜의 훈장입니다. 그러니 주름을 지우려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름을 감추거나 펴려고 애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모습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사람 보기에다 매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 노인과 어른

100세 시대를 맞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사무엘 울만(Samuel Ullman)은 그의 유명한 시 <청춘>에서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고 하면서, ‘스무 살 노인’이 있을 수 있고 ‘여든 살 청년’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늙음은 거부하고 젊음만 예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는 젊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늙을 때 역시 아름답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인이면서 젊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노인으로서 제 나이에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완성은 제6일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7일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때,

쉽의 때는 인생을 완성하는 때입니다.

요즘 “노인은 많은데 어른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노인과 어른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어른이 노인일 수는 있지만, 노인이라고 해서 꼭 어른은 아닙니다. 노인은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그늘이 되어주기에, 어른은 나이 들어 병석에 누워 있어도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나이 들어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과 마음이 함께 늙어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만 살던 마음이 후덕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할 수 없던 것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없던 사람을 포용하며, 나눌 수 없던 것을 나누는 후덕함이 나이 들기의 자산입니다. 후덕한 청년이라는 말이 없는 것은 후덕함은 언제나 세월의 길이와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익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늙어가는 노인의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숙성해가는 어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고 남의 이야기하듯 한탄만 할 일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어른으로 가꾸어 가면 머지 않아 이 세상은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 나눔의 잔치

<sup>51</sup>“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sup>52</sup>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sup>53</sup>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sup>54</sup>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sup>55</sup>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sup>56</sup>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sup>57</sup>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sup>58</sup>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요 6:51-58)

### 공동체 = 한 근원에서 나온 것을 나누어 먹는 것

매년 10월 첫째주일은 세계교회가 함께 지키는 세계성만찬주일입니다. 이날은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성만찬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증언 주제를 ‘성만찬’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 즉 음식(飮食)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



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에게 음식은 단순히 ‘생존’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가족공동체’를 뜻하는 말로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먹을’ 식(食)자와 ‘입’ 구(口)자가 합쳐진 한자말인데, 직역하면 ‘먹는 입’(eating mouth)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먹는 입’, 즉 ‘함께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술에 지은 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 이들이 ‘식구’요 ‘가족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또 여러 가족이 공동체를 이루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곳을 우리말로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각 동네마다 그 가운데에 반드시 우물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땅을 파서 물줄기를 찾아내는 지혜를 터득했는데, 만약 마르지 않는 우물을 발견하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렇게 해서 동네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동네’라는 우리말은 ‘동리(洞里)’라는 한자말, 즉 마을 동(洞)자와 마을 리(里)가 합쳐진 말에서 나왔는데, 마을 동(洞)자는 물 수(水)변에 갈을 동(同)자를 붙여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란 한 우물에서 나온 같은 물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이렇듯 공동체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는 것을 나누어 먹는 것에 그 근본정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근원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일 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먹는 공동체, 또 성만찬을 통해 거룩한 식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공동체입니다. 이렇듯 교

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것이 공동체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 뉴욕이 벌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에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과 라 과르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이 두 공항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이름입니다. 그리고 피오렐로 라 과르디아(Fiorello La Guardia)는 1933년부터 1945까지 무려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세 번씩이나 연임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라 과르디아라는 분은 경력도 화려하지만, 극적인 사건을 연출해 낸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남긴 많은 일화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라 과르디아가 즉결심판 법정의 판사로 일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무척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한 노인이 잡혀 왔습니다. 빵집에서 빵을 훔친 죄였습니다. 그 노인은 자기 가족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 노인의 호소를 들은 라 과르디아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벌을 주어야만 하오. 법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이오. 그러니 벌금으로 10달러를 내시오.” 그러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낼 벌금 10달러가 여기 있소.”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높여 계속 말했습니다. “이 법정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하겠소. 그 이유는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빵을 훔쳐야만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기 때문이요. 경사! 당장 벌금을 거둬 저 노인에게 주시오.” 그 경사는 모자를 돌려 벌금을 거두었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노인은 벌금으로 거둔 47달러 50센트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그 법정을 나섰다고 합니다.

## 성만찬의 본래 정신

제가 이 일화를 소개한 것은 이 짧은 이야기가 성만찬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등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최후의 만찬 장면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장면이 없습니다. 대신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5천명을 먹인 기적 사건 뒤에 위치시킵니다. 그 의도는 교회가 제도화되어가면서 성만찬이 그 본래의 정신을 잃고 예전화한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요한은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식으로서의 성찬만 예식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의 본래 정신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것을 떼어 나누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 잔도 그와 같이 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만찬은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당부에 따라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그 “나”는 다른 “나”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즉 자기의 전 존재를 송두리째 나누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만찬의 근본정신은 내어주는 것이요,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성만찬 예식의 핵심은 바로 나눔에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쪼개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주신 주님의 모범을 좇아, 자기 가진 것을 나누고, 삶을 나눔으로써, 친교와 일치를 일구어 내는 교회의 심장과 같은 것이 바로 성만찬예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증언했는데, 이제 성만찬을 통해 육신이 된 그 말씀은 내 밖의 세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 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며,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주님의 희생이 내 희생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자기 몸 안에 모신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따라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눔이 없는 성만찬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누어주신 살과 피를 몸 안에 모셔 새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그 생명을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빵이 되고 포도주가 되어, 이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 고등어 두 마리와 찹쌀떡 다섯 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음악가 류형선은 이 기적 이야기를 소재로 <고등어 두 마리와 찹쌀떡 다섯 개>라는 동요 풍의 복음성가를 지었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맛있는 밥을 서로 먹여주면서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면서  
고등어 두 마리와 찹쌀떡 다섯 개로  
우린 오천 명도 무지무지 배부를 수 있단다  
이천 마리 고등어를 오천 개나 되는 떡을  
이리저리 뺏어 모아 저 혼자서 다 먹고도 모자라는 사람들이

류형선은 이 간단한 노랫말을 통해 물질을 독점한 세속 사회와 나눔과 섬김의 하나님 나라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5천명의 사람들이 왜 굶주렸습니까? 주님은 그 굶주림의 원인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이 없어서였습니다. 사랑은 나눔이요, 나눔은 내어줌입니다.

굶주리고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짜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최후의 방법으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 주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으로 나누어주십니다. 요한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전 존재를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바로 이 지극한 사랑을 체험하고 수락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주님이 당신의 전 존재를 남김없이 내어주셨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 갈릴리 호수와 사해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의 원류가 되는 갈릴리 호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死海)입니다. 이 두 개의 호수는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정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항상 물이 맑고 풍부하여 많은 물고기가 삽니다. 주변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많은 관광객과 순례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는 문자 그대로 물고기는 물론이고 주변에 나무조차 살지 못하는 황막한 호수입니다. 보통 바닷물은 염분이 4~5%인데 사해는 27%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호수를 하나는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또 하나는 죽음의 바다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릴리 호수가 항상 맑고 깨끗할 수 있는 것은 주위의 여러 산에서 흘러드는 맑은 물을 받아들이는 한편, 그 물을 끊임없이 요단강으로 흘러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주변의 물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흘러보낼 곳이 없습니다. 사해는 해발이 아닌 해저 1,278피트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열에 의해 물이 계속 증발되어 염분이 많아져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을 내어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바로 이 사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행할 생명의 잔치가 나눔의 잔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참다운 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북녘 동포를 위한 헌금

몇 주 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과 평화통일위원장 명의로 <긴급 요청서>가 왔습니다. 제목은 “심각한 수해로 인해 고통 받는 북녘 동포들을 위하여 귀한 헌금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8월 말에 북한 함경북도에,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하여 4일간의 집중폭우가 내려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답니다. 60년 만에 최악의 홍수라고 북한 언론매체는 이례적으로 홍수 피해의 현장상황을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상주하는 UN 산하의 ‘인도적 지원 기구’인 세계식량기구(WFP)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9월 초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피해가 심각하고 긴급 지원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현재 남북관계가 대립국면이기 때문에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해 인도적 지원까지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돕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 돕는 것까지도 막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남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받았으니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아낌없이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데, 지

금 우리의 도움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웃이 북한 동포이기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대립과 반목, 그리고 고립 정책으로는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 **작은 봉헌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전하고 오늘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성만찬 예식을 선포한 곳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기적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한 어린 아이의 작은 봉헌, 나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리떡은 밀가루떡보다 훨씬 서민적인 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들어 크고 풍성하게 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재능이, 내가 가진 시간이, 내가 가진 은사가 작고 쓸모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작고 쓸모없는 것을 당신의 사역에 크고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진 작은 것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고 나눌 때,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 다시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우리 몸에 모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생의 양식을 은총으로 받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 가진 것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sup>24</sup>“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sup>25</sup>“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sup>26</sup>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sup>27</sup>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일 수 있느냐? <sup>28</sup>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sup>29</sup>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광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sup>30</sup>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sup>31</sup>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sup>32</sup>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sup>33</sup>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 6:24-33)

### 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목사입니다. 지난 8월에 이어

만 두 달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20회 한일합동수양회 중에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수양회의 주제는 “생명·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부제는 “3·11 이후 현장에서 배우는 우리들”입니다. 사실 주일예배 때 무슨 말씀을 증언할까 하는 것은 오래 전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제목은 일찍 정했는데, 막상 원고를 쓸 시간이 나지를 않아서 그만 약속한 마감 시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는 중에 야마모토 유지 목사님이 쓰신 개회예배 설교문을 받아 보았는데, 그것을 보니 제가 주일예배 때 하려고 했던 말을 유지 목사님이 이미 개회예배에서 다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는 자매교회인 양 교회의 담임목사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어서 매우 기뻐하고 또 굉장히 든든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양 교회의 담임목사가 생각이 같고 또 양 교회의 뜻이 일치했기에, 서울제일교회와 니시카타마치교회는 지난 41년 동안 자매관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 두 교회가 함께 해 나갈 일에 대해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증언은 제목 그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택하고, 재물도 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는 결코 ‘이것도 저것도’ 하는 ‘both-and’의 관계가 될 수 없고, 오직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either-or”의 관계만 성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둘 다가 아니라 둘 중 하나만을 택할 수 있고, 둘 다가 아니라 둘 중 하나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코 핵과 생명, 원자력과 평화를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결코 ‘공존’하거나 ‘상생’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유지 목사님의 생각이고, 또 이번 합동수양회 양국 발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번 합동수양회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웠고, 또 내일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해서 이를 우리의 눈과 귀로 확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핵과 생명을 둘 다 택할 수 있다고, 원자력과 평화를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핵발전소가 매우 유용하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고 ‘홍보’합니다. 이런 선전과 홍보에 속아 그동안 우리는 핵발전소와 핵무기를 신뢰해 왔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을 ‘평화산업’으로 알아 왔습니다. 하지만 핵과 생명, 원자력과 평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제 개회예배 설교에서 유지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밝혔듯이, 핵발전은 우라늄의 채굴에서부터 발전과 연료의 재처리에 이르는 처음부

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이 철저히 반(反)생명적입니다. 그리고 그 1차적 피해자는 격차사회의 2등 시민인 ‘민중’들입니다. 그래서 반평화적입니다. 진실로 “원전과 전쟁은 약자의 희생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사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허구이며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히로시마 원폭투하 이후 핵개발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전이란 원폭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국가의 군사적 야망과 핵자본의 이익, 기생적인 정치가, 관료, 학자, 언론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자력발전은 처음부터 핵무기 산업과 일관성 쌍둥이였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널리 공개된 사실이지만, 지진의 나라 일본에 54기의 원전 건설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 전개된 데에는 단순한 전력 확보 이외에 숨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핵무기 제도가 가능한 잠재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발언력을 높이려는”(기시 노부스케) 것이었습니다.

핵무기가 반생명적이고 반평화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북한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결코 북한과 북한 인민의 생명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응한 남한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의 공고화 역시 반생명적이고 반평화적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ی 아니라 힘(power)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가 아니고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본받는 태도입니다. 그런 거짓

평화는 순식간에 우리를 핵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결국 공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제 우리는 핵과 생명, 원자력과 평화를 아울러 섬길 수 없고, 둘 다 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제 유지 목사님은 굉장히 래디컬(radical)한 답을 주셨습니다.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핵과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전기’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때로는 반생명적인 생업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핵과 생명, 원자력과 평화를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둘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양심적인 목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또 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너의 반생명적이고 반평화적인 생활과 생업까지도 희생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목사, 하나님의 참 예언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 말은 순교를 전제할 때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불이익 받을 각오가 섰을 때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은 성장과 번영과 풍요를 ‘선’이라 믿고, 그 반대를 ‘악’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하지, ‘못’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그런 생각을 해도 감히 그 생각을 입 밖

으로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지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랐고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설교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저도 유지 목사님을 본 받아서 감히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속 가능한 성장’,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쓰고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녹색’과 ‘성장’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녹색 성장’이란 말은 ‘동그란 네모’라는 말처럼 형용 모순입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결국 ‘녹색’을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사실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 생명과 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 핵무기나 자동차는 하등 다름 바가 없습니다. 그것들을 포함해 우리가 문명의 이기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자연 착취의 결과물들이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95년에 한국의 KBS와 일본의 NHK가 공동 제작한 <생명, 그 영원한 신비>라는 프로그램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지구 위에 인류가 등장한 것은 12월 31일 오후 8시 30분경이다. 더구나 산업혁명 이후의 역사는 고작 13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인류가 태어난 것은 고작 3시간 30분 전의 일이고, 13분 동안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망쳐 놓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주기를 반복하는 다른 세포와는 달리 암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분열

해 커져만 갑니다. 성장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기생하고 있던 숙주가 죽게 되면 그때 비로소 죽게 됩니다. 지구와 인류의 운명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하루아침에 산업혁명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을 지속한다면 인류가 절멸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반드시 지금의 삶의 양태를 바꿔야만 할 것입니다.

###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그 지침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데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재물은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제쳐두고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물은 ‘부려야’ 하는 것이지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물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후 곧이어 25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결론으로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만 아니라 땅에서도 실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곧 온 지구상에 누룩처럼 번져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의 유명한 노동자 시인 박노해가 쓴 <나 하나의 혁명이>이란 글을 읽어드립니다으로써 제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이 지구 위 60억 인류 모두가  
나처럼 먹고 쓰고 생활한다면  
이 세상이 당장 좋아질 거라고  
땀땀이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먼저 적게 벌고 나눠 쓰면서  
덜 해치고 덜 죄짓는 맑아진 얼굴로  
모두 나처럼만 살면 좋은 세상이 되고  
푸른 지구 푸른 미래가 살아난다고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 내는 것

그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희망이 모든 것이다  
그것이 혁명의 시작과 끝이다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 설교 후 기도

하나님,

때론 당신의 명령이 너무 버거워 따르기 힘이 듭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앞서 가신 길이니

우리도 기꺼이 따르게 하옵소서.

다행히 우리가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니 감사드립니다.

서울제일교회와 니시카타마치교회가

생명과 평화를 위해 맞잡은 손 하나님 같이 잡아 주시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보태 주시고,

용기도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sup>1</sup>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sup>2</sup>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sup>3</sup>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sup>4</sup>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sup>5</sup>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sup>6</sup>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sup>7</sup>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든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sup>8</sup>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볼 수 있겠느냐?"(눅 18:1-8)

### ‘늘’ 기도하라!

오늘 본문말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이 ‘기도’와 ‘낙심’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

어 말하면 “낙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낙심(개역개정, 새번역), 낙망(개역), 용기 없음(공동번역), 포기(give up, NIV) 등은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또는 기도를 하긴 하되 ‘늘’하지 않고 ‘가끔’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예수회 존 포웰 신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기 콘센트 같은 분이시다. 전기 콘센트에는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플러그를 연결만 시키면 방도 환하게 밝아지고, 음악도 들게 되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지 않는다면 아무리 높은 전력이 흐른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방은 어둡고, 음악도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행위, 이것이 바로 기도생활이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험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권면했듯이 “끊임 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살전 5:17).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사항입니다.

## 올바른 청원기도를 드리는 법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저의 이런저런 소원을 들어주소시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를 ‘청원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원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서적 근거는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sup>7</sup>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sup>8</sup>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의 초점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즉 ‘청원하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을 ‘믿으라’는 데 있습니다. 즉, 청원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선결조건인 ‘확신을 가지라’는데 이 말씀의 초점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과 확신에 바탕하지 않은 청원(소원)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푹푹”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푹푹” 하면 은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 자판기로 만들어서 내 맘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자기중심적인 기도요, 자신을 신(神)께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신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불경스러운 기도가 될 위험이 큼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신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달란트나 그 무엇이든 간에 나의 소유로 신을 달라고 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미신은 자기는 변화됨이 없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신의 마음을 바꿔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신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욕망만 배가시킵니다. 반면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신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게 내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지입니다. 그 결과로써 신앙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점은 바로 나의 변화 유무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것은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게 최상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A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B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때 비록 그 B라는 것이 내가 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더 필요하기에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때론 아무리 A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A는 고사하고 B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 못 구하기 때문입니다”라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한 것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강력한 청원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기도는 아무 때나 드려서는 안 되고,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확신이 섰을 때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13편의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새번역으로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굶어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 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의 첫 절에서 시인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라고 절규합니다. 이 외마디 탄식은 한 인간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토해내는 한숨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탄식은 단순한 신세 한탄이나 냇두리가 아닙니다. 그는 거의 위협에 가까운 말로 하나님께 연이어 질문

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 말은 “자신의 처지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는 죽을 운명에 처해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태의 역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굽어살피소서,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라”고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물음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차례입니다”라는 고백이요 촉구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희망 가운데 기뻐하며 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 기도는 하나님마저 움직이게 하는 인간의 투쟁

이렇듯 기도하는 것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만사가 다 그런 식이고 그게 그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만사가 다 그런 식이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란 단순히 “무엇을 해 주십사”고 자신의 소원을 비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마저 움직이게 하

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때론 인간의 절실한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복음말씀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같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어 주님은 이 이야기에 과부와 재판관을 등장시킵니다. 여자, 그 중에서도 과부! 당시 사회에서 과부란 그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건 아니면 사별했건간에 생존 기반 자체가 빈약한 사회적 약자요 가장 밑바닥 민중을 대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자, 그 중에서도 재판관! 그는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 가운데서도 가장 상층부에 속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비유에서 두 사람이 대결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보이는 것만 보는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 승부는 이미 결정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고 과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에서 기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무릎을 꿇고 손을 맞잡은 채 소원을 아뢰는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불의한 현실과 끝까지 투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도는 머리로 생각하고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struggle입니다. 투쟁하는 것이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집요한 투쟁이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동 없는 간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마 7:7)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받도록 빌어라. 얻도록 간구하라. 열리도록 기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받고 싶으냐? 그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먼저 행동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신앙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나의 집요한 간구, 즉 행동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서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동참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태도가 우리의 올바른 기도 자세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왼쪽으로 가는 것이 내 뜻일 때, 우리는 마땅히 내 욕심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고도, 약자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도, 그리고 온갖 질병으로 인해 인간 생명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침묵에 항의해야 하고, 사태의 역전을 위해 하나님에 앞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받아 내고, 직무를 유기하고 계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요한 투쟁으로서의 간구’, 즉 기도입니다.

제가 오래 전에 인생의 온갖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신앙 체험 수기를 모아 놓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기들에 나타난 공통점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서 도움을 청했을 때 슬쩍 힘을 보태 주시는 분이시, 가만히 앉아서 조르기만 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우리말 속담은 “요행을 바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가운데서도 솟아나려고 몸부림을 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한일합동수양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후쿠시마에 다녀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폭발한 원전에서 아주 가까운 곳까지 갔고, 거기서 많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가서 폐허가 된 마을들, 방사선 위험 때문에 텅 비어있는 유명도시들,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등등. 그런데 그것은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겪어야 할 문제이고, 결국은 온 인류가 겪어야 할 ‘현실’을 미리 본 것이었습니다. 전 그 끔찍한 현장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절망만 하고 뉘 놓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희망이 없기에 내가,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우리를 후쿠시마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갖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너무나 엄청나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 보이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물결처럼 밀어닥친다 해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직무유기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에 항의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끝내는 하나님께서도 침묵을 깨시고 마침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sup>9</sup>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sup>10</sup>“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sup>11</sup>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sup>12</sup>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sup>13</sup>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sup>14</sup>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 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눅 18:9-14)

### 황당한 결과

오늘의 복음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목사인 저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 좋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경건한 신자이고, 세리는 그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비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의 복음말씀에서 바리새인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저들은 당시의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참으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세상 풍조에 따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세상과 구분해 “남이야 어찌 살던 나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살자”고 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율법 준수에 열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별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에 단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정해 놓은 것을 훨씬 앞질러 일주일에 두 번씩 단식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수입의 십일조를 봉헌했습니다. 즉, 십일조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의 십분의 일까지도 바쳤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리새인은 너무나 모범적으로 생활했기에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을 경건한 종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비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제국의 앞잡이였습니다. 로마제국은 본국에서 세무 관리를 파견해 점령지에서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현지인 중에서 세리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 상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 세리들에게는 로마제국에 상납할 총액만

정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세금으로 얼마를 걷든 크게 상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점령자인 로마제국의 당국자들에게 상납했고, 또 그 중간에서 부당하게 챙긴 이익으로 먹고살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니,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여기저기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경건하고 열심인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비판하셨으니 우리는 과연 누구를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살아야 할까요? 정말로 바리새인들은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새번역)./“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공동번역).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건너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를 본받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들의 의를 넘어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걷지 않고 뛰기부터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

습니다. 기어 다니던 아기는 먼저 두 발로 설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아장아장 걸을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잘 걷게 되면 그 바탕 위에서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어 다니다가 갑자기 뛰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걷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의 단계를 건너뛰고 우리는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열심인 교인이 되지 않고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인(church goer)과 그리스도인(christian)을 구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이 되기보다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주보 표지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신앙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교인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인됨 없이 그리스도인 되는 길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외는 있지만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교인을 거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걷는 단계를 건너뛰고 뛰는 단계로 나아갈 수 없듯이, 교인의 단계를 건너뛰고 그리스도인의 단계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교회는 신도를 교인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도록 해서 문제입니다. 반대로 진보적인 교회 신도들은 교인 역할을 제대로 안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해서 문제입니다. 교인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경건한 교

인의 단계를 건너뛰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낮지 않으면,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뜻하는 바입니다.

## 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인가?

그렇다면 오늘의 복음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를 의롭다 인정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경우는 ‘자기 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열심히 경건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열심과 경건 때문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살고, 내가 남보다 더 노력한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것을 잣대로 나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세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기엔 그다지 잘못 산 것 같지 않고, 의인이라고 내세우기엔 좀 떳떳치 못한 것 같아 중간을 택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교인들에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대역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메시지가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주장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은 공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말 “값없다”로 번역되는 “priceless”라는 영어 단어는 공짜란 뜻이 아닙니다. 도저히 값으로는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riceless”는 ‘공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분, 하나님 자신의 목숨 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숨 값을 우리가 그 무슨 수로 치른단 말입니까!

둘째는 많은 경우 죄의식은 허위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자기 고백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심겨진 거짓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허위 의식은 관습이나 문화가 심어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895년, 고종 32년에 우리나라에 백성들에게 상투를 자르도록 “단발령”이 내려졌습니다. “身體髮膚 受之父母”(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신체발부(身體髮膚)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서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함부로 하면 불효가 된다”고 단발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즉 당시 사람들은 머리카락 자르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죄의식이 허위의식으로서의 죄의식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죄의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죄의식은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진짜 사랑은 말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어도 자기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쯤이면 충분하다는 사랑은 없습니다. 퍼주고 퍼주어도 자꾸 솟아나고, 주고 또 줘도 모자란 것이 사랑입니다.

이 “모자라다”는 마음이 죄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애쓰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죄의식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는 결코 다다르지 못한다는 부족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의식입니다. 이런 죄의식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애써보지 않은 사람은 부족함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 죄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경건한 교인을 거쳐야 참다운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은 복음전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반평생을 온전히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에 대해 뭐라고 평가합니까?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 인처럼 나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우두머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자기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싫든 좋든 남과 나를 자주 비교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는 항상 상대적이란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악(善惡), 미추(美醜), 고저(高低), 장단(長短) 등은 모두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념입니다. 한 예로, 길다고 하는 것은 짧은 것이 있기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반대로 짧다는 것도 긴 것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물이 길기도 하고 동시에 짧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긴 것에 비하면 짧고, 짧은 것에 비하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결정적 실수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며 우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 의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कु머거리가 듣고 싶어 하고, 절름발이가 걷고 싶어 할 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자기 죄를 치료해 줄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낄 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어야 의사를 찾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구세주를 찾게 마련입니다. 세리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절망감으로 인하여, 고통에 빠진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어느 날 환상에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가운데 높은 보좌가 하나 있어서 누구의 의자냐고 물었더니 성 프란시스의 자리라고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슬그머니 질투가 났습니다.

꿈을 깨고 난 후 스승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성 프란시스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항의했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성자인데 악하다고 하시면 정말 살인자 간음자들은 어찌합니까?” 이 때 성 프란시스는 웃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세. 만약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지 그러니 은혜로 살아갈 뿐이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바리새인을 닮았습니까, 세리를 닮았습니까? 그 대답이, 말로 하는 대답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하는 대답이, 우리의 구원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아무쪼록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마시고, 참다운 ‘죄의식’을 갖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부족함과 모자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sup>14</sup>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sup>15</sup>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sup>16</sup>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sup>17</sup>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sup>18</sup>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sup>19</sup>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 17:14-19)

### 교회개혁 499주년 기념주일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창조절 아홉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교회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Reformation Sunday라고 합니다. Reformation을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한 성서교독문에도 “종교개혁주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번역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Reformation은 지금부터 499년 전에 로마 가톨릭교회를 개혁하고자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Reformation은 ‘(로마 가톨릭)교회개혁’이었지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도 ‘기독교

의 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이라 부르는 것은 지극히 서양 중심적이고 기독교 중심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을 ‘종교 개혁주일’이 아니라 ‘교회개혁주일’이라고 부를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99년 전인 1517년 늦가을, 독일 엘베 강가의 조용한 대학도시 비텐베르크(Wittenberg)의 아침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유배달 마차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깨뜨리는 사이, 검고 긴 사제복을 입은 한 젊은이가 돌돌 말린 큰 종이뭉치를 손에 쥐고 어디론가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사제가 도착한 곳은 비텐베르크 대학교회의 정문이었습니다. 성문 입구에 위치한 이 대학교회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이었고, 교회 출입문은 대학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게시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대학교회 정문 앞에 멈춰선 젊은 사제는 가지고 온 종이뭉치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종이가 펼쳐지자 며칠 밤 관솔불 밑에서 밤이 늦도록 한자 한자씩 써 내려간 촌촌한 글씨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펼쳐진 큰 종이를 대학교회 정문에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여놓았습니다.

중부 독일의 매서운 추위가 밀어닥치기 직전 10월의 마지막 날, 대학교회 정문에 장문의 게시문을 붙여놓은 이 젊은 사제는 그곳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던 34세의 소장학자 마르틴 루터 교수였습니다. 그는 24세에 신부로 서품 받고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당시 신설 대학이었던 비텐베르크대학에서 성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젊은 교수 마르틴 루터가 대학 사회의 공용어인 라틴어로 정성스럽게 기록하여 대학교회의 문에 붙여놓은 게시물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비텐베르크대학의 교수인 나 마르틴

루터 신부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밝히려는 소망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 관해서 대학 안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은 문서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틴 루터가 제기한 공개토론의 주제는 교황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던 ‘면죄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장장 95개 항목에 이르는 긴 글을 통해서 교황의 <면죄권>과 <면죄부>의 효력에 대해서 단호히 ‘아니(No)’라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가 대학 안에서 공개토론을 위해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95개 조항을 대학교회 정문에 게시했을 때, 그는 그것이 물고 올 해일과도 같은 역사의 새 물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95개 조항’은 당시의 가톨릭교회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지각변동의 진원이 되었고, 1517년 10월 31일은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개혁이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으며, 지금의 개신교회가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499년이 지난 ‘교회개혁 기념주일’이며, 오늘 예배는 이를 기념하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한국 개신교회의 위기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개혁을 기념하는 이유는 ‘역사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고 ‘역사에서’ 배우기 위함입니다. 즉, ‘과거’를 보기보다는 ‘현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개신교회가 499년 전 로마 가톨릭교회를 개혁하며 출발했지만, 그로부터 499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과거의 ‘개혁주체’에서, 현재의 ‘개혁대상’으로 바뀐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정직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Reformed Church가 되어서는 안 되고 Reforming Church가 되어야 합니다. 즉,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혁은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진행형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도 과거 로마 가톨릭교회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적 위상은 실로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내려갈 곳이 없는 완전 밑바닥입니다. 기독교는 ‘개독교’, 목사는 ‘먹사’로 일컬어지며 사회적 조롱거리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고 박형규 목사님 세대들이 활동하시던 7,80년대에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적 공신력과 위상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교회가 우러러보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몰골은 이렇듯 말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회는 홀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도 늘고, 종교인구 비율도 늘고, 불교 인구와 가톨릭 인구는 증가했는데, 개신교회 인구만 홀로 줄어들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개신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개신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톨릭교회를 더 신뢰합니다. 저들은 예전부터 개신교회에 다녔기에 다만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회

에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회에서 희망으로 보이지 않는 현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제499주년 교회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개혁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나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지금 우리 정부와 나라는 정부도 아니고 나라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사실 과거에도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적어도 교회는 교회였기 때문에 잘못된 정부를 꾸짖고 잘못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7,80년대 민주화운동이 이를 분명하게 웅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인들조차 귀 기울이지 않는데 누가 귀 기울이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이고, 그래서 위기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반드시 개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 **예수님의 유언을 따르는 교회**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에 ‘유언’으로 남기신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교회개혁의 큰 방향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교회는 세상에 보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본문 14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포함



한 주님의 공동체, 즉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은 교회가 세상 바깥 어딘가에 따로 존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와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세속 한가운데 있으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그런 삶이 교회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 안에 있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따라 존재하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순서로 대접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당시의 로마제국은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로마시민과 비시민,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는 엄격히 구별되었고, 신분에 따라 차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공동체 안에 서만은 그런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교회 안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었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비결이었습니다.

구한말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유교적 계급질서가 지배하던 당시의 한국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은 신분도 없고, 계급도 없고, 양반도, 상놈도 없었

습니다. 수직적 신분사회 속에서 수평적 대안공동체를 탄생시킨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출발이었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성장비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금수저 물고 나왔는지 흙수저 물고 나왔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등등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고 나눕니다. 혹시 이런 세상 질서가 교회 안에도 스며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남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가르고,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모여 편협한 사랑을 나눠 오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약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나, 결코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본문 18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에 보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자기 자신의 유지와 확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있음을 웅변하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새 신앙으로의 초대” 10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교는 교회의 일 가운데 ‘선택사항’이나 ‘특별활동’이 아닙니다. ‘필수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 선교하라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에서 주님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를 공동번역 성경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고 죽이면서까지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나누고 희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나를 위해 희생하셨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일에 인색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 **교회 예산의 20%를 선교비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전체 예산 가운데 평균 3.88%만을 사회 봉사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도 성경적인 헌금생활, 즉 십일조 생활을 강조하는데, 정작 교회 자신은 세상을 위해 자기 예산의 1/10도 내어놓지 않는다니,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입의 1/10을 딱 떼어놓고 “이건 내가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봉헌할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구분해 놓아야지 십일조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기 쓸 것 먼저 챙기면 절대로 십일조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적어도 예산의 1/10은 선교비로 딱 정해놓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곧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예산결산위원회

가 구성되어 활동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중 20%를 선교비로 책정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고, 서울제일교회라는 우리 이름에도 걸맞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산은 부족하고 써야 할 곳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우리가 꼭 필요한 것에 예산을 먼저 배정하면 선교할 예산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산의 20%는 선교비로 쓴다’는 원칙을 정하고, 여기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자는 것입니다.

서제플준비위원회, 새길위원회, 고 박형규 목사 기념사업위원회 등등이 내년도 선교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선교사업들은 외부 단체에 예산만 지원하는 온라인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몸으로 삶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선교 프로그램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한일합동수양회로 후쿠시마에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가 반핵운동에 앞장서기로 했는데, 마침 “잘 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신고리 5,6호기,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 전환정책 수립 및 탈핵에너지 전환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서명은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전달하여,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약속을 받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후쿠시마에서 우리의 끔찍한 미래를 미리 보았기에 또 자매교회와 굳게 약속했기에 이 운동의 중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개혁 499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저는 한국교회가 더 늦지 않고 당장 개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티 기독교가 성행하고,

교회가 점점 죽어 가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되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이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저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진정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품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 범사에 감사하라

<sup>16</sup>항상 기뻐하십시오. <sup>17</sup>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sup>18</sup>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전 5:16-18)

### 이런 '시국'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2016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예배와 설교의 주제는 '감사'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작금의 시국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정말로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GDP 순위 세계 11위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20세기도 아닌 21세에서 어떻게 '무당정치'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괴한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300일이 넘게 투병하다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가 사망한 지 41일 만인 어제야 겨우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가해 당사자인 경찰은 아직까지도 아무 사과가 없고,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304명의 꽃 같은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벌써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배는 아직도 깊은 바다 속에 잠겨 있고,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으며, 사라진 대통령의 7시간은 온갖 유언비어만 난무할 뿐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도 너무 한참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은 한숨을 짓고, 창피해 하고, 분노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 판국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불의가 정의를 비웃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우기고, 국가권력이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함부로 남용되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어로 ‘감사하다’라는 말은 ‘Thank’입니다. 이 말은 ‘생각하다’라는 말인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Think’하면 ‘Thank’할 수 있다, 즉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는 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Think’가 ‘Thank’의 어원이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면 감사할 수 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없던 일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륜 스님이 최근에 한 강연에서 “최순실 씨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지요? 왜? 지역주의에 사로잡혀서 평생 새누리당만 지지하던 대구·경북 지역 50대 이상 성인들의 ‘콘크리트 같은 생각’을 깨뜨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대학생들의 사회비판 의식을 다시금 일깨워 행동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올 김용옥 선생의 생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도올 선생은 최근에 했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민족에게 굉장한 호기”라고 했습니다. 왜? 지상 과제인 ‘박정희 패러다임’을 청산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5%가 나왔습니다. 이는 대통령을 반대하는데 영호남이 하나 되고, 세대가 통합 되고, 보수와 진보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보수교회인 압구정동 소망교회에서도 현 정권에 반대한다는 설교를 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제 앞을 지나가던 한 중년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6.10 민주항쟁 이후 처음으로 집회에 나왔다고.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위기’인 줄로만 알았더니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국’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범사에 감사하라?

추수감사절인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개역개정, 살전 5:16-18).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늘’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들 보다는 그 말들을 수식하고 있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예외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만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다. 즉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인데, 쓰던 달던 감사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벽처럼 높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실제 생활하면서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감사는 믿음의 표현

우리는 흔히 많이 가지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충분하면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하면 감사할 수 없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충분과 감사는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례하기는 커녕 오히려 반비례합니다. 우리의 생활필수품이 50년 전에는 70여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 10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만약 충분과 감사가 비례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50년 전보다 10배나 편리해졌기에, 우리는 50년 전보다 10배는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퇴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풍부해지고 생활도 편리해지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탐욕은 더 늘고 감사하는 마음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로마의 격언에 “돈은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풍부해질수록 사람들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탐욕만 커지는 모양입니다. 이런 탐욕에는 감사하고 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나면 또 다른 탐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감사는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상태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에게는 항상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나를 기꺼이 당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때때로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겪지만 그것들과 함께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힘과 용기도 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이 있지만 그 악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들과 싸워 이길 신앙을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감사도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만이고, 불만의 바탕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다른 표현인 믿음이 뭐냐 하면 바로 ‘교만’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내 것인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인데, 나 때문인데, 내 덕분인데 누구에게 감사할

필요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모두 자기 때문인데, 어디에서 감사할 대상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혹시 내게 어떤 능력이 있을 때 나를 자랑하기에 앞서 내게 능력 주신 분께 감사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성취할 기회와 힘을 주신 분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 순례 길에서 그래도 지금 옷 한 벌이라도 걸치고 있음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다. 남들이 뭐라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래야 옳은 신앙인입니다. 누구나 지금의 처지가 오로지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노력 속에, 우리의 고통과 땀 속에 계속해서 늘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 늘 저를 울리는 장면이 몇 군데 있는데, 빌립 보서 4장 11절로 14절의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며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공동번역) 삶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 자유한 사람, 그 조건에 달관한 사람, 그러기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때에도 풍족하게 살 때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은 영적, 신학적 명상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이른 게 아닙니다. 그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는 가족도 없이 천막을 만들어 끼니를 이으며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깊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강과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으며 술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고, 박해를 받아 거의 죽을 만큼 매 맞은 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참으로 고난과 시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 속에서도 감사했고, 옥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이렇듯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절망과 좌절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동안에는 마귀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 고난 속에서의 감사

우리는 보통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한 것, 또는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버린 것, 이런 것들을 다시 움켜쥐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감사하지 않거나, 감사하더라도 현재의 가진 것보다는 미래에 가질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보여준 모범은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온갖 환난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이렇듯 범사에 감사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신체장애자 회관에 이런 시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 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약함을 주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삶을 선물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 받은 자이다.

이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평탄해야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사는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그것을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그것을 표현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그것을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은혜의 은혜 됨을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는데 있습니다. 그때에만 은혜가 은혜 되고, 또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형편, 좋은 여건 속에 산다 하더라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도 아니요, 복된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만큼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아멘.

## 산자여 따르라!

<sup>27</sup>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sup>28</sup>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sup>29</sup>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sup>30</sup>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sup>31</sup>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sup>32</sup>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sup>33</sup>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sup>34</sup>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sup>35</sup>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sup>36</sup>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sup>37</sup>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 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sup>38</sup>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눅 20:27-38)

### 왜 갑자기 부활 이야기?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창조절 열한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주

일 후인 11월 27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로부터 교회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지금이 한 해의 막바지, 즉 연말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연말에 ‘종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생동맛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종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시간에는 두 가지 차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차원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인 차원의 시간입니다. 수평적인 차원의 시간을 ‘크로노스’(chronos)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현재-미래’라고 부르는 ‘길이’로서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수직적인 차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를 ‘카이로스’(kairos)라고 하는데, 이는 양(量)이 아니라 질(質)로서의 시간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정적인 때’입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막 1:15)고 했는데, 여기에 쓰인 ‘때’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왜 이 때가 ‘결정적’인가 하면,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은 수평적으로 흘러가는데 비해,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수직적으로 개입해 오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때’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이 ‘때’에는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전면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러나 결정적으로 개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강생/incarnation)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신의 세계로 꺾충 돌입하는 때도 있는데, 이것을 기



독교에서는 ‘부활(復活)’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해탈(解脫)’이라고 하지요. 다석 유영모 선생은 이것을 ‘숫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속나’(참나/얼나)가 있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호두 껍데기 같은 ‘겉나’(거짓나/몸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속나가 겉나에 갇혀 제 도리를 못하며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속나가 겉나를 뚫고 숫구쳐 나왔는데, 이 ‘숫남’/‘숫구쳐 나옴’이 ‘구원’이요, ‘부활’이요,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을 무엇이랴 명명하든 인간이 신의 경지에 다다른 상태 또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각 종교마다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종말과 부활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 **장생불사(長生不死) 대 천지개벽(天地開闢)**

오늘의 복음말씀은 사두개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부활논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편에 서 있고, 예수님은 “부활은 있다”는 편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두 편 중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부활은 있다”는 편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신론자 중에 실재적 무신론자들이 많듯이, 입으로는 “부활은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부활은 없다”고 주장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지킬 보(保)자에 지킬 수(守)자를 쓰는 “보수(保守)”라는 말은 “보전하여 지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무언가 ‘지킬 것’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

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돈 많고, 명예 있고, 지위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가진 것”과 “지킬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처럼 기득권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안락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세상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의 현실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장생불사(長生不死)를 꿈꾸었습니다. 즉 저들은 “부활”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오래 살기”, 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장생불사(長生不死)가 아닌 천지개벽(天地開闢)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해서, 지금 세상이 하루 빨리 끝나고 새 세상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부활”에는 바로 이런 새 세상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세상도 바뀌고, 나도 바뀌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바로 “부활신앙”에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보수적이지 않고 개혁적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기존적이지 않고 대안적입니다. 기존의 안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안을 찾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대교에서 부활신앙이 등장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권선징악(勸善懲惡)과 인과응보(因果應報)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선한 사람은 상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은 지지리도 못 살고 악인은 평평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침략했을 때 율법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모두 순교했고, 하나님을 배신한 배교자들은 우리나라 친일파들처럼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 속에서 부활신앙이 탄생했습니다. 원래 고대 이스라엘에는 내세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죽음이 끝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후에 “부활신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 부활 논쟁

오늘의 복음말씀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주전 2세기부터 존재 하던 유대교의 파벌 중 하나입니다. 그 구성원들은 예루살렘의 귀족 사제들과 부유한 기득권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통치에 협조하면서 그들 자신의 기득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활이라는 말이 모세오경에는 없다고, 부활에 대해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현재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지금 여기서’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 이익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웃음거리로 만들고자 신명기에 나오는 수혼법(25:5-10)을 내세웁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형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는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그 혈통을 잇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일곱 형제가 모두 한 부인과 결혼하였다는 가정을 세운 후에 그들이 모두 죽은 다음 부활할 경우에 그 부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후에도 현재의 삶이 그대로 계속되리라는 전제

를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혼생활은 현재의 삶에 속하는 질서로서 부활 후의 새 삶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함으로써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합니다(35절). 현재의 삶과 부활 후의 새 삶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부활 후의 사람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부활 후에는 다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36절). 결혼은 자녀를 낳아 대를 잇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부활 후에는 다시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말씀은 예수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경우 타격을 주어서 비웃음을 사게 하려고 부활에 대해 사두개인들이 던진 교묘한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대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부활신앙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삶은 ‘지금 여기’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합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도래합니다.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집니다. 기존의 질서는 끝장나고 새 세상이 옵니다. 첫째가 꼴지 되고, 꼴찌가 첫째 됩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 새 세상입니다.

## **부활 세상이란?**

그렇습니다! 부활 세상은 지금의 연장, 현재의 계속이 아니고 하나

님의 능력으로 창조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 세상은 종말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통(通)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종말이 온다,” 즉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말사상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일관된 주장이요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만이 수립되는 것(=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선포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모든 주권은 끝났다”는 反주권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존의 것은 철저히 멸망하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여는 천지개벽 시대가 온다는 하나님 나라 종말론은 예수님 이후로 자꾸 퇴색해 갔습니다. 까닭은 그것이 기존적인 것과의 계속적인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말론을 ‘말세론’으로 대체했습니다. 말세론은 종말론과 피안 희망을 혼동한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피안 표상은 인간을 영과 육 이원론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말세론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육체가 지배하는 세계이며, 육체적인 세계가 끝나는 게 종말이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삶이 온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말세론의 피안 표상은 ‘개인’이 단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으니 어떻게 등등. 이렇듯 피안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운명, 그리고 개인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종말론은 개인

이 아닌 ‘집단적인 기다림’입니다. 혼자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열망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또 하나 말세론에는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은 집단의식인데, 한 사람의 운명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파악한 후 거기서 내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에 내가 작게나마 한 몫을 담당해야겠다는 자세가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는 종교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자세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이승에서 죽어서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은, 지금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대청소하기 시작하셨으니, 우리 역시 빗자루라도 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대청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그것이 지금 여기서 부활을 살아내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그것이 부활의 새 세상을 지금 사는 길입니다.

## **산자여 따르라!**

제가 오늘 설교제목을 “산자여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복음말씀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잃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일 거야. 그날이 그날 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활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은 어제와 똑같을지 몰라도, 내일은 오늘 같아서는 안 돼. 세상은 반드시 바뀌어야 돼.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할거야.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가능할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고, 우리 국민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백남기다. 우리가 백남기다.” 지금 백남기 농민은 혼자 죽어서 백만 촛불로 부활하셨습니다. 잠자고 있던 우리들 양심을 깨우고, 아만 있던 우리를 거리로 나서게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몇 번 해 봤지만, 그 때마다 “죽 썬서 개 줬기에” 지레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지금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그동안 비뚤어지고 이지러졌던 치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새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활을 사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청소에 맡은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동참합니다. 어떤 사람은 광장에서 함성으로 동참합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보며 응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금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갖고 어떤 식으로든 ‘동참’하는 것

입니다. 모두 내 방법대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세력 밑에 있는 악마의 자식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청소를 도와 정의, 평등, 평화, 생명,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산 자여, 나를 따르라”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 십자가에 달리신 왕

<sup>33</sup>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sup>34</sup>[그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sup>35</sup>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sup>36</sup>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sup>37</sup>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sup>38</sup>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sup>39</sup>예수와 함께 달려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sup>40</sup>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느냐? <sup>41</sup>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sup>42</sup>"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sup>43</sup>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눅 23:33-43)

### 그리스도 왕 주일 (Christ the King Sunday)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창조절 열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

음 주일은 교회의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대림절 직전 주일인 오늘을,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일 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그리스도 왕 주일,’ Christ the King Sunday로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례력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구원 활동의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을 통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역시 “왕으로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군주제 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왕’이란 말은 좀 낯설고 심지어는 거슬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말은 성경의 핵심 주장이고, 기독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구약을 보면 출애굽한 히브리들이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열두 지파 동맹체’를 결성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출발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의 헌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희는 내 앞에서/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출 20:3, 신 5:7)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의 모든 나라는 신정(神政) 국가, 즉 신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 바로(Pharaoh)는 하늘의 신 호루스(Horus)의 화신(化身)이며, 태양신 라(Ra)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그는 사람이 아니었고 신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는 십계명의 제1계명은 “다른 왕-바로를 섬기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야훼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판관)시대 이스라엘에는 인간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

중에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하는 수 없이 ‘지파 동맹’에서 ‘왕국’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왕과 더불어 등장한 예언자들이 부르짖던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너 인간 왕은 하나님 뜻을 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reign of God, rule of God,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된 세상, 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대표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예수가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영어로 하면 “Jesus is the Lord”입니다. 여기서 Lord의 첫 글자가 대문자이고, 또 그 앞에 부정관사 ‘a’가 아니라 정관사 ‘the’가 붙어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가 유일무이한 ‘주님’이란 뜻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당시 로마제국에서 ‘주님’이라 불렸던 “로마황제 시저/카이사르(Caesar)가 아니라 예수가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 **주께서 왕이시라!**

이처럼 구약과 신약 모두 성경의 핵심 주장은 “하나님이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

고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류형선 님이 작사하고 작곡한 국악찬송 “주께서 왕이시라”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팔 쳐드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아 초목아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류형선 님은 작곡도 잘하지만 작사 실력도 정말 탁월합니다. 이 곡은 하나님께서 왕이 된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을 시적으로 집약해서 표현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국악 장단과 가락에 담아 그 신명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머릿속과 가슴속에 그려지고, 내가 마치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꿈(vision)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참 세상의 도래”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달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들풀처럼 피어나고, 사랑이 햇빛처럼 쏟아지고, 못 생명들이 풍성히 꽃피고 열매 맺는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런 (천국 같은) 세상이 하늘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

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 십자가에 달리신 왕?

(설명이 길어졌지만) 아무튼 “그리스도 왕 주일”을 통해 교회가 기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구원 활동의 최종 목표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말씀에 따르면 그 왕은 (일반 왕들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왕”입니다.

‘왕’과 ‘십자가’, 이 둘은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당시의 기득권층들, 로마제국 식민통치자들과 이에 빌붙어 기생하던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참수형에 처해지거나 스테반처럼 투석형에 처해지지 않고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은 그가 로마제국에 의해 반역자로 처형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초대 교회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고전 1:24)라고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전 1:25)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지극

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빌 2:9-11)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王) 중의 왕, 주(主) 중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일반 왕들이나 일반 주들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입니다. 문자 그대로 ‘the Heart of Christianity’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이요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식과 이치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와 해석이 참 많습니다. 섬김, 희생, 비움, 낮아짐, 내려놓음 등등. 하지만 저는 오늘 의 복음말씀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포용성’입니다.

##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복음말씀인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과 두 죄수를 해골산이라 불리는 곳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강도’라고 불린 이 두 죄수는 아마도 로마제국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다 붙잡힌 열혈당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두 죄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눅

23:34). 예수님은 죽어가면서까지 가해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십니다. 실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랑을 ‘포용’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고자 합니다. ‘포용’은 나와 다른 남을 아랑 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배척’입니다. 이는 반대하거나 거부하여 밀어 내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포용’입니다. 배척이 아니라 포용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듭니다. 이 진리를 우리 하나님 나라 일꾼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배척’이 아닌 ‘포용’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 중 매우 중요한 것 하나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진보와 보수를 그 사람이 가진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에 관한 ‘입장’에 따라 구분했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가서 진보와 보수는 ‘입장’이 아니라 ‘태도’에 따라 갈라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inclusive한가 아니면 exclusive한가, 즉 포용적인가 배타적인가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열려 있는 사람은 진보요, 닫혀있는 사람은 보수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요, 남도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보입니다. 그래서 보수는 “이것 아니면 저것,” 즉 “either-or”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진보는 “이것도 저것도,” 즉 “both-and”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둘 다 옳다는 양시론(兩是論)처럼 보이는 이 태도는 입

장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끄덕, 저것도 끄덕하는 사람은 결코 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진보라면 확실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자기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입장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진보가 아닙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진보를 가장한 파시스트(fascist)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열려있습니까, 닫혀있습니까?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십니까, 남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남들과 이야기할 때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면 ‘연설’이나 ‘독백’을 하십니까? 특별히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 남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만 말하는 사람은 ‘진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내 안에서 무엇이 왕 노릇 하고 있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인 태도, 배타적인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나만 옳으면 남들은 다 틀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틀리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다 바꾸거나 다 없애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는 ‘통일’된 사회가 아닙니다. ‘ 획일화’된 사회입니다. 다양성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힘에 눌려 잠시 침묵하고 있을 뿐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유신시대가 그렇게 종말을 맞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획일화된 사회가 아닙니다. 스테인드글라스처럼 여러 색깔과 여러 모양의 다양한 유리조각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거기서 다양성은 결코 ‘흠’도 아니고 ‘흠’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성 그 자체가 ‘완전함’이요 ‘완벽함’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달라도 모두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토론(討論)은 하되 논쟁(論爭)은 하지 마십시오. 토론은 의견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쟁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는 것입니다. 다툼은 반드시 어느 한쪽이 이기고 다른 한쪽이 져야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안 보고 삽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데, 예수님은 이를 한 몸-여러 지체로 설명했습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이것이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촛불집회에 동참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했습니다. 광장에서의 함성, TV를 시청하면서의 응원, 골방에서의 기도, 성금예의 참여 등등이 다 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 옳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고자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침묵도 또 다른 차원의 동참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해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맞아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반대로 돌아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지지를 철회 내지 유보하고 지금 침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침묵도 동참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나만 옳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남을 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궁극적

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 왕 주일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포용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일을 위해 불림 받은 하나님 나라 동역자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 깨어 있어라!

<sup>36</sup>“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sup>37</sup>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sup>38</sup>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sup>39</sup>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sup>40</sup>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sup>41</sup>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sup>42</sup>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sup>43</sup>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sup>44</sup>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 24:36-44)

### 대림절이란?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전례달력에 따라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이란 말은 기다릴 ‘대’(待) 자와 임할 ‘임’(臨) 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임하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을 다른 말로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강림’은 내릴 ‘강’(降) 자와 임할 ‘임’(臨) 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로, “신(神)이 인간 세계에 내려옴”을 뜻합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상에 내려옴’이 바로 강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약 2천 년 전 크리스마스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초림(初臨), 즉 첫 번째 오심, first comin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에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오셨던 초림(初臨)을 기억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면서 마지막 날에, 즉 종말(終末)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재림(再臨), 즉 두 번째 오심, second comin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1세기 찬송가』는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림을 기리는 찬송은 97장부터 105장까지 “구주 강림”이란 항목에 묶여져 있고, 또 재림을 기리는 찬송은 174장부터 181장까지 “재림”이란 항목에 따로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림절은 이 둘 모두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심도 기억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강림’과 ‘재림’ 모두를 기리는 절기인 대림절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탄절 직전 네 주일간 지켜왔습니다. 이 네 주일 중 어떤 주일은 ‘강림’에, 또 어떤 주일은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은 ‘재림’을 강조하는 주일인데, 그래서 본문이 ‘소(小)묵시록’[대(大)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킴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어졌습니다.

## ‘재림’의 참 뜻은?

그런데 재림이란 ‘정말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재림(再臨)이 문자 그대로 ‘다시 오심’을 뜻하지 무엇을 뜻하나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성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저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떤 사람은 이 사도신경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사도신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재림은 문자 그대로 ‘다시 오심’이요, ‘second coming’입니다.

두 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으로 수요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 마커스 보그(Marcus J. Borg)는 “그리스도교의 기본 용어들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심각하게 잘못 이해되고 있다. 그것들은 성서적이고 전통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왜곡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에 따르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교 언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literalism) 때문이고, 둘째는 천당과 지옥 해석틀(heaven and hell framework)로 그리스도교 언어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 용어들은 그것이 본래 말해지고 쓰인 ‘그때 거기서’의 원래 뜻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라진 정도가 ‘오해’의 수준을 넘어 ‘왜곡’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문자주의’와 ‘천당과 지옥 해석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이번 수요성경공부가 ‘세례자 교육’, ‘새 교우 신앙 강좌’, ‘새 제직 임용 교육’을 겸한다고 광고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 책을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신앙교육교재’ 내지 ‘신앙지침서’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담임목사로서 저는 서울제일교회 교우들의 신앙이 이 입장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물론 100%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큰 줄기에서는 동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수요성경공부에 참석하던 참석하지 않던, 반드시 이 책을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주일에 나눠드리는 <수요성경공부자료>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책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문자주의’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자주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성경공부 시간이 아니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만 재림은, 그것이 처음 말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쓰였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명 신약성서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신경도 재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

된 것이 완성되고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그들의 확신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열망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새 세상 - 새 새 하늘 새 땅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비전을 함께 꿈꾸고 열망했으며, 마침내는 그 비전이 그들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재림이란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가 이미 시작한 일을 (부분적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완성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재림이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총체적 현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림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가 시작한 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 또한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겠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 **‘지금’이 바로 재림의 때**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먼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 즉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만, 민심(民心)이 곧 천심(天心)이니 민(民)은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히 지금 2016년 대림절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재림하셨다고 믿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세상이 지금 촛불 민심을 통해서 완성되고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그리고 전국 주요도시 곳곳에서 190만 촛불 민심이 모였

습니다. 눈발도, 추위도, 바람도 결코 그 쫓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나라에는 컨트롤 타워도 없고, 그래서 국민들이 우왕좌왕했고 허둥지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컨트롤 타워도 있고, 국민들도 평소의 훈련에 따라 의연하고 질서정연하게 잘 대처합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 때 그리고 경주 지진 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너무 부끄러웠고, 일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100만, 200만 명이 모여서 거리 시위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찌 그리 평화로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미국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1만 명만 모여도 여기저기에 불을 지르고, 상가를 약탈합니다. 시위자나 경찰 양쪽 모두의 폭력이 난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류 역사상 이런 시위는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끈 시위도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이기는 했었지만, 이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 온 인류에, 우리나라 아니 우리국민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이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건 안 하건, 탄핵을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박근혜 씨는 이미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폭력적인 항쟁은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폭력적인 저항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문제일 뿐 박근혜 씨는 그 권좌에서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안 내려오려고 발버둥쳐도 아마 미국이 어



떤 방법으로든 끌어내릴 것입니다. 미국은 촛불집회가 반미시위로 언제 바뀔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만’ 다스리는 현실을 뜻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이집트의 바로나, 로마제국의 황제처럼 한 인간이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양 백성들을 다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적(公的)인 것을 사유(私有)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즉 공(公)을 사유(私有)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독점’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혼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공유(公有→共有)가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며, 동시에 온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를 현대 말로 바꾸면 “한 나라의 주권은 (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왕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뜻이 이러하기에 저는 감히 지금 2016년 대림절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재림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이 목숨 바쳐 이루고자 한 새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촛불 민심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완성되고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파루시아(parousia)**

지금 광화문 등 전국 곳곳의 광장에서는 시위가 아니라 축제가 벌

어지고 있습니다. 1차 집회가 횃수를 거둬해 5차에 이르는 동안, 처음에는 ‘분노’해서 모였는데 지금은 민주주의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지금이 ‘재림의 때’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림은 다시 ‘오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쓰인 ‘오심’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파루시아(parousia)입니다. ‘임재’라는 뜻의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황제의 행차’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로마나 로마 식민지의 어떤 도시에 저들이 고대해마지않던 황제가 드디어 온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였습니다.

황제가 ‘파루시아’하면, 그 도시 관리들은 황제를 맞으러 시 밖으로까지 영접을 나갑니다. 아니 그들만이 아닙니다. 온 도시의 주민들이 모두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 황제의 파루시아를 맞이하러 나가 전도시적 의전행위가 펼쳐집니다. 나팔이 울려 퍼지고, 영접하는 도시 주민들은 길을 만듭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면, 그 사이로 황제가 행진해 들어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또는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파루시아’라는 로마제국의 신학용어를 기독교 신학용어로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먼저 나와 그를 영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영령들입니다. 죽은 이들이 부활하여 먼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산 이들도 나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한바탕 잔치가,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묘사한 파루시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광장에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도 와 계십니다. 세월호 희생자들도 와 있습니다. 저들은 다시는 이 땅에서 자신들

과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니 저들만이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의 종군위안부 등 징용피해자들, 제주 4.3항쟁 희생자들, 6.25 전쟁 희생자들, 4.19혁명 희생자들, 5.18 민주영령들,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수많은 민주·통일 열사들도 와 계실 것입니다. 왜? 저들이 바라고 꿈꾸던 세상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 깨어 있어라!

저는 이미 이번 촛불집회의 목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처럼만 한다면 그것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 합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이 헌법 조항에 죽은 문자로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나라, 친일의 부끄러운 역사를 완전히 청산하고 친미사대주의를 극복한 나라, 힘 있고 땀 있는 사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온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남과 북이 갈라져 원수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화해하고 공존하며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앞서간 영령들이 목숨 바치며 꿈꾸던 나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제를 즐기되 반드시 ‘깨어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깨어있지 못해서 “죽 썬 개 준” 경험이 많습니다. 피와

땀은 국민이 흘렸는데 권력은 얼굴만 바꿔 기득권자들이 다시 차지했습니다. 4.19가 그랬고, 5.18이 그랬고, 6.10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혁명과 항쟁의 성과를 모두 도둑질 당했습니다. 6.10 때 우리는 6.29 선언에 속아 노태우에게 민주화의 결실을 헌납했습니다. 2008년 광주병 촛불집회 때도 엄청나게 많은 촛불 민심들이 모였고 대통령의 사과도 받았지만, 우리는 4대강 사업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죽 썰서 개줄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시중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명분으로 의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개헌하여 (일본처럼) 기득권 세력이 영구 집권을 꾀한다는 시나리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12월 21일에 한국으로 돌아와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 하야시키고 국민적 영웅이 돼서 대통령이 되게 한다는 시나리오 등등, 촛불민심을 자기들의 집권에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저런 시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어 박근혜 씨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렸다고 해서 결코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들의 뜻, 보수언론의 뜻, 미국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말씀은 “알면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알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고 국민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 듣고 본 것을 알려라!

<sup>2</sup>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sup>3</sup>물어 보게 하였다.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sup>4</sup>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sup>5</sup>눈 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sup>6</sup>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sup>7</sup>아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sup>10</sup>‘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sup>11</sup>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마 11:2-11)

###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대림절 셋째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말씀은 세례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세례요한에 대해 각각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은 세례요한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말한 것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 말한 것으로 구별됩니다. 오늘의 복음말씀은 후자, 즉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 말한 것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세례요한은 유대교의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로 부터 협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뭐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아니면 죽었다 살아난 엘리야요?” “그것도 아니면 왜 당신은 그런 소리를 하오?”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고 있던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요 1:23).

“나는 소리다”라는 요한의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無)나 공(空)과 꼭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이 말은 “나는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그의 길을 준비했을 뿐, 아무것도 아닌 무(無)의 존재입니다”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요한복음 1장 7절에도 나옵니다. “그 사람(요한)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예수님)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세례요한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았고, 그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며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누가 제일 높으냐”며 서로 다투고, 자기를 스승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게 해 달라고 조르던 예수님 제자들과는 달리, 요한은 “그는(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요한은) 쇠하여야 한다”(요 3:30)고까지 말한 겸손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 요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마 11:11)는

평가를 받습니다.

## 세례요한과 예수의 차이점

그런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신이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우리가 그토록 목 놓아 기다리던 메시아 맞죠?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이제 모든 뒷일은 당신께 맡기고 나는 편히 눈을 감아도 되겠죠?”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 소개하기는 했는데, 당신이 하는 일들을 전해 들으니 도무지 메시아 같지 않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진정 당신이 메시아가 맞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하오?”라는 ‘의심’이 담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요한의 실망감과 절박한 재촉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요한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조점은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대부분 ‘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마 3:10)라는 그의 선포가 이를 잘 보여 줍니다. “도끼로 찍어 버린다,” “불로 살라 버린다”라는 말은 진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는 분노의 예언자, 불의에 항거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말의 심판자가 오시기 전에 모두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고, 회개의 증거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신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선포했지만, 그것은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기쁜 소식, 즉 복음/Good News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말과 행태는 세례요한과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청중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어두운 면에서만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구원의 때를 축하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세리도 죄인도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 해방의 때, 구원의 때를 축하하자”라는 식의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이 점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라는 세례요한의 질문에는 ‘심판주’라는 그 나뉠의 메시아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눈 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마 11:5)고 대답합니다. 즉 그가 하는 일은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며, 악마에게 사로잡혀 고뇌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아니라 밝음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세례요한의 기대와는 다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듯 세례요한이 예수님 자신의 말과 행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 끝내는 자신의 메시아성까지 의심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그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최고의 찬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마 11:9),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마 11:11)라고 말입니다. 왜 일까요? 세례요한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마 11:17) 그 세대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했지만 성실하고 진실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데 열심히 봉사했고, 그러고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라며 스스로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 지금은 재림의 때

지금 우리는 2016년 대림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대림절 첫째주일에 대림절은 약 2천 년 전 크리스마스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갓난아기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일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라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지만, 민심(民心)이 곧 천심(天心)이니 제 눈에는 지금 2016년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재림하신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바쳐 이루고자 한 새 세상이,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만이 다스리는 나라, 달리 말하면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촛불 민심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완성되고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목격했던 황제의 행차, 주님의 임재 ‘파루시아’ 잔치가 지금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의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촛불 민심이 이겼습니다. 지난 12월 9일(금) 오후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결되었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현재의 결정이 국민의 뜻과 다르면, 아마도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민심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난 7주 동안 그 무엇도 우리 국민의 촛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촛불은 들불로 번졌고, 마침내 횃불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활 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승리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해냈다”는 자긍심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긍심과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바뀌면 곤란합니다. 첫째로 자만심은 “이만하며 됐다”고 생각해 항쟁을 멈추게 하고, 결국 죽 썰서 개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자만심은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쉽고, 이는 결국 배타적인 태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주간 수많은 촛불들이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촛불

민심은 우리 교회 서제빌딩 입구에 걸린 현수막의 구호처럼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염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와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고 이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지만, 그 이유와 방법이 달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세례요한은 ‘분노’에 기초했고, ‘심판’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연민’, ‘사랑’, ‘compassion’에 기초했고, 파괴된 삶/생명의 ‘회복’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목표를 가졌으나 노선을 달리했고, 그래서 요한은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5절에서 당신이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어 6절에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새번역의 표현을 개역은 “실족하다”로, 공동번역은 “의심을 품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실족 운운하신 이유는 당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도 실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을 풀어내지 않은 채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은 거짓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눈 먼 사람을 고치셨듯이 감옥에 갇힌 자도 석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회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힌 당대의 의인인 세례요한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지금 “유대 백성들의 분노를 담아 헤롯 정권을 심판하고 나를 감옥에서 풀어내라”

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요한만이 아니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온갖 좋은 삶의 조건을 허락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왜 방관하느냐, 악을 왜 용납하느냐, 이 고달픈 삶에서 왜 나를 당장 구원해주지 않느냐 합니다. 그런 하소연 자체가 잘못된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족입니다.

###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already, but not yet)라는 성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는 이미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초림(初臨) 예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길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이가 재림(再臨)주입니다. 그 때를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이 신앙이 바로 대림절 신앙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경공부반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5장과 6장을 공부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교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실재라면, ‘개입’이란

말은 설자리가 없어진다. 하나님은 개입(intervention)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세상에 '관여'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에 우리를 개방하며, 하나님에 참여함으로써 불가능했을 일들이 가능해 진다.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행동은 서로 협력(cooperation), 즉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대림절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참여'를 통한 상호작용(interaction)입니다.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 내가 춤추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손뼉을 맞부딪쳐 소리를 내는 일입니다. 그래야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작은 겨자씨 같은 '이미'가 큰 나무가 되고, 적은 양의 누룩과 같은 '이미'가 온 세상을 부풀게 하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광장에서) 듣고 본 것을 알려라!**

우리는 지난 7주간 광장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이제 멈추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죽 썬서 개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교활한 기득권자들에게 되치기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6.10 항쟁 당시 우리는 6.29에 속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야권은 김대중과 김영삼으로 분열됐고, 여권은 어부지리를 얻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어부지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들은 두세 수 앞을 내다보고, 이보전진을 위해 일보후퇴를 했던 것입니다. 기득권은 결코 스스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는 수 없이 내려놓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저항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저항이며, 분열이 아

나라 단결입니다. 그러니 작은 차이는 양보해 극복하고, 대의를 앞세워 큰 틀에서 연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처럼 끝까지 비폭력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8일(목) 오후 2시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시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기도회 제목이 가리키듯이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대통령의 퇴진이 아닙니다.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헌법 속에서 ‘죽은 문자’로만 존재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네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생활’이 되는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목표의 실현은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그 기도회의 파견사를 읽어드리며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역사의 부름, 국민의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고 사랑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제2의, 제3의 박근혜가 독버섯처럼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한국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서,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가서,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당한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갈아엎으십시오. 가서, 국가권력이 짓밟은 우리들 백남기의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가서, 세월호참사의 땅, 참으로 원통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그리하여 정의의 땅을 일궈내십시오. 그리하여 평화의 땅을 일궈내십시오. 그리하여 생명의 땅을 일궈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 정원진 목사

1962년 9월 서울 출생

## 학력

1985년 2월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B.S. 이학사)

1988년 2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M.Div. 목회학석사)

2003년 6월 맥코믹 신학대학원 졸업 (M.A.T.S. 신학석사)

2009년 5월 시카고 신학대학원 졸업 (D.Min. 목회학박사)

## 주요 목회경력

1991년 5월~1993년 12월, 한국기독교장로회

잠실중앙교회 (담임목사: 박성자) 전도사 및 준목

1994년 5월 2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

1994년 1월~2001년 6월, 한국기독교장로회 향린교회(담임목사: 홍근수) 부목사

2005년 3월~2010년 1월, 로드아일랜드 제일한인교회 (UCC) 담임목사

2010년 3월~2016년 2월,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 원목실장

2016년 3월~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제일교회 담임목사



## 탈(脫)-향(向)의 길 위에서

지은이 | 정원진

펴낸이 | 정원진

펴낸곳 | 한국시독교장로회 서울제일교회

초판 1쇄 인쇄 | 2017년 12월 11일

초판 1쇄 발행 | 2017년 12월 24일

주소 | 04559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대로 120 (오장동)

전화 | 02-2266-0809

팩스 | 02-2266-0807

이메일 | wonjin62@gmail.com

(비매품)